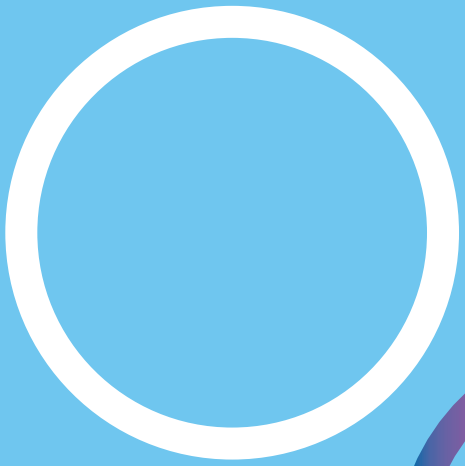


영어

고등학교 문법편(언어)
정답과 해설



I 음운

개념 01 음운

본문 10~11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분절 음운 4 운소 5 자음
6 ㄷ, ㅌ, ㅍ 7 소리의 길이(장단)

학습 활동 ① ㅂ ② ㅍ ③ ㅌ ④ ㅊ ⑤ 단음(짧은소리)
⑥ 장음(긴소리) ⑦ ㅌ, ㅊ, ㅊ, ㅊ, ㅌ ⑧ ㅊ, ㅊ, ㅊ, ㅊ, ㅊ, ㅊ, ㅊ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⑤ 03 ②

01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는데,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등이 있으며, 비분절 음운에는 강약, 고저, 장단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각 언어에 따라 음운의 수는 다르다. / ④ '불', '풀', '뿔'은 'ㅂ', 'ㅍ', 'ㅌ'으로 인해 그 의미가 구별된다.
→ 음운은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는 구별하여 인식하는 소리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말의 '불', '풀', '뿔'은 자음 'ㅂ', 'ㅍ', 'ㅌ'으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된다. 반면 영어권 화자들은 자음의 소리 세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 '풀', '뿔'의 차이를 쉽게 구별해 내지 못한다.
-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 음운은 말의 뜻, 즉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말[馬]'과 '말[言]'에서는 소리의 길이로 인해 그 의미가 구별된다.
→ '말[馬]'과 '말[言]'은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이 같으며,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된다.

02 최소 대립쌍이란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음운을 가진 단어들의 쌍을 말한다. ⑤에 제시된 단어 '달'과 '뉘'는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며,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것은 자음 'ㄷ'과 'ㄹ'이 아니라 모음 'ㅏ'와 'ㅜ'이다.

오답 풀이

- 단독으로는 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는 음운이다.
→ 자음은 모음과 마찬가지로 분절 음운이므로,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뉜다.
-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하며, 음소는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 공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좁혀서 내는 소리이다.
→ 자음은 목, 입, 혀 등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다.

03 '책가방[책까방]'의 음운은 'ㄷ, ㅈ, ㅊ, ㅌ, ㅂ, ㅌ, ㅇ'으로 총 8개이다.

오답 풀이

- 개구리
→ 'ㄱ, ㅈ, ㅊ, ㅌ, ㅂ, ㅌ'로 6개이다.
- 외동말
→ 'ㄱ, ㅈ, ㅊ, ㅌ, ㅂ, ㅌ'로 7개이다.
- 자전거
→ 'ㄷ, ㅌ, ㅊ, ㅌ, ㅂ, ㅌ'로 7개이다.
- 이발소
→ 'ㄱ, ㅈ, ㅊ, ㅌ, ㅂ, ㅌ'로 6개이다.

개념 02 자음

본문 12~13쪽

(개념 확인하기) 1 위치 2 거센소리 3 ○ 4 × 5 파찰음 6 목청소리, 섰입천장소리 7 ㅊ 8 ㅌ

학습 활동 ① ㅌ, ㅍ, ㅊ ② ㅊ, ㅊ, ㅊ, ㅌ ③ ㅊ ④ ㅌ, ㅌ
⑤ ㅌ, ㅌ ⑥ ㅌ, ㅌ

(교과서 적용하기) 01 ④ 02 ② 03 ⑤

01 조음 위치로 볼 때, 혀바닥과 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섰입천장소리(경구개음)라고 한다. 우리말의 자음에서 섰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ㅌ, ㅍ, ㅊ'이다. '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윗잇몸소리에 해당한다.

02 ①~⑤에 제시된 자음 중, 파열음은 'ㅌ, ㅊ, ㅊ'이다. 이 중에서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ㅊ'과 'ㅊ'이며, 이 중 거센 소리는 'ㅊ'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ㅊ'이다.

오답 풀이

- ㅌ
→ 파열음, 입술소리, 거센소리이다.
- ㅊ
→ 파열음, 여린입천장소리, 된소리이다.
- ㅊ
→ 파찰음, 섰입천장소리, 거센소리이다.
- ㅌ
→ 비음, 여린입천장소리, 예사소리이다.

03 <보기>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⑤에서 'ㅌ'은 된소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기이며, '선글라스'로 표기해야 한다.

문법 짚고 가기 외래어 표기 규정의 파열음 표기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에서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파열음 표기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 사용하게 하여 혼란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 또, 'jam', 'sunglass'를 각각 '잼'과 '선글라스'로 표기하는 것처럼, 파찰음 [ㄸ]과 마찰음 [ㅅ]의 표기에도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개념 03 모음

본문 14~15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 4 × 5 ○ 6 ○
7 후설 모음 8 ㅏ, ㅑ, ㅓ, ㅕ, ㅗ, ㅛ

학습 활동 ① ㅏ,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③ 전설 모음 ④ 고모음 ⑤ 원순 모음

(교과서 적용하기) 01 ④ 02 ① 03 ③

01 ④에서 모음 ‘ㅛ’는 단모음이며, ‘ㅏ’는 이중 모음이다. ①의 ‘ㅏ’와 ‘ㅓ’, ②의 ‘ㅓ’와 ‘ㅕ’, ③의 ‘ㅕ’와 ‘ㅗ’, ⑤의 ‘ㅗ’와 ‘ㅛ’는 모두 이중 모음으로만 묶여 있다.

문법 짚고 가기 모음의 분류

단모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음	ㅏ,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이중 모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짐	ㅏ,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ㅑ, ㅓ, ㅕ, ㅗ, ㅛ

02 <보기>에 제시된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ㅓ’이다. ‘ㅓ’가 쓰인 단어는 ①의 ‘앞’이다.

오답 풀이

- ② 눈
→ ‘ㅓ’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다.
③ 숨
→ ‘ㅓ’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④ 새
→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⑤ 귀
→ ‘ㅓ’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다.

헷갈리는 문법 Q&A

Q ‘ㅛ’와 ‘ㅓ’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바뀌는데, 단모음이 맞나요?
A 전설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ㅛ’와 ‘ㅓ’는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발음 현상을 감안해 표준 발음법 제2장 제3항의 [붙임]에서는 ‘ㅛ, ㅓ’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ㅛ’와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ㅛ[w]’와 단모음 ‘ㅓ’를 연속해 발음하는 것과 같고,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ㅓ[w]’와 단모음 ‘ㅓ’를 연속해 발음하는 것과 같아 ‘ㅓ’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 경우 ‘ㅓ’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회]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회]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03 ㉠의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다. ㉡의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다. ㉢은 평순 모음이자 고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은 평순 모음이자 저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과 ㉡을 나누는 기준은 고모음과 저모음, 즉 혀의 높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6~1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④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음성(말소리)에서 공통의 요소만을 뽑아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오답 풀이

- ①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② 말을 할 때 나오는 물리적인 소리이다.
→ 말을 할 때 나오는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이다.
③ 물체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울림을 말한다.
→ 물체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울림은 ‘음향’이다.
④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이다.
→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낱말)’이다.
⑥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발음의 최소 단위는 ‘음절’이다.
⑦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전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다.
→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전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는 ‘문장’이다.

02 ‘남’과 ‘놈’은 ‘ㅏ’와 ‘ㅓ’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 대립쌍이다.

03 ④는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이다. 비분절 음운, 즉 운소는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될 수 있는 소리의 장단, 고저, 강약 등을 말한다.

오답 풀이

- ①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한다.
→ 분절 음운은 ‘음소’,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한다.
②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다.
→ 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음운을 말하는 것으로 자음과 모음 등이 있다.
③ 하나 이상이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 자음과 모음은 하나 이상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자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고,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⑤ 더는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이다.
→ 분절 음운에 속하는 자음과 모음 등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이다.

04 혀끝을 윗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내는 것은 유음 ‘ㄹ’의 조음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① ㄴ / ③ ㄹ / ⑤ ㄹ
→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 내는 비음들이다.
④ ㅁ
→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 내는 파열음이다.

05 ⑤의 ‘ㅁ, ㅂ’은 모두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들이다.

오답 풀이

- ① ㄷ, ㅂ
→ 'ㄷ'은 잇몸소리, 'ㅂ'은 입술소리이다.
- ② ㅅ, ㅎ
→ 'ㅅ'은 잇몸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 ③ ㅆ, ㅈ
→ 'ㅆ'은 잇몸소리, 'ㅈ'은 혀입천장소리이다.
- ④ ㄱ, ㅌ
→ 'ㄱ'은 혀입천장소리, 'ㅌ'은 잇몸소리이다.

06 영어권 화자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한국어 화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바보' [pabo]에서 '바'의 'ㅂ'과 '보'의 'ㅂ'은 한국어 화자들에게 같은 소리로 인식되지만, 영어권 화자들은 앞의 'ㅂ'을 무성음 [p]로, 뒤의 'ㅂ'을 유성음 [b]로 인식한다.

오답 풀이

- ① 수현: 한국 사람들은 '바보'에서 '바'의 'ㅂ'과 '보'의 'ㅂ'을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아.
→ 한국 사람들은 '바'의 'ㅂ'과 '보'의 'ㅂ'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 ③ 상태: 한편 영어는 된소리가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뽕]과 [방]이라는 발음을 들었을 때 동일한 사물을 떠올릴 수 있어.
→ 영어의 자음 체계에는 무성음과 유성음만 있고, 된소리는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권 사람들은 [뽕]과 [방]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 ④ 인영: 맞아. 그런 점에서 외래어 표기는 '까스'가 아닌 '가스(gas)'로, '빠스'가 아닌 '버스(bus)'로,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는 된소리가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회장: 서로 다른 음운 체계를 지닌 언어권의 사람들이 대화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 한국어 화자들은 '뽕'과 '방'이라는 대상을 된소리와 예사소리로 구분하여 지칭하는데, 된소리를 음운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어권 사람들은 두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07 '페이크'에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쓰인 'ㅇ'은 음가가 없는 자음이므로, 음가가 있는 자음은 'ㅍ, ㅋ'이다. 두 자음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d)이며,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인 거센소리(f)에 해당한다. 자음 'ㅍ'은 입술소리(a)이고, 'ㅋ'은 혀입천장소리(e)이므로, 조음 위치는 두 자음의 공통점이 아니다. b는 비음, c는 잇몸소리, g는 된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08 <보기>의 설명은 단모음에 대한 내용이다.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므로 ①의 'ㅏ, ㅑ, ㅓ'는 모두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 ② ㅓ, ㅕ, ㅗ
→ 'ㅗ'는 이중 모음이다.
- ③ ㅓ, ㅕ, ㅗ
→ 'ㅗ'는 이중 모음이다.
- ④ ㅓ, ㅕ, ㅗ
→ 'ㅓ, ㅕ'는 이중 모음이다.
- ⑤ ㅓ, ㅕ, ㅗ
→ 'ㅓ'는 이중 모음이다.

09 '네'는 반모음 'ㄴ[j]'와 단모음이 결합된 이중 모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모음 'ㄹ[w]'와 단모음이 결합된 이중 모음이다.

오답 풀이

- ① 나
→ 반모음 'ㄴ[j]'와 단모음 'ㅏ'가 결합된 것이다.
- ② 내
→ 반모음 'ㄴ[j]'와 단모음 'ㅓ'가 결합된 것이다.
- ③ 너
→ 반모음 'ㄴ[j]'와 단모음 'ㅜ'가 결합된 것이다.
- ④ 네
→ 반모음 'ㄴ[j]'와 단모음 'ㅔ'가 결합된 것이다.

10 모음 'ㅛ'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에 해당한다. 중모음에는 'ㅓ, ㅕ, ㅗ, ㅛ'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 후설 모음 / ② ㉡: 원순 모음
→ 모음 'ㅓ'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 ③ ㉢: 고모음
→ 모음 'ㅓ'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다.
- ④ ㉣: 전설 모음 / ⑤ ㉤: 원순 모음
→ 모음 'ㅛ'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11 제시된 'ㅏ, ㅑ, ㅓ, ㅕ, ㅗ, ㅛ'는 모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펴서 소리 내는 모음인 평순 모음이다.

오답 풀이

- ① 저모음
→ 저모음에는 'ㅏ, ㅑ'가 있다.
- ② 전설 모음
→ 전설 모음에는 'ㅓ, ㅕ, ㅗ, ㅛ, ㅣ'가 있다.
- ③ 후설 모음
→ 후설 모음에는 'ㅓ, ㅕ, ㅗ, ㅛ, ㅡ'가 있다.
- ⑤ 원순 모음
→ 원순 모음에는 'ㅓ, ㅕ, ㅗ, ㅛ'가 있다.

12 첫소리로 제시된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잇몸소리로 'ㄷ, ㅌ, ㅌ, ㅌ, ㅌ, ㅌ'이며, 이 중 마찰음은 'ㅌ, ㅌ'이다. 가운뎃소리로 제시된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 소리는 평순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이다. 끝소리로 제시된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ㅁ, ㄴ, ㅇ'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②의 '뽕'이다.

오답 풀이

- ① 땅
→ 'ㄷ'은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파열음이다. 'ㅏ'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ㅇ'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 ③ 손
→ 'ㅌ'은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마찰음이다. 'ㅓ'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ㄴ'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 ④ 들
→ 'ㄷ'은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파열음이다. 'ㅓ'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ㄹ'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 ⑤ 낮
→ 'ㄴ'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비음이다. 'ㅏ'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 소리이다. 'ㅌ'은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마찰음이다.

13 ‘ㄴ’(㉠), ‘ㄷ’(㉡), ‘ㄹ’(㉢)는 모두 후설 모음이며,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세 모음을 연이어 발음할 경우에도 이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ㅡ’는 고모음, ‘ㅣ’는 중모음, ‘ㅏ’는 저모음이므로, 세 모음을 연이어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입이 더 크게 벌어진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로 갈수록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다. 그런데 ㉠~㉢는 모두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에서 ㉢로 갈수록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을 더 둥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게 된다. / ③ ㉠는 입술을 자연스럽게 펴서 소리 내지만, ㉡와 ㉢는 입술을 오므려서 소리 낸다.
→ ㉠~㉢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을 둥그랗게 오므려서 소리 내는 모음이 아니다.
- ⑤ ㉠ → ㉡ → ㉢로 이어서 발음하는 동안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보다 뒤로 이동하고, 높이도 낮아진다.
→ ㉠~㉢를 이어서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의 높이는 낮아지지만, 세 모음은 모두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 짚고 가기 혀의 높낮이와 입이 벌어지는 정도

혀의 높이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혀의 높이가 높을수록(고모음) 입은 적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저모음) 입은 많이 벌어진다.

개념 04 음운의 변동 ①: 교체

본문 18~21쪽

- (개념 확인하기) 1 변동 2 ㄱ, ㄴ, ㄷ, ㄹ, ㅁ, ㅂ, ㅇ 3 교체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5 ○ 6 × 7 갓 8 갇(다) 9 난로
10 ㅈ, ㅊ 11 된소리되기 12 × 13 ○ 14 [틀리], [골란]
15 [해도지], [부침] 16 만이, 한류 17 달님

- 학습 활동 ① 한날 ② 압 ③ 올 ④ 오슬 ⑤ ㉠
⑥ 모음 ⑦ 압날 ⑧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⑨ 압날 ⑩ ㅁ
⑪ 비음화 ⑫ 칼랄 ⑬ ㄴ ⑭ ㄹ ⑮ ㄴ ⑯ ㄹ ⑰ ㄹ
⑱ 집게[집게] ⑲ 절대[잠따] ⑳ 갈 사람[갈싸람]

-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⑤ 03 ② 04 ① 05 ④
06 ②

01 ‘술쑥’은 [술쑹]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로 올 수 없는 받침 ‘ㅍ’이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는 장롱 깊이 돈을 감췄다.
→ ‘깊이’는 앞 음절의 끝소리 ‘ㅍ’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기피]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연음에 의한 것이다.
- ② 오늘은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 ‘꽃에’는 앞 음절의 끝소리 ‘ㅊ’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그대로 이어져 [꼬체]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연음에 의한 것이다.
- ③ 청소년을 위한 일곱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 ‘일곱’은 받침의 발음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농촌의 부족한 일손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일손’은 받침의 발음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법 짚고 가기 연음

연음이란 ‘봄이’가 [보미]로, ‘겨울이’가 [겨우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이 앞 음절의 끝소리에 있는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나는 소리를 말한다. 연음은 앞 음절의 자음 뒤에 오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뿐만 아니라 ‘부엌 안[부여간]’과 같이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02 ‘검문자’는 [검문짜]로 발음되는데, 받침 ‘ㅂ’이 ‘ㅁ’을 만나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탐방 / ② 냄비 / ④ 굴뚝이
→ ‘탐방’, ‘냄비’, ‘굴뚝이’는 발음이 변하지 않는다.
- ③ 밥알
→ ‘밥알’은 [바발]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03 ‘덧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ㅅ’이 ‘ㄷ’으로 바뀌어 [던문]으로 발음되고, 다시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던문]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들녘
→ ‘들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ㄱ’이 ‘ㄷ’으로 바뀌어 [들:녘]이 되었다가, [들:력]으로 발음된다(유음화).
- ③ 낱고
→ ‘낱고’는 받침 ‘ㅎ’이 뒤에 오는 ‘ㄱ’과 만나 축약되어 [나코]로 발음된다(거센소리되기).
- ④ 잡는다
→ ‘잡는다’는 받침 ‘ㅂ’이 뒤에 오는 ‘ㄴ’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잠는다]로 발음된다(비음화).
- ⑤ 술단지
→ ‘술단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뀌어 [술단지]로 발음된다. 그런 다음 이 ‘ㄷ’ 받침의 영향을 받아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술땨지]로 발음된다(된소리되기).

04 ①의 ‘술래’는 [술래]와 같이 글자 그대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인 유음화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하늘이 몹시 맑고 쾌청한 것이 가을날 같았다.
→ '가을날'은 받침 'ㄹ'의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가을랄]로 발음된다.
- ③ 우리 가족은 여름에 광안리로 피서를 다녀왔다.
→ '광안리'는 받침 'ㄴ'이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광알리]로 발음된다.
- ④ 문을 열고 나서려는 찰나,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 '찰나'는 받침 'ㄴ'의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찰라]로 발음된다.
- ⑤ 극의 전개가 혼란하여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혼란'은 받침 'ㄴ'이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홀란]으로 발음된다.

05 ④의 '미단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경우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미:다디] → [미:다지]로 발음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다./ ⑤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티끌만 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느냐?
→ '잔디', '티끌'과 같이 하나의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 [잔디], [티끌]과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된다.
- ② 가볍게 계단을 디며도 빠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 '디며도'는 '디디-+-어도'가 결합한 것으로 'ㄷ' 다음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것이 아니며, '디디-' 역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디며도]와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된다.
- ③ 모두 대도시로 떠나 마음은 온통 빈집 천지이다.
→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이다.

문법 짚고 가기

실질 형태소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친구의 책'에서 '친구', '의', '책' 등을 말한다. 그중에서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로,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가', '을', '-었-', '-다'가 이에 해당한다.

용언의 어간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용언은 활용을 하는데,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같은 것을 말한다.

06 한자어인 '발전'은 받침 'ㄹ' 뒤에 'ㅈ'이 오는 경우이므로, [발쩐]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입술
→ '입술'은 받침 'ㅂ' 뒤에 'ㅅ'이 온 경우로, [입썰]로 발음된다.
- ③ 학교
→ '학교'는 받침 'ㄱ' 뒤에 'ㄱ'이 온 경우로, [학꾄]로 발음된다.
- ④ 살 데
→ '살 데'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ㄷ'이 온 경우로, [살떼]로 발음된다.
- ⑤ 먹살잡이
→ '먹살잡이'에서 '먹살'은 받침 'ㄱ' 뒤에 'ㅅ'이 온 경우로 된소리로 발음되며, '잡이'는 연음되어 [먹쌔자비]로 발음된다.

문법 짚고 가기 'ㅣ' 모음 역행 동화

'ㅏ, ㅑ, ㅓ, ㅕ'가 그 뒤에 이어지는 'ㅣ' 모음에 동화되어 'ㅕ, ㅖ, ㅗ, ㅛ'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ㅣ' 모음 역행 동화는 '아비' → [애비](×), 아기 → [애기](×), 속이다 → [쇠기다](×), 잡히다 → [젹히다](×)와 같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형대로 밝혀 적고 원형대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남비' → 냄비(○), 올챙이 → 올챙이(○) 등은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가 표준어이다.

개념 05 음운의 변동 ②: 탈락

본문 22~23쪽

(개념 확인하기) 1 탈락 2 자음군 단순화 3 × 4 ×
5 [널꼬], [밥찌] 6 'ㅎ' 탈락 7 (1) 날아, 놓여 (2) 아는, 등그니, 사니 8 따라, 썼다, 잠가

학습 활동 ① ㄹ ② 쌓다 ③ ㅎ ④ 올라 ⑤ ㄹ
⑥ 좋다 ⑦ ㅎ ⑧ 썼다 ⑨ 서-+-었-+-다 ⑩ ㅏ
⑪ 기빠서 ⑫ 기뻐-+-어서 ⑬ - ⑭ 일치한다

(교과서 적용하기) 01 ① 02 ④ 03 ④

01 겹받침 'ㄹ'은 'ㄹ'이 탈락하고 'ㄱ'이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닭'은 [닥]과 같이 끝소리가 'ㄱ'으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끝소리가 'ㄹ'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② 할고
→ '할고'는 [할꼬]로 발음된다.
- ③ 열다
→ '열다'는 [열따]로 발음된다.
- ④ 외곶
→ '외곶'은 [외굴/웨굴]로 발음된다.
- ⑤ 끓는점
→ '끓는점'은 [끓는점](자음군 단순화) → [끓른점](유음화)으로 발음된다.

02 제시된 글에서 '부니, 노니, 나는, 사셨으면'은 'ㄹ' 탈락이 일어난 단어이다. '불-+-니' → '부니', '놀-+-는' → '노는', '날-+-는' → '나는', '살-+-시-+-었-+-으면' → '사셨으면'과 같이 'ㄹ'이 탈락된다. 따라서 'ㄹ'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의 개수는 4개이다.

03 '꼬-+-어' → '꺼', '담그-+-아' → '담가', '크-+-어서' → '커서'로, 모두 모음 'ㅡ'가 탈락한 단어들이다.

개념 06 음운의 변동③: 첨가, 축약

본문 24~25쪽

(개념 확인하기) 1 첨가 2 ㅎ, ㅍ 3 'ㄴ' 첨가 4 × 5 ×
6 ○ 7 'ㄴ' 첨가, 유음화 8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9 축하해 10 책잡히지, 압도록, 좋겠어 11 좋다

학습 활동 ① 숨니불 ② 끈넙 ③ 영영농 ④ 맨넙 ⑤ ㅁ,
ㅌ, ㄷ, ㅎ, ㅌ, ㅇ(6개) ⑥ ㅁ, ㅌ, ㅌ, ㅌ, ㅇ(5개) ⑦ ㄷ+ㅎ → ㅌ
⑧ ㅁ, ㅌ, ㅁ, ㅁ, ㅌ, ㅌ(6개) ⑨ ㅁ, ㅌ, ㅌ, ㅌ, ㅌ(5개) ⑩ ㅁ+
ㅎ → ㅌ

(교과서 적용하기) 01 ④ 02 ③ 03 ④

01 ④의 '독약'은 [도꺾]으로 발음되며, 첨가되는 음운이 없이 받침 'ㄱ'이 연음되어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 ① 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 '색연필'은 [색년필]('ㄴ' 첨가) → [생년필](비음화)로 발음된다.
- ② 꽃잎을 갖고 놀던 어린 시절이 무척 그리웠다.
→ '꽃잎'은 [꼴넙](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 [꼴넙](비음화)로 발음된다.
- ③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으로 들어서는 모양이었다.
→ '한여름'은 [한너름]('ㄴ' 첨가)으로 발음된다.
- ⑤ 어머니는 아버지께 집안일을 좀 하라며 잔소리를 하셨다.
→ '집안일'은 [지반닐](연음, 'ㄴ' 첨가)로 발음된다.

02 반모음 첨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간 모음 'ㅣ' (ㅁ, ㅌ) 뒤에 오는 단모음에 반모음 'ㅣ' [j]가 덧붙는 경우이다. ③의 '개었다'는 어간의 모음이 'ㅐ'로 'ㅣ' (ㅁ, 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연따]와 같이 반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연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당신의 평생소원은 무엇이오[무어시오]?
→ '무엇이오'는 [무어시오/무어시오] 모두 표준 발음이다.
- ② 불이 되어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피연따].
→ '피었다'는 [피연따/피연따] 모두 표준 발음이다.
- ④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마구 뛰었다[뛰연따].
→ '뛰었다'는 [뛰연따/뛰연따] 모두 표준 발음이다.
- ⑤ 보아라[보아라]. 저 들판에서 익어 가는 벼들의 송고함을.
→ '보아라'는 반모음이 첨가되지 않은 [보아라]만 표준 발음이다. 반모음이 첨가된 [보와라]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03 <보기>의 '박하사탕[바카사탕]'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 중,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④의 '굳히며' 역시 [구티며](거센소리되기) → [구치며](구개음화)와 같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 ① 전철에 사람이 많아서 갑갑하다.
→ '많아서'는 [마나서]와 같이 'ㅎ' 탈락이 나타난다.

- ② 형제는 수확한 곡물을 공평하게 나누었다.
→ '곡물'은 파열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 ③ 외비우스의 떠는 안과 걸이 구별되지 않는다.
→ '걸이'는 [거티]로 연음되었다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거치]로 발음된다.
- ⑤ 그분은 전쟁 중에 유일한 피붙이인 형님과 헤어졌다.
→ '피붙이'는 [피부티]로 연음되었다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피부치]로 발음된다.

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26~29쪽

01 ⑥, ⑧	02 ②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②
08 ③	09 ④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④	20 ④	21 ①
22 ⑤	23 ③	24 ③, ⑥	25 ③	26 ①	27 ②	

01 음운의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으로,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음운의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하므로, 표기와 발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원래 없던 음운이 생겨나기도 한다./⑥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로 나뉜다.
→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가 있다. 음운 변동 현상 중, 두 음운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을 '첨가'라고 한다.
- ② 원래 있었던 음운이 없어지기도 한다.
→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은 '탈락'이다.
- ③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기도 한다.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은 '교체'이다.
- ④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축약'이다.
- ⑦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다.
→ 음운 변동의 개념에 해당한다.

02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뿐이다. 나머지 자음들이 음절의 끝에 올 때, 이 7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선지에 제시된 'ㅅ'과 'ㅎ'은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03 '밥[밥]'은 끝소리가 'ㅂ'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끝소리가 'ㄷ'이다.

오답 풀이

- ① 덧붙
→ '덧'은 [텅]으로, 끝소리 'ㅌ'이 'ㄷ'으로 발음된다.
- ③ 빗
→ '빗'은 [빔]으로, 끝소리 'ㅌ'이 'ㄷ'으로 발음된다.
- ④ 히읃
→ '히읃'은 [히읃]으로, 끝소리 'ㅎ'이 'ㄷ'으로 발음된다.
- ⑤ 갈다
→ '갈다'는 [갸따]로, 끝소리 'ㄷ'이 'ㄷ'으로 발음된다.

04 ‘웃 안’은 ‘웃’의 끝소리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그리고 이 ‘ㄷ’이 다시 뒤에 오는 모음 ‘ㅏ’에 연음되어 [오단]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벗이[버디]
→ ‘벗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에 따라 [버시]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꽃을[꼬술]
→ ‘꽃을’은 받침 ‘ㅌ’을 뒤에 오는 모음의 초성으로 연음하여 [꼬출]로 발음해야 한다.
- ③ 앓아[안짜]
→ ‘앓아’는 겹받침 ‘ㅈ’ 중 ‘ㅈ’을 뒤에 오는 모음의 초성으로 연음하여 [안자]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발 아래[바타래]
→ ‘발 아래’는 ‘발’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반]으로 발음하고, 다시 이 ‘ㄷ’을 뒤에 오는 모음 ‘ㅏ’에 연음하여 [바다래]로 발음해야 한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벗이나 꽃을’에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 앞 음절 끝의 자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음됩니다.

첫째,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를 만나면, 앞 음절의 끝소리에 있는 자음(받침)이 그대로 다음 음절(모음)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됩니다.

예 꽃을[꼬출], 부엌에[부어케], 읽은[이픈]

둘째,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앞 음절의 끝소리에 있는 자음(받침)이 대표음인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뀐 후, 그 대표음이 다음 음절(모음)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발음됩니다.

예 웃 안[울안] → 오단, 찾아미[점어미] → 저더미]

05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06 <보기>에 제시된 설명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 중, 받침 ‘ㄱ, ㄷ, ㅂ’에 대한 변동 현상이다. ②의 ‘담력’은 받침 ‘ㄹ, ㅇ’ 뒤에 오는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읍내
→ ‘읍내’는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읍내]로 발음된다.
- ③ 숙모
→ ‘숙모’는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송모]로 발음된다.
- ④ 걷는다
→ ‘걷는다’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건는다]로 발음된다.
- ⑤ 만며느리
→ ‘만며느리’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만며느리]로 발음된다.

07 ‘권력[퀄러]’은 앞 음운이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 뒤의 음운인 ‘ㄹ’과 같게 발음된다. 따라서 역행 동화(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두 음운이 같아진 완전 동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달님 → (가), (다)
→ ‘달님’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뒤 음운이 앞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순행 동화, 즉 (가)에 해당하며, 두 음운이 ‘ㄹ’로 같아지는 완전 동화, 즉 (다)에 해당한다.
- ③ 국내 → (나), (라)
→ ‘국내’는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이때, 앞 음운이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 즉 (나)에 해당하며, 두 음운이 같은 소리가 아닌 비슷한 소리로 바뀌므로 부분 동화, 즉 (라)에 해당한다.
- ④ 갈날 → (가), (다)
→ ‘갈날’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뒤 음운이 앞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순행 동화, 즉 (가)에 해당하며, 두 음운이 ‘ㄹ’로 같아지는 완전 동화, 즉 (다)에 해당한다.
- ⑤ 밥물 → (나), (다)
→ ‘밥물’은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이때, 앞 음운이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 즉 (나)에 해당하며, 두 음운이 ‘ㅁ’으로 같아지는 완전 동화, 즉 (다)에 해당한다.

08 제시된 내용은 받침 ‘ㄹ’ 뒤에 오는 유음 ‘ㄹ’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발음되는 ‘ㄹ’의 비음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③의 ‘염려[염:녀]’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막론
→ 막론[망논]: ㄱ+ㄹ → [ㅇ]+[ㄴ]으로, 받침 ‘ㄱ’의 뒤에 오는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발음되며, 이때 바뀐 비음 [ㄴ] 때문에 앞에 오는 ‘ㄱ’이 다시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② 종로
→ 종로[종노]: ㅇ+ㄹ → [ㅇ]+[ㄴ]으로, 받침 ‘ㅇ’ 뒤에 오는 ‘ㄹ’이 비음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 ④ 답는
→ 답는[단는]: ㄷ+ㄴ → [ㄴ]+[ㄴ]으로,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 ⑤ 대통령
→ 대통령[대통령]: ㅇ+ㄹ → [ㅇ]+[ㄴ]으로, 받침 ‘ㅇ’ 뒤에 오는 ‘ㄹ’이 비음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09 ‘칼국수[칼국쑤]’는 ‘국수’의 받침 ‘ㄱ’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나머지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실논
→ ‘실논’은 비음 ‘ㄴ’이 유음 ‘ㄹ’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에 따라 [실:론]으로 발음된다.
- ② 난로
→ ‘난로’는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에 따라 [날:로]로 발음된다.

③ 만리포

→ '만리포'는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에 따라 [말리포]로 발음된다.

⑤ 한라산

→ '한라산'은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에 따라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10 구개음화란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의 '꽃이'는 앞 음절의 끝소리에 있는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소리나는 '연음'에 따라 [꼬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굳이

→ '굳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교체되어 [구지]로 발음된다.

③ 피붙이

→ '피붙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교체되어 [피부치]로 발음된다.

④ 꽃밭이

→ '꽃밭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에 따라 [꼴바치]로 발음된다. 그리고 이 받침 'ㄷ' 뒤에 'ㅂ'이 이어지므로 된소리 되기에 따라 'ㅃ'이 'ㅍ'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꼴빠치]로 발음된다.

⑤ 해돋이

→ '해돋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교체되어 [해도지]로 발음된다.

⑥ 달하다

→ '달하다'는 뒤에 'ㅎ'이 온 경우이므로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다티다]로 발음되고, 이것이 다시 구개음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치다]로 발음된다.

11 <보기>의 내용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②의 '홀이불'은 '홀-'과, 형식 형태소가 아닌 명사 '이불'이 결합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적용되어 [혼니불]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비음화가 되어 [혼니불]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아궁이에는 큰 숯이 걸려 있었다.

→ '숯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교체되어 [소치]로 발음된다.

③ 겨울에는 팔이 들어간 간식을 많이 먹는다.

→ '팔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교체되어 [파치]로 발음된다.

④ 책 읽기에 재미를 붙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 '붙여'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ㅌ: ㅣ[ㅣ+ㅣ])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교체되어 [부쳐]로 발음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하므로, '붙여'는 최종적으로 [부쳐]로 발음된다.

⑤ 한옥에는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을 함께 달았다.

→ '여닫이문'은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교체되어 [여다지문]으로 발음된다.

문법 짚고 가기

'ㄷ' 발음과 관련한 표준 발음법 조항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 조항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저, 찌, 처'와 같이 'ㄷ, ㅈ, ㅊ' 뒤에 오는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 'ㅣ'로 발음한다. '묻혀, 붙여, 잊혀' 등과 같이 표기상 '저, 찌, 처'가 아니라도 발음상 '저, 찌, 처'와 동일한 경우의 'ㄷ'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ㄷ, ㅈ, ㅊ' 뒤에 'ㄷ'가 발음되지 못하는 것은 'ㄷ, ㅈ, ㅊ'과 같은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ㅣ'가 연이어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제약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 저, 초, 주', '짜, 찌, 쪼, 쪼', '차, 처, 초, 추' 등은 현대 국어에 와서 모두 '자, 저, 조, 주', '짜, 찌, 쪼, 쪼', '차, 처, 초, 추' 등으로 바뀌었으며,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표기도 발음대로 바뀌었다. 다만 '자-+-어, 짜-+-어, 차-+-어' 등과 같은 용언의 활용형이 줄어들 경우에는 실제 발음과 달리 '저, 찌, 처'와 같이 표기하므로, 이런 경우의 'ㄷ'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2 <보기>의 밑줄 친 단어 '학교[학교]'는 'ㄱ' 받침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④의 문장은 [나는 모름지기 하거베 힘써야 한다]와 같이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

→ '갈 데가'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ㄷ'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갈떼가]로 발음된다.

②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 '입고'는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입꼬]로 발음된다.

③ 무엇을 먼저 먹을까 갈등이 되네.

→ '갈등'은 한자어 'ㄹ' 받침 뒤에 'ㄷ'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갈똥]으로 발음된다.

⑤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 '신고'는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가 온 경우, '갑자기'는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ㄷ'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각각 [산꼬], [갑짜기]로 발음된다.

13 ㉠ '안다[안: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며, <보기 1>의 (나)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앓고[안꼬]', '닭고[닭:꼬]' 역시 <보기 1>의 (나)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의 '안다[안:다]'는 ㉠과 표기는 같지만 기본형이 '알다'로 ㉠과 다르다. 여기서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며, ㉡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 ㉡의 발음은 [안:파]로 표기인 '안다'와 일치하지 않으며, ㉠의 발음은 [안:다]로 표기인 '안다'와 일치한다.

② ㉠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며, <보기 1>의 (가)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은 [안:파]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보기 1>의 (나) 유형에 해당한다.

④ ㉡의 용언의 어간은 '알-'이므로, ㉡은 <보기 1>의 (라)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의 용언의 어간은 '알다'의 '알-'이다. 그러나 ㉡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기 1>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과 같은 유형의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예로는 ‘건더기’, ‘판단’을 들 수 있다.
→ ㉠은 물론, ‘건더기[건더기]’, ‘판단[판단]’ 모두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뉘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뉘개]로 발음되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따라 [뉘개]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음운 현상이 모두 적용된다.

오답 풀이

- ① 책상
→ ‘책상’은 [책쌍]으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벽보
→ ‘벽보’는 [벽뽀]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엽눈
→ ‘엽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엽눈]으로 발음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엽눈]으로 발음된다.
⑤ 공권력
→ ‘공권력’은 된소리되기와 ‘ㄹ’의 비음화가 나타나 [공뀐녁]으로 발음된다.

15 ‘단란’은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로,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달란]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 [국뽽], 된소리되기
→ 받침 ‘ㄱ’ 뒤에 ‘ㅂ’이 오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된다.
② ㉠: [잠느], 비음화
→ 받침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발음된다.
③ ㉠: [가치], 구개음화
→ 앞 음절의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④ ㉠: [실래], 유음화
→ 뒤 음절의 ‘ㄴ’이 앞 음절의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16 ‘백마강[백마강]’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지만, ‘줄넘기[줄림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 ‘권리[궐리]’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유음화: 대관령, 불놀이, 산림
→ ‘대관령[대궐령]’, ‘산림[살림]’, ‘불놀이[불로리]’는 모두 유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③ 구개음화: 만이, 곤이, 쇠불이
→ ‘만이[마지]’, ‘곤이[고지]’, ‘쇠불이[쇠부치]’는 모두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④ 된소리되기: 막국수, 몹시, 넙죽
→ ‘막국수[막국쑤]’, ‘몹시[몹씨]’, ‘넙죽[넙쑤]’은 모두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날, 낮, 낮, 낮
→ ‘날[날]’, ‘낮[날]’, ‘낮[날]’, ‘낮[날]’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소리가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17 자음군 단순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고 나머지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났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라 [날따]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없다
→ ‘없다’는 ‘ㅌ’이 탈락되어 [업따]로 발음된다.
③ 읽다
→ ‘읽다’는 ‘ㄹ’이 탈락되어 [익따]로 발음된다.
④ 할다
→ ‘할다’는 ‘ㄷ’이 탈락되어 [할따]로 발음된다.
⑤ 앓다
→ ‘앓다’는 ‘ㅈ’이 탈락되어 [안따]로 발음된다.

18 ‘싫다(서럽다)’는 [설:파]로, 겹받침이 [ㄹ]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① [밥:파], ② [읍파], ④ [넙똥글다], ⑤ [넙쑤카다]와 같이 겹받침이 [ㅂ]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밟다 / ④ 넙똥글다 / ⑤ 넙쑤하다
→ ‘ㅃ’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어에 따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ㅃ’은 원칙적으로는 ‘ㅂ’을 탈락시켜 [ㄹ]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밟-’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ㅂ]으로 발음되고, ‘넙-’이 포함된 복합어 중 ‘넙쑤하다’와 ‘넙똥글다’, ‘넙적하다’ 등에서도 ‘ㄹ’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한다.
② 읊다
→ ‘읊다’는 ‘ㄹ’이 탈락한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발음된다.

문법 짚고 가기 겹받침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ㄹ, ㄷ, ㅌ, ㅍ]으로 발음한다.

넋[넋]	넋과[넋과]	앓다[안따]
여덟[여덟]	넋대[넋대]	외곬[외골]
할다[할따]	값[값]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1) 밟다[밥:파]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 → 밤:는]
밟게[밥:게] 밟고[밥:꼬]
(2) 넙-죽하다[넙쑤카다] 넙-똥글다[넙똥글다]

겹받침은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은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ㄱ’은 [ㄱ], ‘ㄴ’은 [ㄴ], ‘ㄷ’, ‘ㄹ’, ‘ㅌ’, ‘ㅍ’은 [ㄹ], ‘ㅃ’은 [ㅂ]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이 조항에 제시된 겹받침 중 ‘ㅃ’을 제외한 나머지 겹받침은 지역, 계층, 단어 등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없이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다만 ‘ㅃ’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단어에 따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ㅃ’은 원칙적으로는 ‘ㅂ’을 탈락시켜 [ㄹ]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밟-’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ㅂ]으로 발음되고, ‘넙-’이 포함된 복합어 중 ‘넙쑤하다’와 ‘넙똥글다’, ‘넙적하다’ 등에서도 ‘ㄹ’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한다. 동일한 겹받침 ‘ㅃ’의 탈락 자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어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19 ‘모아라’는 ‘모으- + -아라 → 모아라’와 같이 ‘ㄹ’이 탈락된 것으로, 이러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문법
→ ‘문법’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문뽕]으로 발음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② 만형
→ ‘만형’은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마뎡]으로 발음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되어
→ ‘되어’는 반모음이 첨가되어 [되어] 외에 [되여]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⑤ 싫어도
→ ‘싫어도’는 ‘ㅎ’이 탈락되어 [시러도]로 발음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20 ‘열- + -니 → 여니’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몇몇 어미와 결합하면서 탈락하는 현상인 ‘ㄹ’ 탈락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영식: ‘훔[흙], ‘값이[가비]’와 같이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 ‘훔’은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나 [흙]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값이’는 겹받침 중 하나인 ‘ㅅ’이 뒤에 오는 모음 ‘ㅣ’에 연음되고, 다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갑씨]로 발음된다. 따라서 ‘값이’는 탈락되는 음운이 없으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석우: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ㅎ’이 ‘ㄱ, ㄷ, ㅂ, ㅈ’으로 시작하는 자음을 만나 탈락하는 현상이야.
→ ‘ㅎ’ 탈락은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 ③ 수현: ‘ㅎ’ 탈락의 예로는 ‘종교[조:코], 농다[노타], 쌓지[싸치] 등이 있어.
→ 제시된 예시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ㅎ’ 탈락의 예로는 ‘좋아[조:아], ‘놓아[노아], ‘날으니[나으니] 등이 있다.
- ⑤ 상현: ‘아프다, ‘아파서, ‘아팠다’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거야.
→ ‘아프다’는 단어의 기본형이므로, ‘ㄹ’이 탈락하지 않았다. ‘아파서(아프- + -아서)’와 ‘아팠다(아프- + -았- + -다)’는 ‘ㄹ’이 탈락한 것이다.

21 ‘너네’는 ‘널다’의 ‘널-’과 감탄형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여 ‘너네’가 된 것이다(‘ㄹ’ 탈락).

오답 풀이

- ② 약이 써서 삼킬 수가 없었다.
→ ‘ㄹ’ 탈락(쓰- + -어서 → 써서)
- ③ 1반부터 순서대로 버스에 타라.
→ ‘ㄹ’ 탈락(타- + -아라 → 타라)
- ④ 나는 어제 꿈도 꾸지 않고 폭 잤다.
→ ‘ㄹ’ 탈락(자- + -았- + -다 → 잤다)
- ⑤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곧바로 가면 그 학교가 나온다.
→ ‘ㄹ’ 탈락(건너- + -어서 → 건너서)

22 ‘월요일’은 [위료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이랑’은 [반니랑](음절의 끝소리 규칙, ‘ㄹ’ 첨가) → [반니랑](비음화)과 같이 교체 현상과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첨가: 급행열차, 축약: 깨끗하다
→ ‘급행열차그랭열차’는 ‘급행’에서 ‘ㄹ’과 ‘ㅎ’이 합쳐져 ‘ㅍ’으로 발음되는 축약 현상과, ‘열’에 ‘ㄹ’이 첨가되는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깨끗하다’는 [깨끗하다](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깨끗타다](거센소리되기(축약))로 발음되므로, 교체와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 ② 첨가: 한 일, 축약: 못하다
→ ‘한 일’은 [한닐]과 같이 ‘ㄹ’이 첨가되는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못하다’는 [몰:하다](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모:타다](거센소리되기(축약))로 발음되므로, 교체와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 ③ 첨가: 식용유, 축약: 잡하다
→ ‘식용유’는 [시공유]와 같이 연음과 ‘ㄹ’ 첨가가 나타난다. ‘잡하다(자피다)’는 ‘ㄹ’과 ‘ㅎ’이 합쳐져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즉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 ④ 첨가: 가랑잎, 축약: 꽃하다
→ ‘가랑잎’은 [가랑닙]과 같이 ‘ㄹ’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나타난다. ‘꽃하다[꼬치다]’는 ‘ㄷ’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즉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3 ‘가- + -았- + -다 → 갔다[간따]’는 두 모음이 이어질 때 모음 ‘ㅏ’가 탈락한 경우이다.

오답 풀이

- ① ‘ㄹ’ 첨가: 신- + 여성 → 신여성[신녀성]
→ ‘신여성’은 파생어로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반모음 ‘ㅣ[ɥ]’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ㄹ’이 덧붙여 발음되는 ‘ㄹ’ 첨가가 일어난다.
- ② ‘ㄹ’ 탈락: 동글- + -ㄹ → 동근[동근]
→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인 ‘동글-’은 ‘-ㄹ’이라는 어미와 만나면 ‘ㄹ’이 탈락한다.
- ④ ‘ㅎ’ 탈락: 쌓- + -이- + -다 → 쌓이다[싸이다]
→ ‘쌓-’과 같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은 탈락한다.
- ⑤ 거센소리되기: 업- + -히- + -다 → 업히다[어퍼다]
→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4 ‘술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ㄹ’ 첨가가 적용되어 [술닙]으로 발음되는데 다시 유음화가 적용되어 [술립]으로 발음된다. ‘파서’는 ‘파- + -아서’에서 ‘ㄹ’ 탈락(동음 탈락), ‘노느라’는 ‘놀- + -느라’에서 ‘ㄹ’ 탈락, ‘갔는지’는 [간는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 다시 비음화가 적용되어 [간는지]로 발음된다. ‘모르겠다’는 [모르겐다]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 다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모르겐따]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와 ‘ㅎ’ 탈락이다.

25 어간의 모음 ‘ㅣ(ㅏ, ㅑ)’ 뒤에 오는 단모음에 반모음 ‘ㅣ[ɥ]’가 덧붙는 경우는 반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대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기어’는 [기어]와 [기여]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반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한 경우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그는 잠이 깨어[깨여] 눈을 떴다.
→ [깨어]가 표준 발음이다.

- ②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조:와].
→ [조:아]가 표준 발음이다.
- ④ 목이 부어[부워] 밥을 먹우멍으로 넘기지 못한다.
→ [부어]가 표준 발음이다.
- ⑤ 광주에[광주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 [광주에]가 표준 발음이다.

26 ‘앓히다[안치다]’는 ‘앓-’의 받침 중 ‘ㅈ’이 ‘-히-’의 ‘ㅎ’을 만나 ‘ㅊ’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즉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 달나라
→ ‘달나라’는 [달라라]로 발음되며 유음화, 즉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고파서
→ ‘고파서’는 ‘고프-+-아서 → 고파서’가 된 것으로, ‘-’ 탈락이 나타난다.
- ④ ㉢: 피어
→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모음 ‘[j]’가 첨가된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 ⑤ ㉣: 착하다
→ ‘착하다’는 [차카다]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 즉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7 ‘앞날’은 음절의 받침 ‘표’이 ‘ㅂ’으로 바뀌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ㅂ’이 다시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ㅃ’으로 바뀌어 발음된다(비음화).

오답 풀이

- ① ㉔: 굳히다 → [구티다](거센소리되기) → [구치다](구개음화)
→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고, 'ㅌ'이 다시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발음된다.
- ② ㉕: 잃는다 → [일는다](자음군 단순화) → [일른다](유음화)
→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받침 'ㅎ'이 탈락하여 받침 'ㄹ'로 발음되고, 다시 이 'ㄹ'과 만나 다음 음절의 초성 'ㄴ'이 유음 'ㄹ'로 발음된다.
- ③ ㉖: 옆집 → [엷집](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엷집](된소리되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ㅂ'으로 바뀌고, 다시 된소리되기 가 일어나 [엷집]으로 발음된다.
- ④ ㉗: 젖는다 → [젼는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젼는다](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ㅈ'이 'ㄷ'으로 발음되고, 이것이 다시 뒤에 오는 'ㄴ'과 만나면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비음화).

기출로 실력 완성하기

본문 30~37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①	10 ③	11 ①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④					

01 ‘떡’의 가운데소리 ‘ㄷ’가 첫소리 ‘ㄹ’의 오른쪽에, ‘꼭’의 가운데소리 ‘ㄴ’이 첫소리 ‘ㄹ’의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ㅁ’, ‘ㄴ’, ‘ㄱ’을 차례로 사용하면 ‘먹’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군.
→ ‘ㅁ’, ‘ㄴ’, ‘ㄱ’을 차례로 사용하면 ‘ㅁ’은 첫소리, ‘ㄴ’는 가운뎃소리, ‘ㄱ’은
끝소리가 되어 ‘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 ② ‘먹’의 가운데소리인 ‘ㄷ’ 대신 ‘ㄱ’을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가 되는데,
→ ‘막’의 가운데소리인 ‘ㄷ’을 ‘ㄱ’로 바꾸면 ‘목’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된다.
- ③ ‘목’ : ‘공’에서 보면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도 쓰일 수 있군.
→ ‘목’의 첫소리인 ‘ㄹ’이 ‘공’에서는 끝소리 ‘ㄹ’으로 쓰였고, ‘목’의 끝소리 ‘ㄱ’이 ‘공’에서는 첫소리 ‘ㄱ’으로 쓰였다. 따라서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목/먹/곰/검’처럼 음운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군.
→ ‘목/먹/곰/검’은 음운 ‘ㄱ, ㅁ, ㄴ, ㄴ’을 다르게 결합하여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들을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음운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보기>에 나타난 승리 조건 중 첫 번째는 전설 모음을, 두 번째는 평순 모음을, 세 번째는 고모음을 의미한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음은 ‘ㅣ’이다.

오답 풀이

- ① ㄱ
→ 'ㄱ'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전설 모음,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지만,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중모음이다.
- ② ㄲ
→ 'ㄲ'은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고모음이지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후설 모음,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 ④ ㅋ
→ 'ㅋ'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전설 모음,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고모음이지만,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 ⑤ ㅌ
→ 'ㅌ'은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지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후설 모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03 [A]에서 ‘쉬리-소리’, ‘마루-머루’, ‘구실-구슬’은 각각 최소 대립쌍이다. 이를 통해 음운 ‘ㄱ, ㄴ, ㄷ, ㄹ, ㅁ, ㄴ’를 추출할 수 있다. [B]의 단모음 체계에 따르면 ‘ㄱ’은 고모음, 전설 모음, 원순 모음이고, ‘ㄴ’은 중모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다. 또한 ‘ㄷ’은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며, ‘ㄹ’은 중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그리고 ‘ㅁ’은 고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ㄴ’은 고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추출된 6개의 모음을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3개의 고모음, 2개의 중모음, 1개의 저모음’을, 혀의 앞뒤에 따라 분류하면 ‘2개의 전설 모음, 4개의 후설 모음’을,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4개의 평순 모음, 2개의 원순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평순 모음’이라는 말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4 (3)에 제시된 음운 변동, 즉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는 ‘부억[부억]’, ‘웃[온]’, ‘빚[빔]’, ‘얹[압]’으로, 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로는 ‘ㄱ, ㄷ, ㅂ’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뱀’이 [박]으로, ‘밀’이 [밋]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이와 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간, 달, 섬, 창’이다. ‘부엌[부억]’은 음절의 끝소리가 ‘ㄱ’에서 ‘ㄱ’으로 바뀐다.
- ②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웃[울], 빗[빔]’의 경우는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이지만 끝소리가 바뀐다.
- ③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ㄹ’ 중 하나로 바뀐다.
→ ‘부엌[부억]’은 ‘ㄱ’, ‘웃[울], 빗[빔]’은 ‘ㄷ’, ‘앞[압]’은 ‘ㅂ’으로 바뀐다.
- ⑤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ㄴ, ㄹ, ㅅ, ㅇ’만 발음된다.
→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ㄴ, ㄹ, ㅅ, ㅇ’만 발음된다.

05 ‘활동 1’과 ‘활동 2’에 따르면 ‘국민’과 ‘신랑’은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데 ‘001000’으로 표시되며, ‘글눈’과 ‘명랑’은 순행 동화가 일어나는데 ‘000100’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00010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순행 동화이고 ‘00100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역행 동화임을 알 수 있다. ‘활동 자료’의 발음을 바탕으로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면 ‘잡념[잡념]’은 ‘00100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국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국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 ② ‘글눈’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 ‘글눈’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③ ‘명랑’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명랑’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 ④ ‘신랑’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 ‘신랑’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06 ㉠의 ‘깍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깍는]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깁는]이 된다. ㉡의 ‘흙만’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흑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흥만]이 된다.

오답 풀이

- ② ㉠: 끝물[곤물], ㉡: 앞자[안자]
→ ㉠의 ‘끝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물]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곤물]이 된다. ㉡의 ‘앞자’는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안자]가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안짜]가 된다.
- ③ ㉠: 듣는[든는], ㉡: 읊는[읍는]
→ ㉠의 ‘듣는’은 비음화에 따라 [든는]이 된다. ㉡의 ‘읊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읍는]이 되었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읍는]이 되고, 다시 비음화 규칙에 따라 [읍는]이 된다.
- ④ ㉠: 숯내[순내], ㉡: 달은[다른]
→ ㉠의 ‘숯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순내]가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순내]가 된다. ㉡의 ‘달은’은 ‘ㅎ’이 탈락되어 [달은]이 되었다가, 연음에 따라 [다른]이 된다.
- ⑤ ㉠: 앞마당[암마당], ㉡: 값이[갑시]
→ ㉠의 ‘앞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암마당]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암마당]이 된다. ㉡의 ‘값이’는 연음에 따라 [갑시]가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갑씨]가 된다.

07 ‘땀받이[땀바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땀받이[땀바지]’의 음운 변동이 ㉢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마천루[마철루]’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마천루[마철루]’는 앞말의 끝소리 ‘ㄴ’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② ‘목덜미[목덜미]’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목덜미[목덜미]’는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ㄷ’이 만나 뒤의 음운인 ‘ㄷ’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③ ‘박람회[방남회]’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박람회[방남회]’는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ㄱ’이 ‘ㅇ’으로, 뒤의 음운인 ‘ㄹ’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④ ‘쇠붙이[쇠부치]’는 ㉠이면서 ㉢에 해당한다.
→ ‘쇠붙이[쇠부치]’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08 셋째 문단에서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때 바뀌는 음운은 ‘ㄷ, ㅌ’에만 해당하므로, 구개음화는 모음의 소리는 그대로인 채 자음의 소리만 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 첫째 문단에서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음운의 동화로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인접한 두 음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다. 다섯째 문단에서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음운의 동화가 일어날 때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③ 구개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 둘째 문단에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ㅂ, ㄷ, ㄱ’이 ‘ㅂ, ㄴ’ 앞에서’ 바뀌는 현상이고,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바뀌는 현상이라 하였으므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구개음화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셋째 문단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 ‘ㄷ, ㅌ’이 인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자음 체계표를 보면 a는 파열음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 풀이

- ② a: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a는 파열음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이다.
- ③ b: 비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b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의 예이며, 조음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다.

④ b: 유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b는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다.

⑤ c: 구개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c는 끝소리 'ㄷ'이 접미사 'ㅣ' 앞에서 'ㅈ'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ㄷ'이 센입천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인 'ㅈ'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10 ㉔의 '굳히다'는 [구티다]와 같이 'ㄷ'이 'ㅎ'을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뒤, 다시 [구치다]로 구개음화되어 발음된 것이다. '단히다' 역시 [다티다](거센소리되기) → [다치다](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따라서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ㄷ'이 뒤에 오는 'ㅎ'을 만나 축약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을 보니, 'ㄷ'이나 'ㅌ'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ㅁ이[마치]'와 '같이[가치]'는 각각 끝소리 'ㄷ'과 'ㅌ'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ㄷ'이나 'ㅌ'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㉔을 보니, 'ㅌ'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발이[바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발을[바를]'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ㅌ'이 모음 'ㅣ'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㉔을 보니,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밀이[미치]'와 같이 'ㅌ' 뒤에 형식 형태소('이')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끝인사[고딘사]'와 같이 'ㅌ' 뒤에 실질 형태소('인사')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㉔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해돋이[해도지]'(해+돋-+-이)는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반면 '견디다[견디다]'의 '견디-'는 1개의 형태소이므로 'ㄷ'과 'ㅣ'가 만나고 있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 '늦게[늦께]'는 <보기>의 ㉔에서 받침 'ㅈ'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없다[언따]'는 <보기>의 ㉔에서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㉔: 옆집[엹집], ㉔: 있고[일꼬]

→ '있고[일꼬]'는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③ ㉔: 국수[국쑤], ㉔: 늑대[늑따]

→ '늑대[늑따]'는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④ ㉔: 묶어[무께], ㉔: 꺼안다[꺼안따]

→ '묶어[무께]'는 연음이 된 것으로 <보기>의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⑤ ㉔: 없다[언따], ㉔: 머금다[머금따]

→ '없다[언따]'는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12 '값'은 [갑], '넋'은 [넉]으로 발음되므로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자음 'ㅌ'이 탈락하여 앞에 있는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에 해당한다. '닭'은 [타], '삼'은 [삼:]으로,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앞에 있는 자음 'ㄹ'이 탈락하여 뒤에 있는 자음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13 ㉔의 '낱아'는 [나아]로 발음되지만 'ㅎ'이 발음상 탈락되는 현상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㉔의 '도나'는 어간 '돌-'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 앞에서 탈락된 것이다.

③ ㉔에서는 어간의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㉔의 '썰'는 어간 '쓰-'의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탈락된 것이다.

④ ㉔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음운이 연결될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 ㉔의 '가'는 어간 '가-'의 모음 'ㅏ'와 동일한 음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연결되어 하나가 탈락된 것이다.

⑤ ㉔~㉔을 보니,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의 탈락과 모음의 탈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㉔과 ㉔는 자음의 탈락, ㉔와 ㉔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이다.

14 A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이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하며, B는 음운의 수가 늘어난 경우이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C는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새로운 음운이 없는 경우이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하며, D는 음운의 수가 줄고 새로운 음운이 있는 경우이므로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이를 ㉔~㉔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㉔ '같이[가치]'는 구개음화가, ㉔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㉔ '집안일[지반닐]'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B에 해당한다. ㉔ '좋은[조:은]'은 'ㅎ' 탈락이, ㉔ '옳은[옴: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음운은 없다. 따라서 C에 해당한다. ㉔ '앓고[안꼬]'는 'ㅎ'과 'ㄱ'이 만나 새로운 음운인 'ㅋ'이 되는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D에 해당한다.

15 '웃 한 벌[오탄벌]'이 발음될 때에는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된 후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밤물[밤물]'이 발음될 때에는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밤물[밤물]'은 파열음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② '광한루[광할루]'가 발음될 때에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광한루[광할루]'는 비음인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줄아[조:아]'가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줄아[조:아]'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와 만나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색연필[생년필]'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색연필'은 '색'과 '연필'이라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자음 'ㄱ'으로 끝나는 말 뒤에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말(ㄱ → 반모음 'ㅣ' + ㅌ)이 결합하므로 'ㄴ'이 덧붙여 [색년필]로 발음된다. 그리고 다시 파열음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교체되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16 ‘물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물’ 뒤에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약’이 결합되어 ‘ㄴ’이 덧붙여(첨가) [물낙]으로 발음된다. 그런 다음 뒤에 오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물락]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ㄱ)은 첨가, (ㄴ)은 교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7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ㄱ’이 ‘ㅇ’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국(ㄱ)’, ‘궁(ㄱ)’이어서 변화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ㅅ’이 ‘ㅍ’으로 교체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상(ㄱ)’, ‘쌍(ㄱ)’이어서 변화가 없다.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ㄴ’이 첨가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일(ㄱ)’ → ‘닐(ㄱ)’로 달라졌다.
- ③ ‘의복함[의보함]’에서의 [함]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의복함[의보함]’에서의 [함]은 ‘ㄱ’과 ‘ㅎ’이 ‘ㄱ’으로 축약된 결과이지만, 음절 유형은 ‘함(ㄱ)’, ‘함(ㄱ)’이어서 변화가 없다.
- ⑤ ‘화살[화샐]’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 ‘화살[화샐]’에서의 [화]는 ‘활+살’의 과정에서 ‘ㄹ’이 탈락된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활(ㄱ)’ → ‘화(ㄱ)’로 달라졌다.

문법 짚고 가기 복합어의 형성과 ‘ㄹ’ 탈락

‘소나무(솔+나무), 마소(말+소)’ 등의 단어는 단어가 생성될 때 ‘ㄹ’ 탈락이 일어난 경우이다. 그러나 복합어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ㄹ’ 탈락은 ‘활시위(활+시위), ‘돌도끼(돌+도끼)’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칙화하기는 어렵다.

18 ㉠ ‘흙일’은 [흑일] → [흑닐] → [흑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 ‘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달른’은 [달른] → [달른]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야구’는 [발야구] → [발라구]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임을 알 수 있다. ‘첨가’는 ㉠과 ㉢에서만 일어날 뿐, ㉡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로 3회의 음운 변동이,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에서는 ‘ㄴ’ 첨가, 유음화로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교체’의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운의 개수 변화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ㄴ’ 첨가(첨가)가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에서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유음화(교체)가, ㉢은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2회로 같다.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 ㉠과 ㉢에서 첨가된 음운은 둘 다 ‘ㄴ’이다.

19 (가)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옴고’의 ‘옴-’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ㅁ’이 온 경우이므로 (나)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ㄹ’이 탈락된 [옴고]가 된다. 그리고 [옴고]에서 첫 음절의 종성은 거센소리 ‘ㄱ’이 온 경우이므로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ㄱ’이 ‘ㅂ’으로 교체된 [옴고]가 된다. 또한 음절의 종성과는 관련이 없으나 [옴고]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ㄱ’으로 교체된 [옴꼬]가 된다. 그러므로 ‘옴고’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해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꽃힌’은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ㄷ’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뫼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뫼이’는 연음으로 인해 [목씨]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목씨]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비웃[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비웃’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인 ‘ㅅ’이 온 경우에 해당한다. (가)에서 설명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마찰음 ‘ㅅ’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되어 [비웁]이 된 것으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옴고[안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옴고’는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ㄱ’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안꼬]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20 <보기>를 통해 볼 때, 순행적 유음화는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뒤의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이고, 역행적 유음화는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앞의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이며, ‘ㄹ’의 비음화는 역행적 유음화와 같이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있는 환경이지만 뒤의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란기[산란기]’는 역행적 유음화가, ‘표현력[표현력]’은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 ② ㉠: 줄넘기, ㉡: 입원료
→ ‘줄넘기[줄럼기]’는 순행적 유음화가, ‘입원료[이븜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③ ㉠: 결단력, ㉡: 생산량
→ ‘결단력[결탄력]’과 ‘생산량[생산량]’은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④ ㉠: 의견란, ㉡: 향신료
→ ‘의견란[의견란]’과 ‘향신료[향신료]’는 모두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대관령, ㉡: 물난리

→ '대관령[대궐령]'은 역행적 유음화가, '물난리[물랄리]'는 역행적 유음화와 순행적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문법 짚고 가기

'ㄹ'의 비음화

-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함
예 염려[염ㄴ려], 종로[종ㄴ로]
- 음절의 끝소리 'ㄱ, ㅈ'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ㄴ] 때문에, 'ㄱ, ㅈ'이 다시 [ㅇ, ㅁ]으로 발음됨
예 막론[막ㄴ논 → 망논], 협력[협ㄴ력 → 협넉]

21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앞 말의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를 연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안팎을'을 [안과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ㄱ'을 'ㄴ'으로 바꾼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찰흙'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찰ㅎ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겹받침의 앞 자음은 그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다. 따라서 '찰흙'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찰ㅎ기]로 발음해야 한다. [찰ㅎ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③ '넋'은 연음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넋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넋'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넋씨]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시'가 아닌 '씨'로 발음되는 것은 '넋'의 'ㄱ'의 영향으로 된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넋기]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④ '꿀'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꼬츄]는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꿀'은 연음하여 [꼬틀]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꿀'을 [꼬츄]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연음한 뒤에 구개음화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개음화는 'ㄴ' 나 반모음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꿀'과는 관련이 없다.
- ⑤ '숲'은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숲'은 연음하여 [수페]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숲'을 [수베]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연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숲'에는 관련이 없다.

22 ㉠의 '날날이'는 [날:나치](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구개음화(교체)) → [날:나치](비음화(교체))로 음운이 변동된다. ㉡의 '넋두리'는 [넋두리](자음군 단순화(탈락)) → [넋뚜리](된소리되기(교체))로 음운이 변동된다. 그리고 ㉢의 '입학식'은 [이팍씩](거센소리되기(축약), 된소리되기(교체))로 음운이 변동되며, ㉣의 '첫여름'은 [천녀름](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ㄴ' 첨가(첨가)) → [천녀름](비음화(교체))으로 음운이 변동된다. 따라서 ㉠에서

'ㄷ'이 'ㄴ'으로 발음될 때와 ㉢에서 'ㅌ'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2회로 같다.

오답 풀이

- ①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에서는 교체만 나타나고 ㉢에서는 교체와 첨가가 나타나므로,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나타나고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나타나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교체이다.
- ③ ㉠에서 발음된 'ㅌ'과 ㉢에서 발음된 'ㅍ'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 ㉠에서 발음된 'ㅌ'은 구개음화, 즉 교체에 의한 것이고, ㉢에서 발음된 'ㅍ'은 거센소리되기, 즉 축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음운이 축약된 것은 ㉢에만 해당된다.
- ⑤ ㉠에서 'ㄴ'이 'ㄱ'으로, ㉢에서 'ㅌ'이 'ㅍ'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 ㉠에서 'ㄴ'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ㄱ'으로 발음되며 이때 음운 변동의 횟수는 1회이다. ㉢에서 'ㅌ'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ㅍ'으로 발음되며 이때 음운 변동의 횟수는 1회이다. 따라서 이 둘의 음운 변동의 횟수는 1회로 같다.

23 ㉠은 첨가, ㉡은 교체, ㉢은 탈락, ㉣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구급약[구:급약]'은 'ㄴ'이 첨가된 후 [구:급약]이 되었다가 다시 파열음 'ㅂ'이 비음 'ㄴ'과 만나 비음 'ㅁ'으로 교체되어 [구:급낙]이 된 것이다. '물엿[물련]'은 'ㄴ'이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교체되었으며, '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설날[설궐], 한여름[한녀름]
→ '설날[설궐]'은 교체(유음화)만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여름[한녀름]'은 'ㄴ'이 첨가된다.
- ② ㉢: 놓아[노아], 없을[업쑈]
→ '놓아[노아]'는 'ㅎ'이 탈락되었지만, '없을[업쑈]'은 'ㅌ'이 'ㅍ'으로 교체만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 앓히다[안치다], 끓이다[꼬리다]
→ '앓히다[안치다]'는 'ㅌ'과 'ㅎ'이 합쳐져 'ㅊ'이 되었지만, '끓이다[꼬리다]'는 'ㅎ' 탈락만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 읊조리다[읍조리다], 꾀꾀하다[꼬꾸타다]
→ '읊조리다[읍조리다]'는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에 따라 [읍조리다]가 되었다가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체에 따라 [읍조리다]가 된다. 이것이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읍조리다]가 된다. '꾀꾀하다[꼬꾸타다]'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와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개념 07 품사

본문 40~41쪽

(개념 확인하기) 1 품사 2 기능 3 ○ 4 ○ 5 ×
6 × 7 가변어 8 관계언 9 명사 10 (1) 하루, 가, 정말 (2) 빠르게, 지나간다

학습 활동 ① 가변어 ② 체언 ③ 관계언 ④ 대명사
⑤ 부사 ⑥ 나 ⑦ 는 ⑧ 걸었다 ⑨ 홀로 ⑩ 아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③

01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이 중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은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하고,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단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 품사는 단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의 9개로 나눈다.
- ②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나누며,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누고,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눈다.
- ③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단어에는 체언이 있다.
→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있다.
- ④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눌 때,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단어를 수식언이라고 한다. 이 수식언을 다시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와 주로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하는 '부사'로 나눌 수 있다.

02 ㉠의 '매우, 무척, 정말'은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에 해당하며,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
→ '포도, 숟가락, 책상'은 모두 명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② ㉡
→ '은, 는, 이, 가, 을, 를'은 모두 조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④ ㉢
→ '날다, 기다, 서다, 앉다'는 모두 동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⑤ ㉣
→ '차갑다, 따뜻하다, 딱딱하다'는 모두 형용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개념 08 품사의 종류 ①: 체언

본문 42~43쪽

(개념 확인하기) 1 주어 2 조사 3 명사 4 ○ 5 ○
6 × 7 × 8 (1) 명사 (2) 수사 (3) 대명사 (4) 명사 9 하나, 둘, 삼
10 (1) 민아, 책 (2) 나 (3) 하나

학습 활동 ① 문제 ② 이곳 ③ 만, 하나 ④ 특정 업체의 상표
⑤ 매운맛(이 나는) 닭고기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① 03 ④

01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런데 ②의 문장 '저 신발은 어머니의 것이다.'에서 '저'는 뒤에 오는 '신발'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관형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
→ '기차'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그러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 ③ 책상 위에 공책 한 권이 놓여 있다.
→ '권'은 명사인데,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그러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 ④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결과이다.
→ '이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그러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 ⑤ 우리 반의 규칙은 첫째도 성실, 둘째도 성실이다.
→ '첫째'는 순서를 가리키는 수사이다. 그러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02 고유 명사는 특정 대상을 다른 개체들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인명이나 지명, 상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통 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한다. 이로 볼 때, ①의 '국가'는 보통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② 한강
→ '한강'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강 이름으로, 특정 대상에 붙인 것이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 ③ 부산
→ '부산'은 특정한 지역 이름이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 ④ 삼국지
→ '삼국지'는 중국의 위·오·촉나라에 관한 역사책의 이름이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 ⑤ 이순신
→ '이순신'은 조선의 위인이었던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03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와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저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당신
→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② 저이
→ '저이'는 '저 사람'을 조금 높여서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이다.
- ③ 소인
→ '소인(小人)'은 예전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1인칭 대명사이다.

5 여러분

→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들 때 그 사람들을 높여서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개념 09 품사의 종류 ②: 용언

본문 44~47쪽

(개념 확인하기) 1 동사, 형용사 2 타동사 3 보조 용언
4 × 5 ○ 6 × 7 성상 형용사 8 목적어 9 빨갳다, 상
남하다 10 (1) 본용언 + 본용언 (2) 본용언 + 본용언 (3) 본용언 + 보
조 용언 11 어간, 어미 12 선어말 어미, 전성 어미 13 불규
칙 활용 14 × 15 × 16 전성 어미 17 어간 18 (1)
'ㄷ' 불규칙 (2) '르' 불규칙 19 어간: 웃-, 어미: -었다 20 돕다,
났다, 고르다

학습 활동 ① 잊지(있다) ② 따뜻하게(따뜻하다) ③ ㉠, ㉡

④ ㉢, ㉣ ⑤ 구워서, 불규칙 활용 ⑥ 굽어서, 규칙 활용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④

01 '내일은 철수랑 학교에 같이 갈 거야.'의 '갈(가다)'은 사람이
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 오늘은 하늘이 정말 푸르구나!
→ '푸르구나(푸르다)'는 '하늘'이 밝고 선명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다.
- 그녀의 드레스가 정말 새하얗다.
→ '새하얗다'는 '드레스'가 매우 하얗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어제는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어.
→ '아파서(아프다)'는 생략된 주어인 '나'가 병이 나서 앓는 상태를 나타내
는 형용사이다.
- 서우가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 '씩씩하고(씩씩하다)'는 '서우'의 목소리가 굳세고 위엄스럽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2 자동사는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데, 그러한 단어는 '뛰다'이다. '뛰다'는 '철수가 뛰다.'처럼 움직임
이 그 주어인 '철수'에만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찾다
→ '찾다'는 '나는 서점을 찾는다.'처럼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
로 하는 타동사이다.
- 입다
→ '입다'는 '나는 옷을 입는다.'처럼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 부르다
→ '부르다'는 '엄마가 아이를 부르다.'처럼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5 생각하다

→ '생각하다'는 '그가 그녀를 생각한다.'처럼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03 '우리 일행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에서 '늦게'의 기본형
은 '늦다'로,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이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다.

오답 풀이

-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
→ '조는'의 기본형은 '졸다'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 부모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 '굳어'의 기본형은 '굳다'로,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
딱하여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 그는 고생을 많이 해서 또래보다 늙었다.
→ '늙었다'의 기본형은 '늙다'로,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다.'의 의미를 나
타내는 동사이다.
-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밝아'의 기본형은 '밝다'로,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의미
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문법 짚고 가기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임
예 먹는다(○) → 동사, 예쁘다(×) → 형용사
-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
임 예 먹는(○) → 동사, 예쁜는(×) → 형용사

04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모두를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활용은 어간에 어미가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 용언의 활용은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 '-기', '-게' 등의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준다.
→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이
다.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 '-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이다.
- '숫다, 숫아, 숫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
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 규칙 활용에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숫다, 숫아, 숫으니'는 전자에 해당한다.
-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불규칙한 것, 어미가 불규칙한 것, 어간과 어미
모두가 불규칙한 것이 있다.
→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
용,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다.

05 '푸다'는 어미 '-어'와 결합될 때 '퍼'의 형태로 활용하는데,
이때 어간의 'ㅍ'가 탈락한다. 이는 '푸고, 푸니'와 같은 활용형과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
당한다.

오답 풀이

- ② 곱다 - 고와 - 불규칙
→ '보'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 ③ 같다 - 같아 - 규칙
→ '같다'는 '같고, 같아, 같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 ④ 흐르다 - 흘러 - 불규칙
→ '흐르다'는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르'로 변하는 불규칙 활용이다.
- ⑤ 차분하다 - 차분하여 - 불규칙
→ '차분하다'는 어간의 끝음절 '하' 뒤에 오는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06 '그들은 땅에 금덩이를 묻다.'에서 '묻다'는 '묻고, 묻지, 묻어, 묻으니' 등으로 규칙 활용을 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에서 '묻다'는 '묻고, 묻지, 묻어, 묻으니'로 활용하는데,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동생의 병이 낫다. / 동생이 형보다 낫다.
→ '동생의 병이 낫다.'의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동생이 형보다 낫다.'의 '낫다'는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의 뜻으로 형용사이다. 두 문장의 '낫다'는 모두 '낫고, 낫지, 나아, 나으니' 등으로 활용하는데, 이때 어간의 끝소리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천장에 바른 벽지가 울다. / 아기가 잠에서 깨어 울다.
→ '천장에 바른 벽지가 울다.'의 '울다'는 '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우글해지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 울다.'의 '울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두 문장의 '울다'는 모두 '울고, 울지, 울어, 우니' 등으로 활용하는데, 이때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것은 음절의 끝 'ㄹ'이 있는 용언에 예외 없이 나타나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③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타다. /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타다.'의 '타다'는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의 '타다'는 '탈것 등에 몸을 엮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두 문장의 '타다'는 모두 '타고, 타지, 타, 타니' 등으로 활용하는데, 이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른다.
→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의 '이르다'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의 뜻으로 형용사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르다.'의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의 뜻으로 동사이다. 두 문장의 '이르다'는 모두 '이르고, 이르지, 일러, 이르니' 등으로 활용하는데, 어간의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헛갈리는 문법 Q&A

Q ②의 '울다'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요?

A '울다'는 '울고, 울지, 울어, 우니'와 같이 규칙적이지 않게 활용하므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규칙 활용에 포함합니다. '울다, 살다, 같다, 날다, 말다, 들다' 등과 같이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에 'ㄹ'이 있는 경우 'ㄴ'('살다'를 예로 들 때: 사는), 'ㅂ'('잡니다), 'ㅅ'('사세)으로 시작하는 어미, '-오'(사오)와 같은 어미와 결합할 때 어김없이 어간의 'ㄹ'이 탈락합니다. 즉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념 10 품사의 종류 ③: 수식언

본문 48~49쪽

(개념 확인하기) 1 수식언 2 부사 3 체언 4 용언 5 ○
6 ○ 7 × 8 부정 부사 9 양태 부사 10 (1) 부사 (2) 관형사
(3) 부사 (4) 관형사

학습 활동 ① 수사 ② (수) 관형사 ③ 조사 ④ 수사 ⑤ 조사
⑥ (수) 관형사 ⑦ 도착했다 ⑧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⑨ 빨리 ⑩ 과연 ⑪ 문장 전체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⑤

01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의 소원은 첫째, 대학 합격이고, 둘째, 독립이다.'의 '첫째'는 다른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형사가 아니다. 이 문장의 '첫째'는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를 뜻하는 수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네가 말한 색깔이 저런 색깔이니?
→ '저런'은 뒤에 있는 체언 '색깔'을 꾸며 주고 있는 관형사이다.
- ② 나는 그 요리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 '온갖'은 뒤에 있는 체언 '정성'을 꾸며 주고 있는 관형사이다.
- ③ 이번 엑스포는 여러 나라에서 참가했다.
→ '여러'는 뒤에 있는 체언 '나라'를 꾸며 주고 있는 관형사이다.
- ④ 그 그림은 대한민국의 화가가 그린 것이다.
→ '그'는 뒤에 있는 체언 '그림'을 꾸며 주고 있는 관형사이다.

문법 짚고 가기 '첫째'의 품사

- 수사인 경우: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라는 뜻으로,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조사가 붙음
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관형사인 경우: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의'라는 뜻으로, 뒤에 명사와 같은 체언이 올
예 우리 동네 목욕탕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쉰다.
- 명사인 경우
① (주로 '첫째로' 꼴로 쓰여)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라는 뜻을 지님
예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한다.
②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 제일 순위인 사람, 즉 맏이'라는 뜻을 지님
예 김 선생네는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다.

02 <보기>는 성분 부사이면서 성상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지 난달에 심은 화초가 무럭무럭 자란다.'의 '무럭무럭'은 '자란다'를 수식하고 있으며 그것의 상태를 한정하여 꾸미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자 성상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지금은 밖에 비가 안 와.
→ '안'은 뒤에 있는 '와'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그러나 성상 부사가 아니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이다.
- ② 학교에 간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
→ '그리고'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 ③ 설마 그걸 전부 먹겠다는 건 아니지?
→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며,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다.
- ④ 주문하신 물건을 그리 보내겠습니다.
→ '그리'는 뒤에 있는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그러나 성상 부사가 아니라 처소를 가리켜 한정하는 지시 부사이다.

개념 품사의 종류 ④: 관계언, 독립언 본문 50~51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 4 × 5 격 조사
6 접속 조사 7 독립성 8 보조사 9 (1) ㉠ (2) ㉡ (3) ㉢
10 와, 이런, 아이고

학습 활동 ① 을 ② 와 ③ 은, 는 ④ 예뻐, 암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⑤ 03 ③

01 '랑'은 '장미'와 '튤립'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고, '이'는 앞말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해 주는 격 조사이며, '도'는 놀라움이나 감탄의 감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이다.

02 ㉠에는 '가'라는 주격 조사, ㉡에는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 ㉢에는 '의'라는 관형격 조사, ㉣에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 '열심히'는 부사로, 격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 그가
→ '가'는 앞말인 '그'를 주어로 만들어 주는 주격 조사이다.
- ② ㉡ 방에서
→ '에서'는 앞말인 '방'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 ㉢ 형의
→ '의'는 앞말인 '형'을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관형격 조사이다.
- ④ ㉣ 책을
→ '을'은 앞말인 '책'을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목적격 조사이다.

03 '저 바다는 정말 푸르구나!'에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저'는 관형사, '바다'는 명사, '는'은 조사이고, '정말'은 부사, '푸르구나'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 '아'는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내는 소리로, 감탄사이다.
- ② 예끼, 고안 놈 같으니라고!
→ '예끼'는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로, 감탄사이다.
- ④ 여보, 딸 생일이니 일찍 오세요.
→ '여보'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감탄사이다.

- ⑤ 세상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는 말로, 감탄사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선지 ⑤에서의 '어디'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감탄사인가요?

A '어디'는 '어디 가 볼 데가 있다.'에서와 같이 어느 곳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대명사이지만, 감탄사로도 쓰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와 같이 버럭거나 다짐할 때, 또는 되물어 강조할 때나 '어디, 네가 이번 시험에서 일 등을 한 학생이냐?'와 같이 남의 주의를 끌 때의 '어디'는 감탄사입니다. 또한 '그런다고 어디 가망이 있는 일인가.'와 같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이는 '어디' 역시 감탄사입니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52~53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③ 07 ④
08 ⑤ 09 ①

01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관계언은 문장에서 여러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언은 품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할 때 '조사'에 해당하는 말들이다. '감탄사'는 기능에 따른 품사의 분류에서 '독립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뉜다.
→ 품사는 단어의 형태가 문장에서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단어인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인 가변어로 나뉜다.
- ② 체언을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뉜다.
→ 체언은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 중 하나인데, 이를 다시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뉜다.
- ③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관형사와 부사는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 수식언으로 묶을 수 있다.
-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다.
→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는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또한 서술격 조사 '이다'도 '이고, 이니'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⑥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은 그 의미를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의미에 따라 다시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 ⑦ 품사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 품사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 주는 수식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관계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02 '수도, 학자'는 어떤 속성을 지닌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이고, '한강, 정약옹'은 특정 대상을 다른 개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고유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다.
→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부류를 체언이라고 하는데,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 ②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결합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 <보기>의 단어는 모두 명사이므로 체언에 해당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조사와 결합하며,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③ '것'과 '뿐'은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다.
→ '것'과 '뿐'은 의존 명사로, '납은 것, 마실 것, 먹을 것', '들었을 뿐, 구경할 뿐'처럼 앞에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
- ⑤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 단어를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기>의 단어는 모두 체언(명사)에 해당한다.
- ⑥ 의미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때,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한다.
→ <보기>의 단어는 의미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때, 모두 명사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03 '그 돌을 장정 세 사람이 옮기는 데 실패했다.'에는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장에 쓰인 '세'는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일에 이를 더하면 삼이다.
→ '일, 이, 삼'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 ② 학생 둘이 나란히 걸어간다.
→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 ③ 일을 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 ④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대여섯이 모였다.
→ '대여섯'은 다섯이나 여섯쯤 되는 수를 의미하는 말로,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 ⑥ 우리에게 제일(第一)은 진리이고, 제이(第二)는 정의이다.
→ '제일(第一)', '제이(第二)'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 ⑦ 넓은 운동장에서 농구 연습을 하는 학생이 한둘 있었다.
→ '한둘'은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의미하는 말로,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04 ㉠ '아무'는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있으므로 부정칭 대명사이고, ㉡ '자이'는 '저 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는 3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또 ㉢ '누구'는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고 사용한 것이므로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하며, ㉣ '자기'는 앞에 나온 대명사 '그'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재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05 동사에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자동사와,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치는 타동사가 있다. 그런데 ㉠의 동사 '먹는다'는 움직임이 목적어인 '사료를'에 미치고 있으므로 타동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의 '말랑하다'는 '크다, 높다, 빠르다' 등과 같은 성상 형용사이다.
→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지시성이 있는 '지시 형용사'로 나눌 수 있는데, '말랑하다'는 '아들아들하게 보드랍고 무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므로 성상 형용사이다.

- ③ ㉠의 '먹는다'는 주어 '강아지'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 '먹는다(먹다)'는 주어인 '강아지'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④ ㉡의 '말랑하다'는 주어 '강아지의 발바닥'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말랑하다'는 주어인 '강아지의 발바닥'의 상태가 아들아들하게 보드랍고 무름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의 '먹는다'와 ㉡의 '말랑하다'는 각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 '먹는다'와 '말랑하다'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말한다.
- ⑥ ㉠의 '먹는다'와 ㉡의 '말랑하다'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먹는다'와 '말랑하다'는 용언인데,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한다.

06 '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어간의 'ㅅ'이 탈락하여 '지어서, 지으니'와 같이 활용을 한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이를 일정한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같다 → 같고, 같아서, 같으니...
→ '같다'는 '같고, 같아서, 같으니'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벗다 → 벗고, 벗어서, 벗으니...
→ '벗다'는 '벗고, 벗어서, 벗으니'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뵈다 → 뵈고, 뵈아서, 뵈으니...
→ '뵈다'는 '뵈고, 뵈아서, 뵈으니'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⑤ 읽다 → 읽고, 읽어서, 읽으니...
→ '읽다'는 '읽고, 읽어서, 읽으니'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07 '아, 옛 친구와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에는 독립언인 감탄사 '아', 수식언인 관형사 '옛'과 부사 '자꾸', 관계언인 조사 '와', '의', '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한 사람밖에 오지 않았네.
→ 수식언인 관형사 '한'과 관계언인 조사 '밖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 독립언인 감탄사 '그래'와 관계언인 조사 '부터', '가', '이야(이다)'는 포함되어 있으나, 수식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③ 설날에 새 옷을 선물 받았어.
→ 관계언인 조사 '에', '을'과 수식언인 관형사 '새'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이번 방학에는 꼭 국어 문법을 공부해야지.
→ 관계언인 조사 '에는', '을'과 수식언인 부사 '꼭'은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08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⑤의 문장에서 수식언은 부사 '너무'와 '자주'가 쓰였고,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올'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해', 즉 '올해'라는 뜻을 지닌 명사로 '여름'과 합성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수식언은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 ②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 수식언은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말한다.
- ③ 문장 부사에는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가 있다.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에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앞의 체언이나 문장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과 이어 주는 접속 부사가 있다.
- ④ 문장 부사는 성분 부사와 달리 문장 안에서 여러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성분을 꾸며 주는데, 문장 부사는 문장 속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 ⑤ '이, 그, 저'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지시 관형사에 해당한다.
→ 관형사의 종류에는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가 있는데, '이, 그, 저'와 같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를 지시 관형사라고 한다.
- ⑦ '한 권은 새 책이다.'에서 '한'은 수 관형사, '새'는 성상 관형사에 해당한다.
→ '한'과 같이 수량이나 순서 등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를 수 관형사라고 하고, '새'와 같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를 성상 관형사라고 한다.

09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품사의 통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이다. '나는 소설을 정말 좋아해.'에서 '정말'은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내가 지금 한 말은 정말이야.'에서 '정말'은 명사로, 품사의 통용을 보여 주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그예겐 오직 그녀뿐이다. / 나는 오직 성공을 위해 달린다.
→ 두 문장에서 '오직'은 모두 부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햇살이 밝게 비추었다. / 새로 설치한 조명이 아주 밝다.
→ 두 문장에서 '밝다(밝게)'는 모두 불빛 따위가 환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연필 다섯 자루만 빌려줘. / 미진이가 사과를 다섯 개나 먹었다.
→ 두 문장에서 '다섯'은 모두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거야. / 내 숨소리가 들릴 만큼 도서관이 조용했다.
→ 두 문장에서 '만큼'은 모두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법 짚고 가기

품사의 통용의 예

- 다섯
 - 다섯 사람이 모두 모였다. → 관형사
 - 오늘은 무려 다섯이나 모였다. → 수사
- 만큼
 - 집이 대궐만큼 크다. → 조사
 -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의존 명사
- 오늘
 -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사
 - 우리는 이곳에 오늘 도착했다. → 부사
- 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대명사
 - 이 음식이 가장 맛있을 것 같다. → 관형사

개념 12 단어의 형성 ①: 단어와 형태소 본문 54~55쪽

(개념 확인하기) 1 형태소 2 자립, 분리 3 조사 4 ×

5 ○ 6 ○ 7 의존, 형식 8 단어 9 의존, 실질 10 (1)

나무, 예, 새임, 이 돌았다 (2) 나무, 예, 새, 잎, 이, 돌-, -았-, -다

학습 활동 ① 나무 ② 는 ③ 덕 ④ 을 ⑤ 지니-

⑥ -었- ⑦ -다 ⑧ 형식 형태소 ⑨ 실질 형태소 ⑩ 형식

형태소 ⑪ 자립 형태소 ⑫ 의존 형태소 ⑬ 의존 형태소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③ 03 (1) 하늘, 구름, 잔뜩 (2) 예,

이, 끼-, -었-, -다 (3) 하늘, 구름, 잔뜩, 끼- (4) 예, 이, -었-, -다

01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가리켜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는 형태소를 의미의 유형에 따라 나눌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한다.

오답 풀이

- ①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 ② 더 이상 나누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말이다.
→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더 이상 나누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 ③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의 도움을 받아야 쓰일 수 있다.
→ 형태소를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의존 형태소는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이다.
- ④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없다.
→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 활동의 '나무는 덕을 지냈다.'라는 문장에서 '는, 을, 지니-, -었-, -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형식 형태소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앞뒤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02 '산에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에서 '피었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그러나 형태소로 분석하면 실질 형태소인 '피-'와 형식 형태소인 '-었-', '-다'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총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제시된 문장은 '산, 예, 꽃, 이, 피었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총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제시된 문장은 '산, 예, 꽃, 이, 피-, -었-, -다'로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산'과 '꽃'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 제시된 문장은 '산, 예, 꽃, 이, 피-, -었-, -다'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중 '산'과 '꽃'은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⑤ '예'와 '이'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단어이다.
→ '예'와 '이'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인 '산'과 '꽃'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조사이다.

03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에서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하늘, 구름, 잔뜩'이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에, 이, 끼-, -었-, -다'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는 '하늘, 구름, 잔뜩, 끼-'이고, '에, 이, -었-, -다'는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형식 형태소이다.

개념 13 단어의 형성 ②: 단어의 구성 본문 56~57쪽

(개념 확인하기) 1 어근 2 접사 3 접두사, 접미사 4 ×
5 ○ 6 ○ 7 ○ 8 어간 9 접두사 10 (1) 밑-(어근) + -음(접사) (2) 군-(접사) + 소리(어근) (3) 헛-(접사) + 살-(어근)

학습 활동 ① 짓- + 밭- ② 멧 + -쟁이 ③ 새- + 파랑-
④ 사람 ⑤ 동사 ⑥ 어근 ⑦ 명사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1 '말아들'에서 '말-'은 '말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아들'은 어근이다. 그러므로 '말아들'은 '말-(접사) + 아들(어근)'으로 나누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날개: 날-(어근) + -개(접사)
→ '날개'의 '날-'은 어근이고, '-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 ③ 치뜨다: 치-(접사) + 트-(어근)
→ '치뜨다'의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트-'은 어근이다.
- ④ 욕심쟁이: 욕심(어근) + -쟁이(접사)
→ '욕심쟁이'의 '욕심'은 어근이고,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⑤ 말쑥꾸러기: 말쑥(어근) + -꾸러기(접사)
→ '말쑥꾸러기'의 '말쑥'은 어근이고,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치뜨다'의 어근은 '뜨-'인가요? '뜨다'인가요?

A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치뜨다'에서 '치-'는 접두사이므로 주변 부분이고, '뜨다'에서 '뜨-'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 '돌다리'는 '돌'과 '다리' 각각의 실질적인 의미가 합쳐진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이므로 둘 다 어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어근) + 다리(어근)'의 결합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개꿈
→ '개-(접사) + 꿈(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로, '개-'는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한다.
- ③ 녹음기
→ '녹음(어근) + -기(접사)'로 구성된 단어로, '-기'는 '도구' 또는 '기구'의 뜻을 더한다.
- ④ 슬기롭다
→ '슬기(어근) + -롭다(접사)'로 구성된 단어로, '-롭다'는 '그려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든다.
- ⑤ 사랑하다
→ '사랑(어근) + -하다(접사)'로 구성된 단어로, '-하다'는 동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03 '참사랑'은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참-'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놀이
→ 어근 '놀-'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말이다.
- ② 달님
→ 어근 '달'에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결합한 말이다.
- ③ 가위질
→ 어근 '가위'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결합한 말이다.
- ⑤ 걱정스럽다
→ 어근 '걱정'에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한 말이다.

04 접두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와 다른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넓이'는 형용사 '넓다'의 어근 '넓-'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품사가 명사로 변화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맨다리
→ 접두사 '맨-'과 어근 '다리(명사)'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 ③ 날달걀
→ 접두사 '날-'과 어근 '달걀(명사)'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 ④ 풋사랑
→ 접두사 '풋-'과 어근 '사랑(명사)'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 ⑤ 웅기장이
→ 어근 '웅기(명사)와 접미사 '-장이'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문법 짚고 가기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의 예

- '용언 → 명사'로 바꾸는 접미사: -이(길이), -기(굽기), -개(날개)
- '용언 → 부사'로 바꾸는 접미사: -이(많이), -히(조용히)
- '명사 → 동사'로 바꾸는 접미사: -하다(공부하다, 사랑하다)
- '명사 → 형용사'로 바꾸는 접미사: -스럽다(사랑스럽다), -롭다(항기롭다), -답다(정답다)
- '부사 → 동사'로 바꾸는 접미사: -거리다(반짝거리다, 철렁거리다)

(개념 확인하기)

1 단일어, 복합어 2 합성어, 파생어 3 접두, 접미 4 × 5 ○ 6 (1) 가방, 뛰다 (2) 길이, 꽃밭, 나무꾼 7 (1) 접두 (2) 접미 (3) 접미 (4) 접두 8 (1) 김밥, 눈사람 (2) 헛디디다, 덧니 (3) 조용히, 싸개 9 합성어 10 통사적 11 종속 12 ○ 13 × 14 ○ 15 (1) 남녀, 뛰놀다 (2) 쇠뿔, 손수건 (3) 피땀, 가시방석 16 (1) 곤잘, 논밭 (2) 부술비, 먹거리

학습 활동

① 하늘 ② 뉘프루다 ③ 높이, 헛수고 ④ 치- (접두사), 솟-(어근), 변화 없음 ⑤ 믿-(어근), -음(접미사), 변화함 ⑥ 장난(어근), -꾸러기(접미사), 변화 없음 ⑦ 젊은이, 작은아버지 ⑧ 군세다, 오르내리다 ⑨ 오가다, 논밭 ⑩ 들것, 걸어가다, 굳은살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③ 06 ④

01 '되감다'는 '도로'나 '다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되-'와 어근 '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단일어 - 읽다
→ 어근 '읽-'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합성어 - 찬밥
→ 어근 '차-'와 어근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④ 파생어 - 군침
→ '솔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군-'과 어근 '침'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⑤ 파생어 - 사랑스럽다
→ 어근 '사랑'과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2 '돌베'는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이라는 뜻의 접두사 '돌-'과 어근 '베'가 결합한 접두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② 덮개
→ 어근 '덮-'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접미 파생어이다.
- ③ 손님
→ 어근 '손'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이 결합한 접미 파생어이다.
- ④ 기쁨
→ 어근 '기쁘-'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결합한 접미 파생어이다.
- ⑤ 겁쟁이
→ 어근 '겁'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쟁이'가 결합한 접미 파생어이다.

문법 짚고 가기

직접 구성 성분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손가락질'이라는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면 '손가락'과 '질'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손가락'을 어근과 어근으로 더 나눌 수 있어도 '손가락질'은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파생어로 본다.

⑤는 접두사 '덧-'과 어근 '대-'가 결합된 접두 파생어이고, ⑥는 어근 '달리-'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접미 파생어이다. ⑥의 접미사는 '달리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붙어 명사로 품사를 바꾸었으나, ⑤의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오답 풀이

- ① ②와 ⑥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날강도'는 접두사 '날-'과 어근 '강도'가 결합하였고, '덧대다'는 접두사 '덧-'과 어근 '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② ②의 '날-'과 ④의 '-롭다'는 어근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 '날강도'에서 '날-'은 '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신비롭다'에서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④ ④와 ⑥는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 '달리기'는 어근 '달리-'에 접미사 '-기'가 결합하였고, '고요히'는 어근 '고요'에 접미사 '-히'가 붙어 형성된 접미 파생어이다.
- ⑤ ④의 '-롭다'는 형용사, ⑥의 '-히'는 부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 '신비롭다'의 '-롭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고, '고요히'의 '-히'는 일부 명사나 부사,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접칼(접을 수 있게 만든 칼)'은 '접다'라는 동사의 어간 '접-'과 명사인 '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 과정에서 어간인 '접-'에 관형사형 어미 '-는' 없이 바로 명사가 연결되었으므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접칼'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② 큰집
→ '크-(형용사의 어간) + -ㄴ(관형사형 어미) + 집(명사)'의 구성이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길바닥
→ '길의 바닥'에서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작은형
→ '작-(형용사의 어간) + -은(관형사형 어미) + 형(명사)'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알아듣다
→ '알-(동사의 어간) + -아(연결 어미) + 들-(동사의 어간) + -다(종결 어미)'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헐벗다'는 '헐다'라는 동사의 어간 '헐-'과 '벗다'라는 동사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된 것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나머지 단어들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첫사랑
→ '관형사 + 명사'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낮설다
→ '주어 + 서술어'가 결합되어 주격 조사인 '이'가 생략된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돌아보다
→ '용언의 어간 + 연결 어미(-아) + 용언'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이리저리
→ '부사 + 부사'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06 '팔다리'는 '팔'과 '다리'라는 두 어근의 의미가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대등 합성어, '국그릇'은 '국'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으로 '국'이라는 어근이 '그릇'이라는 어근을 수식하므로 종속 합성어, '돌아가시다'는 '돌다'와 '가시다'의 원래의 의미가 아닌, '죽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 '높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등 합성어, '쌀밥'은 '쌀로 만든 밥', '책가방'은 '책을 넣는 가방', '강바람'은 '강에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종속 합성어, '밤손님'은 '밤'과 '손님'이 결합하여 '밤도둑'이라는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이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62~63쪽

01 ⑥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①

01 '밝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밝-'과 '-다'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밝-'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그러나 '-다'는 의존 형태소인 것은 맞지만,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 ① 일정한 뜻을 가진 최소의 말의 단위이다.
→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이상 분석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 ② 의존 형태소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이다.
- ③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형식 형태소는 '는, -겠-, -다'와 같이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한다.
- ④ '시', '사랑', '눈물'은 모두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 '시', '사랑', '눈물'은 모두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⑤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 형태소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 ⑦ '나무'를 '나'와 '무'로 나누면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나무'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이다.
→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더 나누면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무'는 '나'와 '무'로 더 나눌 경우,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나무'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것이다.

02 '들판'은 '들'과 '판'으로 더 나눌 수 있으므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 '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풀이

- ①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보기>의 문장은 '푸른, 들판, 예, 예쁜, 꽃, 이, 피었다'로,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3개이다.
→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는 '들, 판, 꽃'으로 모두 3개이다.
- ③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모두 6개이다.
→ 실질 형태소는 '푸르-, 들, 판, 예쁘-, 꽃, 피-'로 모두 6개이다.
- ⑤ '예'와 '이'는 '들판'과 '꽃'에서 쉽게 분리되므로 단어이다.
→ '예'와 '이'는 조사인데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에 포함된다.
- ⑥ '푸른', '예쁜', '피었다'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푸른'은 '푸르-, -ㄴ'으로, '예쁜'은 '예쁘-, -ㄴ'으로, '피었다'는 '피-, -었-, -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 ⑦ 실질적인 뜻은 없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는 모두 6개이다.
→ 형식 형태소는 '-ㄴ, 예, -ㄴ, 이, -었-, -다'로 모두 6개이다.

03 접미사도 기본적으로 어근의 뒤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 ② 접사는 어근에 붙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
→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
- ③ 접두사는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어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접사는 모두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 어근과 접사를 의미 유형에 따른 형태소로 살펴본다면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실질 형태소에, 접사는 어근에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주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4 '칠장이'는 '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근 '칠'과 접미사 '-장이'가 결합한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궤보: 궤(어근) + -보(접사)
→ '궤보'는 어근 '궤'에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보'가 결합한 말이다.
- ② 짓찢다: 짓-(접사) + 찢-(어근)
→ '짓찢다'는 '마구', '함부로', '몹시'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짓-'에 어근 '찢(다)'-가 결합한 말이다.
- ④ 무사히: 무사(어근) + -히(접사)
→ '무사히'는 어근 '무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이다.
- ⑤ 정답다: 정(어근) + -답다(접사)
→ '정답다'는 어근 '정'에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답다'가 결합한 말이다.

05 '덮밥'은 어근 '덮-'과 어근 '밥'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덮밥'이 파생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바다', '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단일어이다.
→ '바다'는 '바다', '맑다'는 '맑-'이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므로, 단일어이다.

- ② '낮잠'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누비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낮잠'은 '명사 + 명사'로 결합된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이고, '누비웃'은 '누빈 + 웃'이 되지 않고 동사 어간 '누비-'가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 앞에 붙어 놓여 있는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결논질'은 합성어 '결논'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결논질'은 먼저 어근 '결'과 어근 '논'이 결합한 합성어 '결논'에 접미사 '-질'이 붙어 파생어 '결논질'이 된 것이다.
- ④ '힘들다'는 어근 '힘'과 어근 '들-'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힘들다'는 어근 '힘'과 어근 '들-'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주어 + 서술어'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⑥ '가리개'는 동사 어근 '가리-'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가리개'는 '가리다'라는 동사의 어근 '가리-'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 단한 도구'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6 '군소리'의 '군-'은 어근 '소리'에 '쓸데없는'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군소리'는 '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쓸데 없는 말'이라는 뜻을 지닌다.

오답 풀이

- ① 한어음: 하나의
→ '한어음'의 '한-'은 '한창인'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② 돌미역: 단단한
→ '돌미역'의 '돌-'은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③ 풋나물: 싱그러운
→ '풋나물'의 '풋-'은 '처음 나온',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⑤ 치뜨다: 아래로 향하게
→ '치뜨다'의 '치-'는 '위로 향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⑥ 잠꾸러기: 그것이 부족한 사람
→ '잠꾸러기'의 '-꾸러기'는 '그것이 심한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⑦ 고집쟁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
→ '고집쟁이'의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장이'이다.

07 '결레질'의 접미사 '-질'은 어근 '결레'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을 더하지만, 어근의 품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지는 않는다. '결레'의 품사도 명사이고, 접사가 결합한 '결레질'의 품사도 동사가 아닌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민음'의 접미사 '-음'은 어근 '민-'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명사로 바꾸었다.
→ '민다'의 품사는 동사인데, 접미사 '-음'과 결합한 후 명사로 바뀌었다.
- ③ '영원히'의 접미사 '-히'는 어근 '영원'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부사로 바꾸었다.
→ '영원'의 품사는 명사인데, 접미사 '-히'와 결합한 후 부사로 바뀌었다.
- ④ '복스럽다'의 '-스럽다'는 어근 '복'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형용사로 바꾸었다.
→ '복'의 품사는 명사인데,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한 후 형용사로 바뀌었다.
- ⑤ '건강하다'의 접미사 '-하다'는 어근 '건강'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형용사로 바꾸었다.
→ '건강'의 품사는 명사인데,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후 형용사로 바뀌었다.

- ⑥ '풍요롭다'의 접미사 '-롭다'는 어근 '풍요'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형용사로 바꾸었다.
→ '풍요'의 품사는 명사인데, 접미사 '-롭다'와 결합한 후 형용사로 바뀌었다.
- ⑦ '높이'의 접미사 '-이'는 어근 '높-'의 품사를 다른 품사인 명사 또는 부사로 바꾸었다.
→ '높다'의 품사는 형용사인데, 접미사 '-이'와 결합한 후 명사 또는 부사로 바뀌었다.

08 합성어에는 의미 관계에 따라 어근들의 원래 의미가 대등하게 유지되는 대등 합성어,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 어근들의 본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할 수 있다.
→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것이 파생어이다.
- ③ 합성어는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접사 없이 결합한 단어를 말한다.
- ⑤ 파생어는 접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거나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접사에 의해 어근에 특정한 의미가 더해지거나 어근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것과 같은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 ⑥ 파생어는 파생 접사의 결합 위치에 따라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 접두 파생어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접미 파생어는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09 '단팔죽'은 어근 '팔'과 어근 '죽'이 결합한 합성어 '팔죽'에 '달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인 '달-'이 결합된 것으로, 여기서 '단'은 어근 '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단팔죽'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살구'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 '살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② '주름살'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주름살'은 '주름'과 '살'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주름'과 '살'은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다.
- ③ '별자리'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별자리'는 '별'과 '자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별'과 '자리'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다.
- ⑤ '누리꾼'은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누리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누리'와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여기서 '누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어근이고, '-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10 <보기>의 '쩍쩍'은 '동사의 어간 + 명사'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제시된 단어 중 이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형성된 것은 '꺾쇠'이다. '꺾쇠'는 동사의 어간 '꺾-'에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 '쇠'가 결합된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② 새집

→ '새집'은 '새 + 집'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이다. 여기에서 '새'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관형사이고, '집'은 명사이다. '관형사 + 명사'의 형태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으므로, '새집'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날뛰다

→ '날뛰다'는 '날- + 뛰- + -다'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이다. 여기에서 '날-'과 '뛰-'는 모두 동사의 어간인데, 중간에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어간끼리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날뛰다'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접합(동사의 어간 + 명사)'과는 구성 방식이 다르다.

④ 작은형

→ '작은형'은 '작- + -은 + 형'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이다. 여기에서 형용사 어간인 '작-'과 명사인 '형'을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작은형'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꽃아가다

→ '꽃아가다'는 '꽃- + -아 + 가- + -다'의 형태로 결합된 단어이다. 여기에서 동사의 어간인 '꽃-'과 '가-' 사이에 연결 어미 '-아'가 있으므로, '꽃아가다'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개념 15 단어의 의미 관계

본문 64~67쪽

(개념 확인하기) 1 유의 2 반의 3 × 4 × 5 유의 관계 6 성별 7 ㉠ 8 ㉡ 9 ㉢ 10 도착하다, 다다르다 11 동음이의, 다의 12 상하, 상의어, 하의어 13 ○ 14 ○ 15 중심적 의미 16 동음이의어 17 • ㉠: 동음이의 관계 • ㉡: 다의 관계 18 직업

학습 활동 ① 애수, 비통 ② 즐거움, 환희 ③ 반의 관계 ④ 유의 관계 ⑤ 반의 관계 ⑥ 가전제품 ⑦ 유제품 ⑧ 동음이의 관계 ⑨ 다의 관계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1 유의 관계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②의 '생물'은 '식물'의 의미를 포함하고, '식물'은 '생물'에 포함되므로 '생물'과 '식물'은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 치아

→ '이'는 '척추동물의 입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의 고유어이고, '치아'는 '이'의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기쁨 - 즐거움

→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의미이고, '즐거움'은 '즐거운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느낌이나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서로 의미가 유사한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수수 - 강냉이

→ '옥수수'는 '벼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그 열매'를 의미한다. 강냉이는 '옥수수의 열매'를 의미하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끔 - 드문드문

→ '가끔'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라는 의미이고, '드문드문'은 '시간적으로 찾지 않고 드문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서로 의미가 유사한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이'와 '치아'는 동의어인가요? 유의어인가요?

A '동의어(同義語)'란 소리는 다르나 뜻이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치아'는 뜻이 거의 동일하지만, 하나의 문장에서 바꾸어 쓰게 되면 어색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말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어와 방언, 고유어와 한자어, 일반어와 전문어, 금기어와 완곡어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관계를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을 의미하는 '유의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와 '치아'는 유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가방을 벗다.'에서 '벗다'는 '매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의 뜻이므로 '어떤 일이나 현상, 증상 따위를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의 '없애다'와는 유의 관계에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옷을 벗다.'에서 '벗다'의 반의어는 '입다'가 되겠군.

→ '옷을 벗다.'에서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의 뜻이므로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라는 뜻의 '입다'가 반의어가 된다.

②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의 반의어는 '쓰다'가 되겠군.

→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이므로 '죄나 누명 따위를 입게 되다.'라는 뜻의 '쓰다'가 반의어가 된다.

③ '힘을 벗다.'에서 '벗다'는 '씻다'와 바꾸어 쓸 수 있겠군.

→ '힘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이므로 '씻다'가 유의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둘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책임을 벗다.'에서 '벗다'는 '면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겠군.

→ '책임을 벗다.'에서 '벗다'는 '의무나 책임 따위를 면하게 되다.'라는 뜻이므로 '면하다'가 유의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둘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3 ①, ②, ③, ⑤의 밑줄 친 단어들은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④의 '눈물이 흐르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라는 문장에서 '흐르다'는 '피, 땀, 눈물 따위가 몸 밖으로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고, '쏟아지다'는 '눈물이나 땀, 피 따위가 한꺼번에 많이 흐르다.'라는 뜻이므로 '흐르고'와 '쏟아진다'는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성공과 실패는 한 곳 차이다.

→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고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이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② 입을 다물고만 있지 말고 열어라.

→ '다물고(다물다)'는 '입술이나 그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 대다'라는 뜻이고 '열어라(열다)'는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③ 싸움을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 '중단하고(중단하다)'는 '중도에서 끊다'라는 뜻이고 '계속해야(계속하다)'는 '끊지 않고 이어 나간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⑤ 부모님께 어쩌다가 전화하지 말고 자주 연락해라.

→ '어쩌다가'는 '이따금' 또는 '가끔가다가'라는 뜻이고 '자주'는 '같은 일을 이따라 찾게'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04 <보기>의 '날'과 '장날'은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건다'가 '이동하다'에 포함되는 관계를 보이는 ③이다.

오답 풀이

① 뜨다 - 지다

→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라는 뜻이고 '지다'는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② 달리다 - 뛰다

→ '달리다'는 '달음질쳐 빨리 가거나 오다'라는 뜻이고 '뛰다'는 '발을 몹시 재게 움직여 빨리 나아가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있다.

④ 높다 - 낮추다

→ '높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를 길게 하다'라는 뜻이고 '낮추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를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

⑤ 요리하다 - 조리하다

→ '요리하다'는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들다'라는 뜻이고 '조리하다'는 '요리를 만들다'라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있다.

05 상하 관계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따라서 '한옥'은 '집'에 대해서는 하의어이지만, '초가집'이나 '기와집'과 같은 하의어를 지녀 상의어가 된다.

오답 풀이

① '건물'은 '집'의 상의어에 해당한다.

→ '건물'은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뜻인 '집'의 상의어에 해당한다.

② '집'과 '한옥'은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이므로 '집'과 상하 관계에 있다.

③ '집', '가옥', '주택'의 단어는 유의 관계에 있다.

→ '가옥'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주택'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므로 '집'과 '가옥'과 '주택'은 서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한옥'과 '양옥'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므로 '양옥'과 반의 관계에 있다.

06 '그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았다'에서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의미하며, '우리 집에는 드나드는 손이 많다'에서 '손'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문장의 '손'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서로 관련성이 없이 전혀 다르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오답 풀이

① 옷에 풀기가 족었다. / 애써 피운 장작불이 족었다.

→ 첫 번째 문장에서의 '족다(족었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변하여 드러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족다(족었다)'는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 둘은 의미상 '기운이나 형체가 활발하지 않고 가라앉은 상태'라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② 이 방에는 별이 잘 든다. / 어제는 사랑에 손님이 들었다.

→ 첫 번째 문장에서의 '들다(든다)'는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들다(들었다)'는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이 둘은 의미상 '어떤 대상이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④ 좁은 길로 다니지 마라. / 나는 한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았다.

→ 첫 번째 문장에서의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 문장에서의 '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문장의 '길'은 첫 번째 문장의 '길'과 '지나가다'라는 의미상 관련성이 있어 의미가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⑤ 신경을 많이 썼더니 머리가 아프다. / 그의 행동을 보니 머리가 좋은 게 틀림없다.

→ 첫 번째 문장에서의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의 의미이며, 두 번째 문장에서의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의미이다. 두 번째 문장의 '머리'는 첫 번째 문장의 '머리'와 관련이 있어 의미가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문법 짚고 가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파악하는 방법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어사전의 정보가 주어질 경우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의미를 제시한 것은 다의어이고, 각각 다른 표제어로 제시된 것은 동음이의어이므로 구분이 쉽다. 하지만 국어사전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첫째, 제시된 여러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다의어로, 관련성이 없으면 동음이의어로 본다. 둘째, 제시된 여러 의미가 단어의 중심 의미에 기초하여 파생, 확장된 의미이면 다의어로, 관련없는 각각의 중심 의미이면 동음이의어로 본다. 셋째, 비유적인 의미이면 다의어로, 그렇지 않으면 동음이의어로 본다.

다의어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68~6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⑥ 07 ②
08 ② 09 ② 10 ③

01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므로 어느 경우에도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 하나의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 ② 동음이의 관계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 간의 관계이다.
→ ‘손[手]-손[客]’과 같이 소리는 같지만 서로 뜻이 다른 단어의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한다.
- ③ 다의어의 의미 중,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한다.
→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 ④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총각-처녀’와 같이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 ⑥ 상하 관계의 단어 중, 상의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여러 개의 하의어를 가질 수 있다.
→ 의미상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고 하고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한다.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의어는 여러 개의 하의어를 가질 수 있고, 하의어는 여러 개의 상의어를 가질 수 있다.

02 단어 ‘발’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이다. 이러한 뜻으로 ‘발’이 쓰인 문장은 ‘영수가 축구공을 발로 찼다.’이다.

오답 풀이

- ① 수진은 발이 참 넓다.
→ 이 문장에서 ‘발이 넓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일부인 ‘발’의 중심적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이것은 장롱의 발이다.
→ 이 문장에서 ‘발’은 ‘가구를 받쳐 균형을 잡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는 ‘발’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④ 송훈민은 발이 매우 빠른 선수이다.
→ 이 문장에서 ‘발’은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⑤ 순이는 너무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 이 문장에서 ‘발’은 ‘걸음을 세는 단위’라는 의미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⑥ 민재는 발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 이 문장에서 ‘발’은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03 <보기>에 제시된 배¹과 배²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다의 관계
→ 다의 관계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관계를 말한다.
- ② 유의 관계
→ 유의 관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 ③ 반의 관계
→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④ 상하 관계

→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04 <보기>에 제시된 ‘눈[目] - 눈[雪]’이라는 단어는 서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 관계이다.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 중, 동음이의 관계가 아닌 것은 ⑤의 ‘쓰다(쓰고)’로 이 단어들은 다의어에 해당한다. 첫 번째 문장 ‘진수는 오늘 멋있는 모자를 쓰고 왔다.’의 ‘쓰다’는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댔다.’라는 뜻으로 ‘쓰다’의 중심적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 ‘광부들이 온 몸에 석탄가루를 까맣게 쓰고 있었다.’의 ‘쓰다’는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이나 물체 따위에 덮은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참기름을 발라 구운 김에 밥을 싸서 먹다. / 유리창에 김이 서려 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
→ 첫 번째 문장의 ‘김’은 해조류의 하나로 반찬으로 먹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의 ‘김’은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서 엉긴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보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서후는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 여기부터 남으로 10킬로미터는 더 가야 한다.
→ 첫 번째 문장의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의 ‘남’은 ‘네 방위의 하나로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방위’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보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③ 그가 뜨거운 태양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렸다. / 그는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다.
→ 첫 번째 문장의 ‘땀’은 ‘사람의 동물의 살갗속에서 나오는 짙은 액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의 ‘땀’은 ‘바느질할 때 실을 꿰 바느질 한 번 땀’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므로 <보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④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차 한 잔 해야겠다. /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 체증이 심하다.
→ 첫 번째 문장의 ‘차’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의 ‘차’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옮기는 기관인 자동차’의 의미이다. 이처럼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므로 <보기>와 같은 동음이의 관계이다.

05 ㉠은 사람의 마음이 안타깝거나 조마조마하여 몹시 조금해진다는 의미로, ‘속이 타다.’, ‘애간장이 타다.’, ‘심장이 타다.’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의 문장 ‘긴장이 되어 입술이 바짝바짝 타다.’의 ‘타다(타다)’는 ‘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다.’라는 ㉢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 ① ㉠: 그의 얼굴이 햇볕에 타서 구릿빛이 되었다.
→ 이 문장의 ‘타다(타서)’는 ‘피부가 햇볕을 오래 쬘어 검은색으로 변하다.’라는 뜻이다.
- ③ ㉢: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타 버렸다.
→ 이 문장의 ‘타다(타)’는 ‘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다.’라는 뜻이다.
- ④ ㉡: 엄마는 재빨리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였다.
→ 이 문장의 ‘타다(타서)’는 ‘다량의 액체(물)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분유)를 넣어서 섞다.’라는 뜻이다.
- ⑤ ㉡: 경수가 경연 대회에서 상을 타 낸 것은 노력의 결과이다.
→ 이 문장의 ‘타다(타는)’는 ‘뒤편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라는 뜻이다.

06 <보기>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의 관계의 단어들은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한다. 그런데 ‘총각’과 ‘아주머니’의 의미 요소는 ‘성별’ 이외에 ‘결혼 여부’도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참 ↔ 거짓
→ ‘참’과 ‘거짓’은 ‘사실성’의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② 소년 ↔ 소녀
→ ‘소년’과 ‘소녀’는 ‘성별’의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③ 신사 ↔ 숙녀
→ ‘신사’와 ‘숙녀’는 ‘성별’의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④ 살다 ↔ 죽다
→ ‘살다’와 ‘죽다’는 ‘생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⑤ 쉽다 ↔ 어렵다
→ ‘쉽다’와 ‘어렵다’는 ‘무엇을 하기가 까다롭고 힘이 든지의 여부’에 대한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⑦ 올라가다 ↔ 내려가다
→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는 ‘방향성’의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07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한다.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고 하며,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한다.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동물’은 ‘척추동물’의 상의어이므로, ‘척추동물’에 비해 구체적인 의미가 아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생물’은 ‘동물’과 ‘식물’의 상의어이다.
→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상의어이다.
- ③ ‘무척추동물’은 ‘생물’에 비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무척추동물’은 ‘생물’의 하의어이므로 ‘생물’에 비해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④ ‘척추동물’의 하의어로 ‘포유류’, ‘어류’, ‘양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포유류’, ‘어류’, ‘양서류’는 모두 ‘척추동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척추동물’의 하의어이다.
- 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 하의어는 상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므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상의어인 ‘동물’의 의미 특성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⑥ ‘동물’은 ‘생물’의 하의어이지만 ‘척추동물’의 상의어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상하 관계는 상대적이다.
→ ‘동물’은 ‘생물’의 하의어이지만 ‘척추동물’의 상의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하 관계의 단어들이 상의어가 되거나 하의어가 되는 것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

08 단어의 뜻은 문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단어에 대한 유의어는 여럿이 될 수 있다. 제시된 단어 중 ①, ②, ③, ⑤는 ‘서다’의 유의어가 될 수 있지만, <보기> 문장에서의 ‘서다’는 ‘어느 곳

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라는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유사한 ‘정지했다’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성립됐다
→ ‘성립되다’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서다’가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가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의 의미로 쓰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이다.
- ③ 곧추섰다
→ ‘곧추서다’는 ‘곳곳이 서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서다’가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이다.
- ④ 무더졌다
→ ‘무더어지다’는 ‘칼이나 송곳 따위의 끝이나 날이 날카롭지 못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서다’가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그것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 ⑤ 곧두섰다
→ ‘곧두서다’는 ‘거꾸로 곳곳이 서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서다’가 ‘처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이다.

09 ‘애상’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함.’이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기쁨’에 대한 반의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 낙(樂)
→ ‘낙(樂)’은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의미하므로, ‘기쁨’의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 ③ ㉡: 침통
→ ‘침통’은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몹시 마음이 괴롭거나 슬픔.’을 의미하므로, ‘기쁜 감정’을 의미하는 ‘기쁨’과는 반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라고 할 수 있다.
- ④ ㉢: 괴로움
→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므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기쁨’과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 감정
→ ‘감정’은 ‘기쁨, 침통, 괴로움’과 같은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기쁨’의 상의어라고 할 수 있다.

10 ‘합격하다’와 ‘불합격하다’는 개념적 영역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중립 상태가 없다. 그러므로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등급 반의어에는 ‘길다 : 짧다’, ‘쉽다 : 어렵다’, ‘덥다 : 춥다’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 미혼자 : 기혼자
→ ‘미혼자’와 ‘기혼자’는 ‘결혼 여부’에 대한 의미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며 중립 상태가 없으므로 상보 반의어이다.
- ② ㉡ 밝다 : 어둡다
→ ‘밝다’와 ‘어둡다’는 것은 표현하는 사람이나 상황마다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급 반의어에 해당한다.
- ④ ㉣ 남극 : 북극
→ ‘남극’과 ‘북극’은 남쪽과 북쪽이라는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이루므로 방향 반의어이다.
- ⑤ ㉤ 타다 : 내리다
→ ‘타다’는 탈것의 위나 안으로 몸을 엮는 것이고, ‘내리다’는 탈것에서 아래나 밖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즉 두 단어는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이루므로 방향 반의어이다.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③	0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④	16 ②	17 ③	18 ①	19 ①	20 ①	21 ②
22 ②	23 ②					

01 자립 형태소는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이,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에서 자립 형태소는 '하늘', '매우'로 2개이다.

오답 풀이

- ② 형식 형태소는 모두 3개이다.
→ 실질적인 뜻이 없이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는 '이, -고, -다'로, 모두 3개이다.
- ③ 의존 형태소는 모두 5개이다.
→ 혼자 쓰일 수 없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는 '이, 높-, -고, 푸르-, -다'로, 모두 5개이다.
- ④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모두 2개이다.
→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용언의 어근이자 어간인 '높-', 푸르-'로, 모두 2개이다.
- ⑤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모두 2개이다.
→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는 '하늘, 매우'로, 모두 2개이다.

02 '달리기'는 어근인 '달리-'와 접사 '-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달리-'를 □로, '-기'를 ○로 나타낸 ③이 적절하다.

03 '검붉다'는 어근 '검-'과 어근 '붉-'이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지만, '나무꾼'은 어근 '나무'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치솟다'는 접사가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고 있으므로 파생어이군.
→ '치솟다'는 어근 '솟-'에 '위로 향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치-'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밤하늘'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군.
→ '밤하늘'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두 어근 '밤'과 '하늘'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③ '지우개'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닭고기'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군.
→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것이므로 파생어이고, '닭고기'는 어근 '닭'과 어근 '고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⑤ '개살구'와 '부채질'은 모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하군.
→ '개살구'는 어근 '살구'에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개-'가, '부채질'은 어근 '부채'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4 '수평, 수양'은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는 접두사 '수-/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접두사가 결합하는 단어 '평'과 '양'이 모두 명사이므로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군기침, 군살'이 있다.
→ '군기침'과 '군살'은 '군-(접두사) + 기침(명사)', '군-(접두사) + 살(명사)'이므로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다.
- ②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빗나가다, 빗맞다'가 있다.
→ '빗나가다'와 '빗맞다'는 '빗-(접두사) + 나가다(동사)', '빗-(접두사) + 맞다(동사)'이므로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다.
- ③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헛디디다, 헛수고'가 있다.
→ '헛디디다'와 '헛수고'는 '헛-(접두사) + 디디다(동사)', '헛-(접두사) + 수고(명사)'이므로 접두사가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다.
- ④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새빨갳다, 셋노랗다'가 있다.
→ '새빨갳다'와 '셋노랗다'는 '새-(접두사) + 빨갳다(형용사)', '셋-(접두사) + 노랗다(형용사)'이다. 따라서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고,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 '새-'와 '셋-'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05 '겹겹이'는 어근 '겹'과 어근 '겹'이 결합한 것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오답 풀이

- ① 군것질
→ '군것질'은 어근 '것'에 접두사 '군-'이 결합된 파생어 '군것'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단어이며 명사였던 품사가 다른 품사로 변하지 않았으므로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바느질
→ '바느질'은 어근 '바늘'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것이며 명사였던 품사가 다른 품사로 변하지 않았으므로 ㉠과 ㉡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다듬이
→ '다듬이'는 '다듬다'라는 동사의 어근 '다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단어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따라서 ㉡에는 해당되지만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⑤ 헛웃음
→ '헛웃음'은 '웃다'라는 동사의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후, 접두사 '헛-'이 결합된 단어이다. 이때는 품사가 여전히 명사로, 다른 품사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06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밑줄 친 '물-/물-', '-었-/았-', '는/은'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물-'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나고, '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난다. 어미 '-었-/았-'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ㄱ, ㄴ'인가 아닌가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조사 '는/은'은 결합하는 앞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리고 '물-/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고, '-었-/았-', '는/은'은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은 용언의 어근이므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조사인 ㉡뿐이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이라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과 ㉡뿐이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뿐이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 ㉠, ㉠, ㉡의 공통점이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라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것도 ㉠, ㉠, ㉡ 모두에 해당된다.

07 자료를 통해 ‘-쟁이’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룰 때 쓰는 말이며, ‘-장이’는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뜻일 때 쓰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욕심쟁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쟁이’가 붙고, ‘대장장이’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다루는 일인 ‘대장일’을 하는 ‘기술자’를 의미하므로 ‘-장이’가 붙어야 하며, ‘중매장이’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인 중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이’가 붙어야 한다. 따라서 (1)의 예로 ‘욕심쟁이’를, (2)의 예로 ‘중매쟁이’를, (3)의 예로 ‘대장장이’를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ㄱ: (1)의 ‘-쟁이’의 의미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고집쟁이’는 고집이라는 속성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라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볼 때 ‘-쟁이’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② ㄴ: (2)와 (3)은 둘 다 직업과 관련된 말이지만, ‘기술자’를 의미할 때는 ‘-장이’를 쓴다.
- (2)와 (3)의 ‘노래쟁이, 그림쟁이, 땀쟁이, 옹기장이’는 모두 직업과 관련된 말이지만, (2)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3)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이르는 말이다.
- ③ ㄷ: (1)~(3)을 볼 때, ‘-쟁이’와 ‘-장이’는 모두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옹기’의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 ④ ㄹ: (1)~(3)을 볼 때, ‘-쟁이’와 ‘-장이’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접미사이다.
- (1)~(3)에서 ‘-쟁이’와 ‘-장이’는 명사인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땀, 옹기’와 결합하여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노래쟁이, 그림쟁이, 땀쟁이, 옹기장이’의 단어를 만들었다. 결합 후에도 품사는 명사로, 다른 품사로 변화하지 않는다.

08 ③의 ‘보살피다’는 ‘보다’의 어간 ‘보-’가 연결 어미 없이 용언 ‘살피다’에 바로 결합한 것으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어깨동무,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
- ‘어깨동무’는 명사 ‘어깨’와 명사 ‘동무’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건넌목,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통사적 합성어
- ‘건넌목’은 용언 ‘건너다’의 어간 ‘건너-’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 ‘건넌-’이 명사 ‘목’과 결합한 합성 명사로,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여닫다,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
- ‘여닫다’는 용언 ‘열다’의 어간 ‘열-’과 용언 ‘닫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한 합성 동사로, 결합 과정에서 어간 ‘열-’의 ‘ㄹ’이 탈락하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검버섯, 용언의 어간 +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검버섯’은 용언 ‘검다’의 어간 ‘검-’이 연결 어미 없이 명사 ‘버섯’과 바로 결합한 합성 명사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9 ‘아홉’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 형용사인 ‘착실한’과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문장 안에서 활용하여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② ㉡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 ‘열’은 수사, ‘학생’은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 ③ ㉢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 ‘은’은 보조사이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둘 다 관계언이다.
- ⑤ ㉤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한’은 형용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이다.

10 ‘두’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팔’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도’와 ‘만’은 조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이루었다’와 ‘그린’은 동사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나무’와 ‘꽃’은 명사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 ⑤ ‘넋계’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넋계’와 ‘희미하다’는 형용사로,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11 ‘즐거운’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트하고 기쁘다.’라는 뜻을 지니는 ‘즐겁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활용을 하고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은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옛날, 사진, 기억’이 이에 해당한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은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보니, 떠올랐다’가 이에 해당한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은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을, 가’는 ㉔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㉔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을, 가’가 이에 해당하는 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고, ‘가’는 주격 조사이다.

12 ㉔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㉔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㉔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㉔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㉔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㉔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㉔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㉔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㉔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3 ㉔의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에서 ‘그곳’은 어떤 처소를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에 해당하지만, ㉔의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에서 ‘그’는 대명사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② ㉔의 ‘아주’와 ㉔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㉔의 ‘아주’는 ‘쉽게(쉽다)’라는 용언 앞에서, ㉔의 ‘잘’은 ‘잤다’라는 용언 앞에 놓여서 용언을 수식하면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③ ㉔의 ‘구울’과 ㉔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㉔의 ‘구울(굽다)’은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고, ㉔의 ‘지어(짓다)’는 어간의 끝소리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ㅅ’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㉔의 ‘구울’과 ㉔의 ‘지어’는 모두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에 해당한다.

④ ㉔의 ‘쉽게’와 ㉔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㉔의 ‘쉽게(쉽다)’와 ㉔의 ‘멋진(멋지다)’은 모두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⑤ ㉔의 ‘가’와 ㉔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 ㉔의 ‘가’는 주격 조사, ㉔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모두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에 해당한다.

14 ‘묻다’는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기어 감추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로 ‘묻어, 묻으며, 묻고, 묻지’ 등으로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오답 풀이

① 그는 우물에서 물을 퍼 먹었다.

→ ‘퍼’는 ‘푸드’라는 용언 어간 끝의 ‘우’가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는 ‘우’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푸- + -어 → 퍼)

③ 그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 ‘들으면서’는 ‘듣다’라는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듣- + -으면서 → 들으면서)

④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였다.

→ ‘도와’는 ‘돕다’라는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ㅂ’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돕- + -아 → 도와)

⑤ 그녀는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 ‘올라’는 ‘오르다’라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ㄹ’이 어미 ‘-아/-어’ 앞에서 ‘ㄹ’의 형태로 변하는 ‘ㄹ’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오르- + -아 → 올라)

15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라는 문장에서 ‘아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에서 ‘매우’는 뒤에 이어지는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㉔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 ‘설마’는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㉔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에서 ‘바로’는 뒤에 오는 명사인 ‘옆’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㉔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 ‘과연’은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 부사이다. 그러나 ‘정말’은 뒤에 이어지는 형용사 ‘뛰어나군’을 수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㉔의 ‘이’는 명사 ‘사과’를, ㉔의 ‘그’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㉔의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㉔의 ‘이리’는 용언 ‘오게’를, ㉔의 ‘그리’는 용언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17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하지만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에서 ‘와’는 ‘개’와 ‘고양이’가 같은 자격으로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도록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와’는 보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 이 문장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 이 문장에서 ‘도’는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등의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이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러하다’는 뜻, 또는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

→ 이 문장에서 ‘는’은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 이 문장에서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18 ‘채’는 의존 명사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채’는 의존 명사로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째’는 접사로 ‘그대로’, 또는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과를 껌질째로 먹었다.’에서 ‘껌질째’는 ‘껌질’이라는 명사에 ‘-째’라는 접사가 붙어 ‘껌질 그대로’ 또는 ‘껌질 전부’라는 의미가 되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얇은 채로 잠이 들었다.
→ ‘얇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얇은 채로’라고 써야 한다.
- ③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 ‘똑똑한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똑똑한 채를’이라고 써야 한다.
-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채로 잡았다.
→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산 채로’라고 써야 한다.
- ⑤ 곰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채를 했다.
→ ‘죽은 척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존 명사 ‘채’가 쓰여 ‘죽은 채를’이라고 써야 한다.

19 ㉠의 ‘칠’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개월’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의 ‘다섯’과 ㉢의 ‘팔’은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편’, ‘년’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고, ㉣와 ㉤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수사이다.

20 <보기>는 ‘-음’과 결합하여 파생 명사가 되는 경우와 용언의 명사형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생 명사는 어근에 명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것이므로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그녀의 수줍음은 늘 티가 났다.’에서 ‘수줍음’은 어근 ‘수줍-’에 접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의 표제어가 된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 ‘없음’은 ‘없다’의 어간 ‘없-’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없다.
- ③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먹음’은 ‘먹다’의 어간 ‘먹-’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없다.
- ④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음을 자랑스러워했다.
→ ‘많음’은 ‘많다’의 어간 ‘많-’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없다.
- ⑤ 내가 늘 빨리 걸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걸음’은 ‘걷다’의 어간 ‘걷-’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므로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없다.

21 ‘깨달은’의 어간을 ‘깨달-’이 아닌 ‘깨달-’로 잘못 파악하면 ‘-은’을 잘못 붙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은’은 어간 ‘깨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의 끝소리 ‘ㄷ’이 ‘ㄹ’로 바뀐 것은 ‘ㄷ’ 불규칙에 의한 것으로, ‘깨달은’은 옳은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언니는 시들은 꽃다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 ‘시들’은 잘못된 경우로, 어간 ‘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 ‘시든’이 된다.
- ③ 낯설은 땅에 정착한 주민들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 ‘낯설’은 잘못된 경우로, 어간 ‘낯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 ‘낯선’이 된다.
- ④ 나는 차창 밖으로 내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 ‘내밀’은 잘못된 경우로, 어간 ‘내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 ‘내민’이 된다.
- 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은 구름이 꽤 아름다웠다.
→ ‘물들’은 잘못된 경우로, 어간 ‘물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 ‘물든’이 된다.

22 ‘탐구 관련 지식’을 고려할 때, 문장 성분의 경우 ㉠, ㉡은 체언인 명사 ‘글’을 한정하고 있고, ㉢, ㉣은 용언인 동사 ‘달린다’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하면 ㉠, ㉡은 관형어로, ㉢, ㉣은 부사어로 나눌 수 있다.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 ㉢은 활용할 수 있고, ㉡은 명사 ‘글’을 수식하고 있으며, ㉣은 동사 ‘달린다’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 ㉢은 형용사이고, ㉡은 관형사이며, ㉣은 부사이다.

23 ‘기분이 개다.’는 ‘(비유적으로) 언짢거나 우울한 마음이 개운하고 활가분해지다.’의 의미이므로 ‘개다’ 「2」의 용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개다’, ‘개다’, ‘개다’는 동음이의어이다.
→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를 말하는데, 사전에서 ‘개다’, ‘개다’, ‘개다’와 같이 표시하여 각각의 단어로 등재한다.
- ③ ‘개다’의 용례로 ‘가루약을 찬물에 개어 먹다.’를 들 수 있다.
→ ‘개다’는 가루에 물을 타 서로 섞이거나 풀어지도록 으개거나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가루약을 찬물에 개어 먹다.’라는 문장은 이 뜻의 용례로 적절하다.
- ④ ‘개다’의 반의어로 ‘퍼다’를 들 수 있다.
→ ‘개다’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접어서 포개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반의어로는 ‘접히거나 개킨 것을 젖히어 벌리다.’라는 뜻의 ‘퍼다’가 적절하다.
- ⑤ ‘개다’는 ‘개다’와 달리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사전에서 ‘개다’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을】임이, 즉 목적어임이 나타나 있다. ‘개다’에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이부자리를 개고 방을 청소하다.’와 ‘비가 개다.’라는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념 16 문장 성분

본문 78~83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어절 4 맺고 있으며
 5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6 노란 7 주성분 8 ○ 9 ×
 10 주성분 11 보어 12 자릿수 13 서술어 14 키운다, 두,
 준다, 세 15 × 16 × 17 부사어, 관형어 18 부사어
 19 부사어, 관형어 20 우아 21 관형어

학습 활동 ① 절 ② 저 꽃은 아주 희다 ③ 구 ④ 매우 밝고
 ⑤ 저 꽃은 ⑥ 어절 ⑦ 성립하므로 ⑧ 해당하지 않는다
 ⑨ 성립하므로 ⑩ 해당하지 않는다 ⑪ 성립하지 않으므로
 ⑫ 해당한다 ⑬ 주어+보어+서술어 ⑭ 주어+서술어 ⑮ 주
 어+목적어+서술어 ⑯ 작다, 발발하다 ⑰ 먹다, 아니다 ⑱ 넣
 다, 여기다 ⑲ 주인공의, 모든, 저 ⑳ 아주, 이것보다 ㉑ 형용사
 '예쁘구나' ㉒ 부사어 ㉓ 아이가, 밥을, 먹는구나 ㉔ 예쁜, 맛있게
 ㉕ 어머니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⑤ 03 ④ 04 ① 05 ②
 06 보어, 목적어 07 ③ 08 ④ 09 행복

01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법 단위는 '구'이다. ②에서 '산이 높고'와 '물이 맑다'는 각각 둘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는 '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와 '절'은 문장 안에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으면 '절'이 되고,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구'가 된다. 한편, '문장'과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문장'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절'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쓰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오답 풀이

- ① 날씨가 정말 덥다.
 → 어절 단위로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날씨가(주어) 정말(부사어) 덥다(서술어)'이다. '정말 덥다'는 '부사+형용사'로 구성된 형용사구로, 제시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③ 아이가 새 신발을 신었다.
 → 어절 단위로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아이가(주어) 새(관형어) 신발을(목적어) 신었다(서술어)'이다. '새 신발'은 '관형사+명사'로 구성된 명사구로,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제시된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 ④ 그녀는 창을 활짝 열었다.
 → 어절 단위로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그녀는(주어) 창을(목적어) 활짝(부사어) 열었다(서술어)'이다. '활짝 열었다'는 '부사+동사'로 구성된 동사구로, 제시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⑤ 치타가 가장 빨리 달린다.
 → 어절 단위로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치타가(주어) 가장(부사어) 빨리(부사어) 달린다(서술어)'이다. '가장 빨리'는 '부사+부사'로 구성된 부사구로 제시된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며, 이것은 다시 뒤에 있는 '달린다'와 함께 동사구를 이룬다.

문법 짚고 가기 '구'의 종류

우리말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중 하나인 '구'의 종류는 그 구에서 중심이 되는 말의 품사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이 차'는 관형사 '이'와 명사 '차'가 모여 이루어진 말인데, 중심이 되는 말이 '차'이므로 '이 차'라는 구의 종류는 명사구가 된다.

- 예 • 아기가 방실방실(부사) 웃는다(동사). → 동사구
 • 그녀는 매우(부사) 성실하다(형용사). → 형용사구
 • 이것은 아주(부사) 새(관형사) 옷이다. → 관형사구
 • 눈이 참(부사) 많이(부사) 내린다. → 부사구

02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주어
 →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② 보어
 → 체언에 조사 '이/가'가 붙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③ 서술어
 →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④ 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03 문장 성분 중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④의 '거기서'는 부사어로,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으로 생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그는 아버지를 존경해.
 → '아버지'는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로, 주성분으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 ② 나는 커서 군인이 되고 싶어.
 → '군인'은 체언에 조사 '이'가 붙어 서술어 '되다'를 보충하는 보어로, 주성분으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 ③ 주영이는 앉아서 편지를 쓴다.
 → '쓴다'는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로, 주성분으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 ⑤ 영미는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 '영미'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로, 주성분으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04 '그는 물만 마신다.'에서 서술어 '마신다'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물만'은 목적격 조사 '을' 대신 보조사 '만'이 결합된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는 사진과 똑같다.
 → 서술어 '똑같다'는 주어 이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은 주어이고, '사진과'는 명사 '사진'에 부사격 조사 '과'가 붙은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③ 철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 이외에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철수는'는 주어이고, '고등학생이'는 명사 '고등학생'에 조사 '이'가 붙은 보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젊은이가 노인으로 변신했다.

→ 서술어 '변신했다'는 주어 이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젊은이가'는 주어이고, '노인으로'는 명사 '노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은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⑤ 나는 숙제를 선생님에게 제출했다.

→ 서술어 '제출했다'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은 주어이고, '숙제를'은 명사 '숙제'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목적어이며, '선생님에게'는 명사 '선생님'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은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문법 짚고 가기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는 관형어와 함께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으로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므로, 대체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다', '삼다', '주다', '달다', '똑같다', '다르다', '다투다', '만나다' 등과 같은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예 • 딸이 아빠와 달았다.(*딸이 달았다.)

- 나는 너와 다르다.(*나는 다르다.)
- 나는 학교에 간다.(*나는 간다.)
- 그는 나를 양자로 삼았다.(*그는 나를 삼았다.)
- 나는 책을 사물함에 두었다.(*나는 책을 두었다.)

05 '되다'는 '아니다'와 함께 주어 이외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다. ②는 '일이'와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이며, '영망진창이'는 명사 '영망진창'에 조사 '이'가 붙은 보어이다.

오답 풀이

① 영어를 공부하다. → 1개

→ '영화가 영어를 공부하다'에서 '영화가'와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서술어 '공부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얼굴이 참 예쁘다. → 2개

→ 서술어 '예쁘다'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참'은 뒤의 형용사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④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 3개

→ 서술어 '모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는 뒤의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⑤ 민수가 서울에 방금 도착했다. → 3개

→ 서술어 '도착했다'는 주어와 '서울에'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방금'은 뒤의 동사 '도착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06 '되다'는 주어('나는') 이외에 '경찰이'와 같은 보어를, '지키다'는 주어 이외에 '시민들을'과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 성분의 종류는 보어와 목적어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다.'의 문장에 쓰인 서술어는 몇 개인가요?

A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먹고 싶다', '가지 않다'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본용언인 '먹다', '가다'와 달리 보조 용언인 '싶다', '않다'는 '*나는 사과를 싶다.', '*나는 학교에 않다.'처럼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은 이것을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합니다.

07 '저 남자가 그 공을 힘껏 던졌다.'에서 '저'와 '그'는 각각 뒤에 오는 체언 '남자', '공'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힘껏'은 뒤에 오는 서술어 '던졌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넓은 집이 좋다.

→ '넓은'은 뒤에 오는 명사 '집'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집이'는 주어이며, '좋다'는 서술어이다. 관형어는 쓰였으나 부사어가 쓰이지 않았다.

② 이리 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 '이리'와 '자세히'는 뒤에 오는 동사 '와서'와 '이야기하자'를 각각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와서'와 '이야기하자'는 서술어이다. 부사어는 쓰였으나 관형어가 쓰이지 않았다.

④ 내 동생은 바다의 풍경을 좋아한다.

→ '나의'의 줄임말인 '내'와 '바다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 이루어진 관형어이고 '동생은' 주어이며, '풍경은' 목적어이고, '좋아한다'는 서술어이다. 관형어는 쓰였으나 부사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철수야, 저것이 너의 장수풍뎡이란다.

→ '철수야'는 독립어이고, '저것'은 주어이며, '너의'는 관형어, '장수풍뎡이란다'는 서술어이다. 관형어는 쓰였으나 부사어가 쓰이지 않았다.

08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④는 '성난(관형어) 파도가(주어) 바윗돌에(부사어) 철썩철썩(부사어) 부딪힌다(서술어)'로 주성분 2개, 부속 성분 3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형이 책을 샀다. → 주성분 2개, 부속 성분 1개

→ '형이(주어) 책을(목적어) 샀다(서술어)'로 3개의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민지는 친구를 잘못 만났다. → 주성분 2개, 부속 성분 2개

→ '민지는(주어) 친구를(목적어) 잘못(부사어) 만났다(서술어)'로 주성분 3개, 부속 성분 1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③ 갑자기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 주성분 3개, 부속 성분 1개

→ '갑자기(부사어) 물이(주어) 얼음으로(부사어) 변했다(서술어)'로 주성분 2개, 부속 성분 2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⑤ 태성이는 후배들에게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 주성분 4개, 부속 성분 1개

→ '태성이는(주어) 후배들에게(부사어) 케이크를(목적어) 선물로(부사어) 받았다(서술어)'로 주성분 3개, 부속 성분 2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09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로, '예구머니'와 같은 감탄사, '철수야'와 같이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은 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의 '청춘'과 같은 제시어가 독립어에 해당한다. '행복,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에서 '행복'은 제시어의 형태가 독립어가 된 경우이다.

-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② 07 ③
08 ① 09 ⑤ 10 ③ 11 ①

01 절은 문장과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다.
→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으로, 의미상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문장 부호)가 있고 구성상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것을 가리킨다.
-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 문장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떡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기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이야!', '정말?', '어서 가라.'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주어와 서술어를 완전하게 갖추지 않고 생략하더라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뉘며 총 7가지가 있다.
→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다.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국어에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문장에 필요한 성분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 우리말은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웃다'는 주어 하나만을, '되다, 아니다'의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를, '먹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서술어가 문장에 필요한 성분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 문장에서 관형어는 부사어와 함께 부속 성분이지만 부사어와 달리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인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반드시 체언 앞에 와야 한다. 그러나 부사어는 용언이나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하므로, '의외로 그는 침착했다.' / 그는 의외로 침착했다. / 그는 침착했다. 의외로'와 같이 관형어에 비해 위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종류	특징	예문
한 자리 서술어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함	꽃이 피었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함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함	형은 산에 갔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함	그는 사람이 아니다.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함	언니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⑤의 '남자가'는 체언에 조사 '이/가'가 붙어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오답 풀이

- 미소가 학교에 간다.
→ '미소가'는 명사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해 실현된 주어로, '간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 정윤아, 너 밥 먹었니?
→ '정윤아, 너(는) 밥(을) 먹었니?'에서 '너'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성립된 주어로, '먹다'라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 '할머니께서는'은 명사에 주격 조사 '께서'와 보조사 '는'이 결합해 실현된 것으로, 서술절 '귀가 밝으시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났다.
→ '무지개가'는 명사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해 실현된 주어로, 동사 '나타났다'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 머칠이 지나자 아이의 볼에 발진이 생겼다.
→ '발진이'는 명사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 실현된 주어로, 동사 '생겼다'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03 서술어 '그리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진히는'이 주어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문장 성분으로는 '그림을'과 같은 목적어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주어
→ '진히는'이라는 주어가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 성분이 아니다.
- 보어
→ 보어는 주어와 함께 주성분으로,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주어 외에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뒤에 오는 서술어가 '그린다'이므로 보어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 성분이 아니다.
- 관형어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으로 주성분이 아니다.
- 부사어
→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으로 주성분이 아니다.

04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고, '되다, 아니다'와 같은 불완전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④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나는(주어) 바람을(목적어) 타고(서술어) 푸름이(보어) 된다(서술어).'로, 목적어와 보어 모두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
→ '도대체(부사어) 그녀는(주어) 누구였을까(서술어)?'로, 목적어와 보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그는 절대로 범인이 아니다.
→ '그는(주어) 절대로(부사어) 범인이(보어) 아니다(서술어).'로,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확실히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확실히(부사어) 소리가(주어) 밖에서(부사어) 들렸다(서술어).'로, 목적어와 보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주영아, 너 그 신발을 언제 샀니?
→ '주영아(독립어), 너(주어) 그(관형어) 신발을(목적어) 언제(부사어) 샀니(서술어)?'로, 보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05 ‘아이고’는 독립어, ‘너’는 주어, ‘음식에’는 부사어, ‘소금을’은 목적어, ‘조금만’은 부사어, ‘넣어라’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는 관형어가 쓰이지 않았다.

06 ‘표정이 밝다.’, ‘달이 (휘영청) 밝다.’는 서술어가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수민이가) 지리에 밝다.’는 주어 이외에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와 같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은 ‘무엇이 어떠하다’, ㉡과 ㉢은 ‘무엇이 어찌하다’의 기본 구조를 갖춘 문장이다.
- ③ ㉠의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이외에 부사어를 추가해야만 문장의 의미가 정확해진다.
- ‘성호가 돈을 은행에 맡겼다.’와 같이 서술어 ‘맡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에 부사어를 추가하면 성호가 누구에게 돈을 맡겼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정확해진다.
- ④ ㉢의 ‘집에서’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 서술어 ‘먹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사인 ‘집에서’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⑤ ㉠~㉢을 통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음을 알 수 있다.
- ㉠의 ‘밝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의 ‘맡겼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 ㉢의 ‘먹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을 통해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음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문법 Q&A

Q ‘정신이 둘다.’와 ‘운동장을 둘다.’의 ‘둘다’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은가요?
A 두 문장에 쓰인 서술어는 ‘둘다’라는 같은 동사이지만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지 않습니다. ‘정신이 둘다.’의 ‘둘다’는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 반면, ‘운동장을 둘다.’의 ‘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이처럼 서술어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 그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다’와 같이 하나의 용언이 다양한 자릿수를 가지는 것에는 ‘밝다’, ‘만들다’, ‘멈추다’ 등이 있습니다.

07 ㉢의 ‘천안이’ ㉣의 ‘때가’, ㉤의 ‘메주가’는 모두 서술어 ‘아니다(야)’와 ‘된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한편, ㉡는 ‘마음씨가 곱다.’라는 절이 ‘춘향이가’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으로, ‘춘향이가’와 ‘마음씨가’는 주어이다. ㉣의 ‘되다’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되다’의 동음이의어로서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라는 뜻을 지닌 한 자리 서술어이다.

08 ‘바로’는 뒤에 오는 용언인 ‘전화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며,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코끼리의 코가 길다.
- ‘코끼리의’는 명사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관형어로 뒤에 오는 명사 ‘코’를 꾸며 준다.

- ③ 철수가 헌 가방을 버렸다.
- ‘헌’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로, 뒤에 오는 명사 ‘가방’을 꾸며 준다.
- ④ 내가 빌려준 책을 돌려 다오.
- ‘내가 빌려준’은 ‘내가 책을 빌려주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관형어가 된 경우로, 뒤에 오는 명사 ‘책’을 꾸며 준다.
- ⑤ 화단에 노란 유채꽃이 피었다.
- ‘노란’은 ‘유채꽃이 노랗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으면서 ‘유채꽃’이 생략된 형태로 관형어가 된 경우로, 뒤에 오는 명사 ‘유채꽃’을 꾸며 준다.
- ⑥ 저 두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
- ‘저 두’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로, 뒤에 오는 명사 ‘학생’을 꾸며 준다.
- ⑦ 박찬호 선수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다.
- ‘우리는’ 체언(대명사) 단독으로 관형어가 된 경우로, 뒤에 오는 명사 ‘고장’을 꾸며 준다.

09 ‘영희야, 여기 앉아.’에서 호칭어인 ‘영희야’는 체언에 붙은 조사를 생략하여 ‘영희, 여기 앉아.’와 같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독립어를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독립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며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철수야, 학교에 가자.’, ‘그래, 나는 집에 갈래.’라는 문장에서 독립어인 ‘철수야’와 ‘그래’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 ② ‘성공’과 같은 제시어도 독립어가 될 수 있다.
- 독립어는 감탄사,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은 호칭어, 제시어와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 ‘성공’은 제시어가 독립어가 된 경우이다.
- ③ ‘네’, ‘와’와 같은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된다.
- ‘네’는 응답, ‘와’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이처럼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는 그대로 독립어가 된다.
- ④ 독립어는 주로 문장의 처음에 놓여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낸다.
-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어는 주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 ‘와’와 같은 느낌, ‘영희야’와 같은 부름, ‘네’와 같은 응답 등을 나타낸다.
- ⑤ 호칭어나 제시어가 독립어일 때, 문장에서 독립어와 일치하는 말이 생략되거나 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
- ‘영희야, (너는) 여기 앉아.’, ‘성공, 이는(성공은) 내 삶의 원동력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칭어나 제시어가 독립어가 될 때에는 이어지는 문장 속의 한 성분과 일치하는데, 이 경우 독립어와 일치하는 말이 생략(‘너는’되거나 대명사(‘이’)로 바뀐다.

10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이다. 우리말에서 하나의 서술어는 하나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매고(본용언) 있다(보조 용언)’와 같이 둘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③ ‘그는 벡타이를 매고 있다.’는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아이가 새 신발을 신었다.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쓰인 문장이다.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새’는 뒤에 오는 체언(명사)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② 날씨가 매우 춥다. → ‘춥다’가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매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아니다.
- ‘춥다’는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로, 부사어 ‘매우’는 생략할 수 있는 부속 성분이다.

- ④ 신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독립어인 '신이시여'와 그 뒤에 이어지는 주어 '당신은'이 의미상 일치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진호는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다. →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보어 '중학생이'를 생략할 수 없다.
- '진호는 중학생이 아니라 (진호는) 고등학생이다.'는 '주어+보어+서술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므로 '중학생이'라는 보어를 생략할 수 없다.
- ⑥ 난 국밥 좋아해. → '좋아해'가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국밥'에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 '좋아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난(나는) 국밥(을/도/만) 좋아해.'와 같이 명사 '국밥' 뒤에 붙을 수 있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보조사 '도/만' 등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할 때, '국밥' 뒤에 어떤 형태의 조사가 붙더라도 문장 성분('국밥을', '국밥도', '국밥만')은 목적어이다.

11 '형'은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나타난 관형어로, 제시된 문장에서 의존 명사 '것'을 꾸미고 있으므로 생략할 경우 '그 차는 것이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비슷하다'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의존 명사 앞의 관형어나 필수 부사어는 생략할 경우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불행했다.
내가 본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다.
- '소크라테스는 불행했다.', '내가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와 같이 각각 관형어인 '철학자인'과 부사어인 '정말'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③ 친구가 이 컴퓨터를 수리해 주었다.
큰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 '친구가 컴퓨터를 수리해 주었다.'와 같이 관형어 '이'는 생략할 수 있으나, '큰아버지께서 나를 삼으셨다.'와 같이 부사어인 '양자로'는 생략할 수 없다. '삼으셨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식당은 밥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잘난 척을 한다.'와 같이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밥을 먹는'과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아는 것도 없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⑤ 민호는 외딴 시골로 이사를 갔다.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민호는 시골로 이사를 갔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와 같이 관형어인 '외딴'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 '모름지기'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관형어가 꼭 필요한 경우

- 의존 명사일 때: '불이 되면 새파란 것이 돌아난다.'나 '구경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에서 보듯이, '것', '뿐'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관형어가 필요하다.
- 관형어(관형절)가 없으면 부자연스러울 때: '그녀가 예쁘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에서 보듯이, '소문', '사실', '기사', '생각' 등과 같은 명사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관형어가 필요하다.

개념 17 문장의 짜임

본문 86~89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 4 ○ 5 겹문장

6 -(으)ㅁ, -기 7 관형사절 8 안은문장 9 명사절 10 ㉠: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11 서술어 12 직접, 간접 13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14 × 15 × 16 ○ 17 × 18 ○ 19 부사절 20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서술절

학습 활동 ① 홀문장 ② 겹문장 ③ 홀문장 ④ 겹문장

⑤ 홀문장 ⑥ ㉡, ㉢ ⑦ ㉠, ㉣ ⑧ ㉡ ⑨ ㉠ ⑩ ㉢ ⑪ -아서 ⑫ 종속 ⑬ -나 ⑭ 대등 ⑮ -으면 ⑯ 종속 ⑰ -으려고 ⑱ 종속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1 '철수가 집에 다녀갔음이 분명하다.'는 '철수가 집에 다녀갔음'이라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겹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정원에 국화꽃이 활짝 피었다.
→ '정원에는' 부사어, '국화꽃이'는 주어, '활짝'은 부사어, '피었다'는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② 나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 '나는'은 주어, '그 아이의'는 명사구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만들어진 관형어, '부모가'는 보어, '아니다'는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③ 오늘 나는 선생님께 성적표를 받았다.
→ '오늘'은 부사어, '나는'은 주어, '선생님께'는 부사어, '성적표를'은 목적어, '받았다'는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④ 영화가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다.
→ '영화'는 주어, '운동장에서는' 부사어, '줄넘기를'은 목적어, '하고 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02 '아이들은 눈이 오기를 고대했다.'에서 '눈이 오기'는 '눈이 오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오답 풀이

- ① 공기가 맑고 시원하다.
→ '공기가 맑다.'라는 문장과 '공기가 시원하다.'라는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공기가 맑고'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앞 절에 해당한다.
- ② 오늘은 맛있는 반찬이 급식으로 나온다.
→ '(반찬이) 맛있는'은 '반찬이 맛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로서 뒤에 오는 체언 '반찬'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이다.
- ③ 우리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졌다.
→ '우리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문장과 '우리는 경기에서 졌다.'라는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우리는 경기에서) 졌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뒤 절에 해당한다.

⑤ 나는 진달래가 벌써 피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 '진달래가 벌써 피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로서 뒤에 오는 체언 '기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이다.

03 '동생이 이야기책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이야기책이 마침내 출간되었다.'의 문장에 관형사절('동생이 만든')로 안겨 뒤에 오는 명사 '이야기책'을 꾸미는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즉, '동생이 만든 이야기책이 마침내 출간되었다.'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4 '기후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는 '식물이 자라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따라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선생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안은문장의 주어인 '선생님께서'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그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 '그가 귀국한다.'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관형사절로 안겨 안은문장에서 뒤에 오는 명사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나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그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으)며'와 결합하여 명사절로 안겨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아내가 딸에게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인용하는 문장인 '어서 일어나.'에 큰따옴표를 쓰고 조사 '라고'를 붙여 실현된 직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나요?

A 명사절은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명사는 체언으로서 문장에서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명사절이 부사어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명사절에 부사격 조사를 결합하면 명사절도 문장 안에서 부사절처럼 부사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절 전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그 절이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사형 어미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05 '나는 국어를 좋아하나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나는 국어를 좋아하다.'와 '나는 수학은 좋아하지 않다.'라는 두 개의 흠문장을 연결 어미 '-나'를 사용하여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오답 풀이

- ① 비가 오니까 외출하지 않겠다.
→ 연결 어미 '-니까'를 사용하여 '비가 오다.'와 '(나는) 외출하지 않겠다.'라는 두 개의 흠문장을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 연결 어미 '-수록'를 사용하여 '학년이 올라가다.'와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두 개의 흠문장을 '더함'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길이 얼었거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 연결 어미 '-거든'을 사용하여 '길이 얼었다.'와 '(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라는 두 개의 흠문장을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경기에 패배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 연결 어미 '-든지라도'를 사용하여 '(우리는) 경기에 패배하다.'와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두 개의 흠문장을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연결 어미를 통해 구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꿔 의미가 같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며, 의미가 달라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는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와 같이 써도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면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다.'와 같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해집니다. 또한 앞 절을 뒤 절 사이에 넣어 문장이 성립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에서 앞 절인 '눈이 오고'를 뒤 절인 '바람이 분다.' 사이에 넣으면 '바람이 눈이 오고 분다.'가 되는데 이 경우 원래 문장의 의미와 달라집니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와 같이 바꾸어 써도 문장의 의미는 같습니다.

06 '영희는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와 같이 '-는데'는 두 개의 흠문장을 '배경'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 ① -며
→ '경치가 좋으며 인심이 넉넉하다.'와 같이 '-(으)며'는 두 개의 흠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 ② -지만
→ '당치는 크지만 힘은 약하다.'와 같이 '-지만'은 두 개의 흠문장을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 ③ -든지
→ '비가 내리든지 눈이 오든지 하겠다.'와 같이 '-든지'는 두 개의 흠문장을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 ⑤ -거나
→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하겠다.'와 같이 '-거나'는 '-든지'와 함께 두 개의 흠문장을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문법 짚고 가기 연결 어미의 종류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지만' 등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어서', '-(으)면', '-(으)려고' 등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등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는 절을 연결하여 겹문장을 이루고, 보조적 연결 어미는 분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여 흠문장을 이룬다.

- 01 ⑤ 02 ① 03 ⑥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③ 09 ① 10 두 사람은 집이 멀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못 만
났다. 11 ⑤

01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안아서 겹문장이 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하고, 홀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겹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진다.
→ 겹문장에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다. 안은문장은 하나의 홀문장을 명사절, 관형사절 등과 같이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것이고, 이어진 문장은 두 개의 홀문장이 앞 절과 뒤 절로 대등하거나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겹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면 홀문장이다.
→ '꽃이 피었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홀문장,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꽃이 피었다.+꽃이 아름답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다.
- ③ 홀문장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홀문장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크게 다른 홀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으로 만드는 방식과 둘 이상의 홀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 이어진문장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
- ④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명사절,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는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2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이다. 겹문장에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다. ① '나는 사탕이 제일 맛있다.'는 '사탕이 제일 맛있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므로 겹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② 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아니다.
→ '그 문제의(관형어) 정답은(주어) 1번이(보어) 아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그 문제의'는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관형어+관형어'이지만 구 단위로 분석하면 '그 문제'라는 명사구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관형어로 볼 수 있다.
- ③ 철수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 '철수도(주어) 대회에(부사어) 참가하게 되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참가하게 되었다'는 분용언과 보조 용언이 보조적 연결 어미 '-게'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하나의 서술어이다.
- ④ 아이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나?
→ '아이코(독립어), 이게(주어) 대체(부사어) 무슨(관형어) 일이나(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⑤ 우리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 '우리는(주어) 학교에서(부사어) 국어 문법을(목적어) 배웠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국어 문법을'은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관형어+목적어'이지만 구 단위로 분석하면 '국어 문법'이라는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⑥ 민호와 영화는 반에서 일등을 다투었다.

→ '민호와 영화는(주어) 반에서(부사어) 일등을(목적어) 다투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서술어 '다투었다'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 '와/과'의 부사격 조사에 붙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즉, ⑥은 '민호는 반에서 일등을 다투었다.'와 '영화는 반에서 일등을 다투었다.'의 두 개의 홀문장이 결합된 겹문장으로 볼 수 없다.

문법 짚고 가기

두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

'마주치다, 부딪치다, 만나다, 대면하다, 싸우다, 다투다,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등과 같이 서술어가 두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나래와 소희가 싸웠다.'라는 문장에서 싸우는 행위는 혼자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장은 홀문장으로 본다. 이때 '와/과'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의미상 대등한 두 대상 사이에 쓰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접속 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 '싸우다'가 반드시 두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로 보면 '나래와 소희'가 복합 주어이고, 후자의 견해로 보면 '나래와'가 부사어, '소희가'가 주어이다. 학교 문법은 후자 견해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0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은 명사절이다. '나는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했다.'는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뒤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홀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해 뒤에 오는 명사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 '소리도 없다.'라는 홀문장이 '-이'와 결합해 뒤에 오는 용언 '다가온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맑이는 집에 있고 막내는 밖에 나갔다.
→ '맑이는 집에 있다.'와 '막내는 밖에 나갔다.'라는 두 개의 홀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선생님께서 지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 '지금 교무실로 와.'라는 선생님의 말이 인용격 조사 '고'에 의해 간접 인용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⑤ 아저씨는 길에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 '아저씨는(주어) 길에서(부사어) 자동차 열쇠를(목적어) 잃어버렸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자동차 열쇠를'은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관형어+목적어'이지만 구 단위로 분석하면 '자동차 열쇠'라는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 ⑦ 밤하늘에 피어나는 꽃이 당신 눈에 새겨집니다.
→ '(꽃이) 밤하늘에 피어나다.'라는 홀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해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걱정된다.
→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다.'와 '모든 것이 걱정된다.'라는 두 개의 홀문장이 종속적 연결 어미 '-는데'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4 '할머니 댁에 가게 새 옷을 꺼내 입어라.'에서 '새'는 뒤에 오는 체언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의 '나는 아내가 감기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에서 '아내가 감기에 걸린'은 '아내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사절로, 뒤에 오는 체언인 '사실'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다.
→ '드디어'는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 '합격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웃집 강아지는 털이 참 부송부송하다.
→ '털이 참 부송부송하다'라는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로, 앞에 있는 주어인 '이웃집 강아지는'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우리 집 마당에는 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 '감이 탐스럽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게'가 결합한 부사절로, 뒤에 오는 용언인 '열려 있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음식을 하기는 어려워도 먹는 것은 순식간이다.
→ '음식을 하다'라는 홀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로, 보조사 '는'이 붙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⑥ 한 아주머니가 "이 근처에 혹시 병원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 직접 인용절로, 큰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⑦ 선생님께서서는 남쪽에는 평야가 많으며 북쪽에는 산이 많다고 설명하셨다.
→ 간접 인용절로,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05 「수렵도」는 고구려 옛 무덤의 벽면에 그린 그림이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옛사람들이」 고구려 옛 무덤의 벽면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사절이다. 이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 '그림'은 관형사절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지만 생략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는 모두 홀문장을 안은문장에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문장이 확대되고 있다.
→ ㉠은 명사절, ㉡와 ㉢는 부사절, ㉣는 인용절, ㉤는 관형사절을 각각 안은 문장이다.
- ② ㉡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로, 「창호가 천재임이 드러났다」의 안긴문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다. ㉡의 「그가 돌아오기」는 「그가 돌아오다」라는 홀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창호가 천재임」은 「창호가 천재이다」라는 홀문장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명사절로 모두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와 ㉢는 안긴문장의 개수가 다르지만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 ㉡는 「키가 작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 「아빠와 달리」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으므로 안긴문장의 개수는 2개이다. ㉢는 「애플런스가 지나가도록」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안긴문장의 개수는 1개이다.
- ④ ㉣를 직접 인용으로 나타내면 「나는 부모님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했다」이다.
→ 명령문은 간접 인용절로 간접 때 종결 어미가 '-라'로 통일되고 요청을 뜻하는 '주다'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달라'로 바뀐다. 따라서 ㉣를 직접 인용으로 다시 바꾸면 「나는 부모님께 "제발 도와주시시오"라고 애원했다」, 또는 「나는 부모님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했다」와 같은 문장이 된다.

06 「할머니께서 집에 누가 오느냐고 물으셨다」는 「집에 누가 오느냐」라는 다른 사람(할머니)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길이 비가 와서 질다.

- 「비가 와서」는 「비가 오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 ②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 「아름답게」는 「(별이) 아름답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빛나고 있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 ④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에 찾아왔다.
→ 「아무런 예고도 없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이'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찾아왔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 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발에 땀이 나도록」은 「발에 땀이 나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뛰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 ⑥ 병사들은 멧돼지가 돌진하듯이 적진으로 달려들었다.
→ 「멧돼지가 돌진하듯이」는 「멧돼지가 돌진하다」라는 홀문장에 어미 '-듯이'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달려들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07 특정한 전성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고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를 지니는 것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설악산이 경치도 수려하다.㉠」은 「경치도 수려하다」라는 홀문장이, 안은문장의 주어인 「설악산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 책은 글자체가 세련됐다.㉡」은 「글자체가 세련됐다」라는 홀문장이, 안은문장의 주어인 「이 책은」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풀이

- ㉠ 호랑이의 힘이 세다.
→ 「호랑이(의)의(관형어) 힘(주어) 세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 서울이는 가수가 되었다.
→ 「서울이는(주어) 가수(가)보어) 되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 어제 먹은 자장면을 또 먹고 싶다.
→ 「어제 (자장면을) 먹었다」라는 홀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실현된 관형사절 「어제 먹은」이 뒤에 오는 명사 「자장면」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08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고, -며, -나, -지만」 등의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태희는 얼굴도 예쁘며 공부도 잘한다」는 「태희는 얼굴도 예쁘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과 「태희는 공부도 잘한다」는 홀문장이 연결 어미 「-며」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미세 먼지가 많으니 창문을 닫아라.
→ 「미세 먼지가 많다」와 「창문을 닫아라」의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 어미 「-으니」를 통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철호는 병원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 「철호는 병원에 가다」와 「(철호는) 버스를 탔다」의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 어미 「-려고」를 통해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내일 비가 올지라도 약속 장소로 나가겠다.
→ 「내일 비가 오다」와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가겠다」의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 어미 「-르지라도」를 통해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민철이가 시냇물에 조약돌을 던지고 있었다.
→ '민철이가(주어) 시냇물에(부사어) 조약돌을(목적어) 던지고 있었다(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⑥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홑문장에 '-고'가 결합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접 인용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⑦ 형과 결혼하는 신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 '형과 (신부가) 결혼하다.'라는 홑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해 만들어진 관형사절이 뒤에 오는 명사 '신부'를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09 ①에서 만들어지는 이어진문장은 '비가 오고 번개가 친다.'로, '비가 오다.'와 '번개가 친다.'의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두 개의 홑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② 배가 아프다.(홑문장) + -(아)서((어미) + 병원에 간다.(홑문장)
→ ②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로 '원인'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국민이 없다.(홑문장) + -(으)면(어미) + 나라가 없다.(홑문장)
→ ③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로,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까마귀가 날다.(홑문장) + -(자)(어미) + 배가 떨어진다.(홑문장)
→ ④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로, '동시'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이를 닦는다.(홑문장) + -아도(어미) + 악취가 난다.(홑문장)
→ ⑤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이를 닦아도 악취가 난다.'로,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0 제시된 글에서 '두 사람은 집이 멀어서 그동안 못 만났다.'는 '원인'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어서'를 사용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두 개의 홑문장으로 나누면 '두 사람은 집이 멀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못 만났다.'가 된다.

11 직접 인용절은 조사 '라고'가 결합하여 만들어지지만, 간접 인용절은 조사 '고'가 붙어 실현된다. 따라서 ⑤는 '에머슨은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 → 예쁜 꽃이 피었다.(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 '꽃이 예쁘다.'라는 홑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실현된 관형사절 '예쁜'이 '꽃이 피었다.'의 홑문장에 안겨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 되었다.
- ② 나는 무섭다. 나는 공포 영화를 본다. → 나는 공포 영화를 보기가 무섭다.(명사절을 안은 문장)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실현된 명사절 '나는 공포 영화를 보기가' '나는 무섭다.'의 홑문장에 안겨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 되었다.
- ③ 너는 군대를 가라. 너는 유학을 가라. → 너는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라.(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제시된 두 홑문장이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었다.

- ④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제시된 두 홑문장이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었다.

개념 18 문법 요소 ①: 종결 표현

본문 92~93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평서문 4 청유문 5 종결 어미 6 판정, 수사 7 된다, 뭐는구나

학습 활동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동사

⑦ 형용사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① 03 ③

01 '꽃이 참 향기롭구나.'는 감탄형 어미 '-구나'가 붙어 만들어진 감탄문으로,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 '영수가 밥을 먹는다.'와 같은 평서문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 '영수야, 밥을 먹자.'와 같은 청유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 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영수야, 밥을 먹니?'와 같은 의문문에 대한 설명이다.
- ④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 '영수야, 밥을 먹어라.'와 같은 명령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니', '느냐', '는가', '-바니까'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다. 그러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03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로는 동사만이 쓰일 수 있다. ③의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아주아주 건강해라.', '아주아주 건강하자.'와 같이 바꾸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편지를 쓴다.
→ '쓴다'는 동사로,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쓰자.'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② 집에서 놓고 있다.
→ '놓고 있다'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된 것으로, '집에서 놓고 있어라.', '집에서 놓고 있자.'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동생에게 선물을 준다.
→ '준다'는 동사로, '동생에게 선물을 주어라.', '동생에게 선물을 주자.'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다.
→ '부른다'는 동사로, '친구들과 노래를 불러라.',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자.'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개념 확인하기) 1 (1)㉔ (2)㉔ (3)㉔ 2 × 3 ○ 4 하
십시오체, 해요체 5 께서, 께 6 서술의 객체 7 서술의 주체
8 청자

학습 활동 ① 상대 높임 ② 주체 높임 ③ 주격 조사 '께서', 선
어말 어미 '-시-' ④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드렸다(드리다)'
⑤ 해라체 ⑥ 하계체 ⑦ 하오체 ⑧ 하십시오체 ⑨ 해체
⑩ 해요체

(교과서 적용하기) 01 ④ 02 ③ 03 ①

01 ④의 '큰아버지께서는 댁에 계신다.'는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인 '댁, 계시다'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상대 높임: 어르신, 이리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는 상대 높임이 쓰인
표현이다.
- ② 주체 높임: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버니
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즉,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
이 함께 쓰인 표현이다.
- ③ 주체 높임: 이분은 자동차가 없으십니다.
→ '이분'이라는 특수 어휘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서
술의 주체를, '-버니다'의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즉, 주
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함께 쓰인 표현이다.
- ⑤ 객체 높임: 그 일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아라.
→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어(여쭙다)'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어
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아라'의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 대한 상
대 높임(아주낮춤)도 실현하고 있다.

문법 짚고 가기

주체 높임의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 (1)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십니다. → ○ (직접 높임법)
- (2) 할아버지께서 걱정거리가 계십니다. → ×
- (3) 할아버지께서 걱정거리가 있으십니다. → ○ (간접 높임법)

높임의 대상이 서술의 주체일 때 주체를 직접 높이는 표현을 직접 높임
법이라고 하며, (1)의 문장과 같이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적으
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계시다'를 사용한 (2)의 문장은 틀린 표
현인데, 그 이유는 높임 표현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
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직접 높일 수 없다. 이와 같
이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뿐 아니라 소유물, 가족, 생각 등을 높이는 경우
에는 (3)의 문장과 같이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여
야 한다.

02 빈칸에 들어갈 대상 중 최상위자가 누구인지는 서술어에 쓰
인 종결 어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의 '뭍은 좀 괜찮으십니
까?'는 '하십시오체(아주높임)'로, 상대 높임의 등급 중 높임의 정
도가 가장 높다.

오답 풀이

- ① (), 밥 먹어.
→ '먹어'의 '-어'는 명령문에 쓰인 '해체'의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의 등급
중 두루낮춤에 해당한다.
- ② (), 건강하게 지내라.
→ '지내라'의 '-라'는 명령문에 쓰인 '해라체'의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의
등급 중 아주낮춤에 해당한다.
- ④ (), 저기 비행기가 날아간다.
→ '날아간다'의 '-다'는 평서문에 쓰인 '해라체'의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
의 등급 중 아주낮춤에 해당한다.
- ⑤ (), 앞으로 친하게 지냈시다.
→ '지냈시다'의 '-시시다'는 청유문에 쓰인 하오체의 종결 어미로, 상대 높
임의 등급 중 예사 높임에 해당한다.

03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의례
적인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내는 반면, 비격식체는 격
식체에 비해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밀감을 드러낸다. '해
체'는 '해요체'와 함께 비격식체에 속한다.

오답 풀이

- ② 해라체
→ 격식체의 하나로 높임의 정도가 아주낮춤에 해당한다.
- ③ 하계체
→ 격식체의 하나로 높임의 정도가 예사 낮춤에 해당한다.
- ④ 하오체
→ 격식체의 하나로 높임의 정도가 예사 높임에 해당한다.
- ⑤ 하십시오체
→ 격식체의 하나로 높임의 정도가 아주높임에 해당한다.

(개념 확인하기) 1 시제 2 발화시, 사건시 3 선어말 어미,
부사어 4 × 5 × 6 ○ 7 -(으)ㄴ, -던 8 -더- 9
(1) 었 (2) 은 10 현재 시제 11 동작상 12 미래 13 ○
14 × 15 앞서는 16 -는, -(으)ㄴ 17 진행상, 완료상
18 (1)㉔ (2)㉔ (3)㉔

학습 활동 ① 괴로워했다 ② 스치운다 ③ 걸어가야겠다
④ 했다/하였다 ⑤ 본 ⑥ 재미있었다 ⑦ -았- ⑧ 과거
⑨ -ㄴ ⑩ 미래 ⑪ 지금 ⑫ 현재 ⑬ 완료상 ⑭ 진행
상 ⑮ 완료상 ⑯ 진행상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어제,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03 ⑤ 04 ④ 05 ㉔: 의지, ㉔: 추측, ㉔: 가능성 06 ③

01 '낚시터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낚시터는 물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
한 문장으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나머지는 모두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얼마 전까지 미성년자였다.
→ '미성년자였다'는 '미성년자+이+-+있+-+다'로, 서술격 조사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 ② 미소는 어린 시절 폐렴을 앓았었다.
→ '앓았었다'는 '앓+-+있었+-+다'로, 동사 어간에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 ③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더라.
→ '하더라'는 '하+-+더+-+라'로, 동사 어간에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쓰는 선어말 어미 '-더-'가 붙어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 ④ 작년에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 '작년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로,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02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공부하던'에서 '-던'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사람이었다'에서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예쁜'에서 '-ㄴ'은 동사가 아닌 형용사에 붙은 것으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03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갔네'의 '-았-'은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는 '-었-'에 해당한다.
- ② ㉡: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 대학에 붙는 것은 미래의 일로, 여기서의 '-었-'은 미래 일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
→ 코스모스가 활짝 핀 모습을 현재 눈앞에서 보며 진술하는 문장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 어머,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
→ 현재 물건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④의 '제가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는 선어말 어미 '-겠-'이 쓰인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내 동생은 중학생이다.
→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선어말 어미 없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 ② 우리 아기 잘도 자는구나.
→ 동사 어간 '자-'에 선어말 어미 '-는-'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 ③ 나는 집에서 숙제를 한다.
→ 동사 어간 '하-'에 선어말 어미 '-ㄴ-'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 ⑤ 영수가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 동사 어간 '앉-'에 선어말 어미 '-는-'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05 '나는 범조인이 되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고향도 변했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이걸 할 수 있겠어?(㉢)'에서 '-겠-'은 청자의 가능성성을 나타낸다.

06 '영호는 의자에 앉아 있다.'의 '앉아 있다'는 동사 어간 '앉-'에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보조 용언 '있다'가 결합한 것으로,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옷이 다 말라 간다.
→ '말라 간다'는 동사 어간 '마르-'에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보조 용언 '간다'가 결합한 것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눈이 내리고 있다.
→ '내리고 있다'는 동사 어간 '내리-'에 보조적 연결 어미 '-고'와 보조 용언 '있다'가 결합한 것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그는 산길을 걷는 중이다.
→ '걷는 중이다'는 동사 어간 '걷-'에 '-는 중이다'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정규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 '치면서'는 동사 어간 '치-'에 연결 어미 '-면서'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나는 울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나는 슬프고 있다.'는 왜 어색한 표현일까요?

A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동작상은 반드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동사와 어울린 '울고 있다'는 자연스럽지만, 형용사와 어울린 '슬프고 있다'는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 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00~101쪽

- | | | | | | | |
|------|------|------|------|------|------|------|
| 01 ③ | 02 ⑥ | 03 ④ | 04 ① | 05 ① | 06 ⑤ | 07 ④ |
| 08 ① | 09 ④ | 10 ⑤ | | | | |

01 ㉠은 평서문, ㉡은 판정 의문문, ㉢은 수사 의문문, ㉣은 명령문, ㉤은 청유문, ㉥은 감탄문이다. ㉢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으로서, '아이스크림을 사 줄 수 있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 아이고, 어쩔 수가 없군!
→ 감탄형 종결 어미 '-군'이 쓰인 감탄문이므로 평서문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 독감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의문형 종결 어미 '-냐'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함께 쓰인 의문문으로,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쓰여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따라서 판정 의문문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④ ㉣: 빨리 도서관으로 가지 못하겠느냐?
→ '도서관에 가라'는 명령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느냐'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의 예에 해당한다.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가 쓰인 명령문이므로 청유문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⑥ ①: 선생님을 다시 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 평서형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인 평서문이므로 감탄문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2 ㉠ ‘날씨가 추우니 옷을 두껍게 입게.’와 같은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가 되고, ㉡ ‘비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집에 갑시다.’와 같은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된다.

오답 풀이

- ① ①~⑥을 통해 종결 어미가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고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말은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오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다. 또한 평서문은 평서형 종결 어미,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문은 명령형 종결 어미, 청유문은 청유형 종결 어미,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된다.
- ② ①은 감탄문, ①은 평서문, ③은 의문문, ⑤은 명령문, ⑥은 청유문에 해당한다.
→ ①은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 ③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에 의해 실현된 평서문, ⑤은 의문형 종결 어미 ‘-니까’에 의해 실현된 의문문, ⑥은 명령형 종결 어미 ‘-게’에 의해 실현된 명령문, ⑥은 청유형 종결 어미 ‘-십시오’에 의해 실현된 청유문이다.
- ③ ①~⑥을 높임의 정도에 따라 배열하면 ‘㉠>㉡>㉢>㉣>㉤>㉥’의 순이다.
→ ㉠은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십시오’에 의해 아주높임을, ㉡은 하오체의 종결 어미 ‘-시오’에 의해 예사 높임을, ㉢은 하게체의 종결 어미 ‘-게’에 의해 예사 낮춤을, ㉣과 ㉤은 각각 해라체의 종결 어미 ‘-구나’, ‘-다’에 의해 아주낮춤을 나타낸다.
- ④ ㉠, ㉢, ㉤과 달리 ㉡, ㉤과 같은 유형의 문장은 서술어에 동사만이 올 수 있다는 제약을 지닌다.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은 서술어에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지만, ㉡의 명령문과 ㉤의 청유문은 서술어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이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쓰일 수 없다.
- ⑤ ㉢, ㉤, ㉥의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 ㉡과 차이점이 있다.
→ 의문문은 상대의 대답을, 명령문과 청유문은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지만, 감탄문과 평서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느낌을 표현할 뿐이다. 따라서 ㉢의 의문문, ㉤의 명령문, ㉥의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문장인 반면, ㉠의 감탄문과 ㉡의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없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3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할머니께서는 근심거리가 생기셨다.’는 높임의 대상이 주체 자체가 아니라,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상인 ‘근심거리’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곧 아버지께서 오실 거다.
→ 주격 조사 ‘께서’와 ‘오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 ② 큰형수님, 친정에 다녀오셨어요?
→ 높임의 접미사 ‘-님’과 ‘다녀오셨어요’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큰형수’를 직접 높이고 있다.
- ③ 선생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
→ 높임의 접미사 ‘-님’과 ‘사랑하신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을 직접 높이고 있다.
- ⑤ 어머니께서는 늘 정직하라고 말씀하셨다.
→ 주격 조사 ‘께서’와 ‘말씀하셨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다.

04 주체를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와 같이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만,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와 같이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있으시다’로 쓰는 것이 올바른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②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편찮으시다.
→ 주체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대상인 ‘손’을 높이는 간접 높임 표현이므로, 특수 어휘인 ‘편찮으시다’를 쓸 수 없다. 따라서 ‘아프시다’로 고쳐 써야 한다.
- ③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커피’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 ④ 규태야, 이것 좀 할머니에게 갖다 줘라.
→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줘라(주다)’ 대신 특수 어휘 ‘드려라(드리다)’를 사용해야 한다. 즉, ‘규태야, 이것 좀 할머니께 갖다 드려라.’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저 아주머니께 도서관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 서술의 객체인 ‘아주머니’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물어보다’의 높임말인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 ‘저 아주머니께 도서관이 어디인지 여쭙 보자.’로 고쳐 써야 한다.

05 ①에 제시된 ‘선생님께서 나가신다.’에서는 주체인 ‘선생’을 높이기 위해 높임의 접미사 ‘-님’과 주격 조사 ‘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으로 갔다.’에서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러(모시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모시다’는 ‘테리다’의 높임말이므로, 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영수가 빨리 달린다./삼촌께서 빨리 달리신다. →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일 때 실현된다.
→ 주체 높임은 화자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일 때 사용된다. ‘삼촌께서 빨리 달리신다.’는 서술의 주체인 ‘삼촌’이 화자보다 상위자이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③ 아버지께서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다./할머니, 아버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 청자가 서술의 주체보다 높을 때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지 않을 수 있다.
→ ‘할머니, 아버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에서 청자는 ‘할머니’이고 서술의 주체는 ‘아버지’이다. 이처럼 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일지라도 청자가 서술의 주체보다 높을 때에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압존법’이라고 한다.
- ④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께 여쭙어라./나는 할아버지를 뵈러 춘천에 간다.
→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나 부사어에 붙는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된다.
→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께 여쭙어라.’는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어라(여쭙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나는 할아버지를 뵈러 춘천에 간다.’ 역시 ‘뵈러(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진수야, 어서 일어나./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 문장의 종결 표현을 달리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 ‘진수야, 어서 일어나.’는 해체의 종결 어미 ‘-아’에 의해 청자에 대한 두루낮춤의 태도를,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는 해오체의 종결 어미 ‘-어요’에 의해 청자에 대한 두루높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법 짚고 가기 압존법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와 같이 주체(아버지)가 화자(자식)보다 상위자일지라도 청자(할아버지)가 주체보다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를 쓸 수 없다. 이처럼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청자가 주체보다 더 높을 때 그 공대(상대에게 높임말을 하는 것)를 줄이는 어법을 ‘압존법’이라고 한다.

06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가십니까?(㉠)’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니까’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는 스승께 떠나겠다고 아뢰었다.(㉡)’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아뢰다’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해요체의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07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의 경우 ‘-(으)ㄴ’을, 용언과 서술격 조사의 경우 ‘-던’을 사용한다. 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의 경우 ‘-는’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 ‘-(으)ㄴ’을 사용한다. 그러나 미래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와 달리 품사의 구분 없이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실현된다.

오답 풀이

- ① 시제의 구분 기준은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이다.
→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서 있는 것은 과거 시제, 사건시가 뒤에 있는 것은 미래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즉,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 ②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를 통해 실현된다.
→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았-/-었-’(과거), ‘-는-/-ㄴ-’(현재), ‘-겠-’(미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과거), ‘-는-, -(으)ㄴ’(현재), ‘-(으)ㄹ’(미래), 시간 부사어 ‘어제, 아까’(과거), ‘오늘, 지금’(현재), ‘내일, 장차’(미래) 등을 통해 실현된다.
- ③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꽃이 예쁘다.’, ‘나는 학생이다.’와 같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⑤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품사의 구분 없이 선어말 어미 ‘-겠-’이나 ‘-(으)리-’가 결합해 실현된다.
→ ‘내일 비가 오겠다.’(동사),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형용사), ‘내년이면 너도 초등학교생이겠네.’(서술격 조사), ‘반드시 꿈을 이루리라.’와 같이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품사의 구분 없이 선어말 어미 ‘-겠-’이나 ‘-(으)리-’가 결합해 실현된다.
- ⑥ ‘-았었-/-였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로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인다.
→ ‘-았었-/-였었-’은 ‘-았-/-었-’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나,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었다.’와 같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쓰여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08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민경이는 이따가 올 거야.’에서 ‘올’은 동사 어간 ‘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② 얼룩말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 동사 어간 ‘잡아먹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③ 그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 동사 어간 ‘하-’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④ 명훈이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 동사 어간 ‘공부하-’에 회상 선어말 어미 ‘-더-’가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⑤ 나는 마음씨가 착한 영희를 좋아한다.
→ 형용사 어간 ‘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고, 동사 어간 ‘좋아하-’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⑥ 초등학교생이던 내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다.
→ 서술격 조사 어간 ‘이-’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고, 동사 어간 ‘되-’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9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의 어간에 붙으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형용사의 어간에 붙으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행복한’은 형용사 어간 ‘행복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행복한’이 형용사이므로 여기에 결합한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걸리었습니다.’는 동사 어간 ‘걸리-’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② ㉡: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올라갈’은 동사 어간 ‘올라가-’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③ ㉢: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해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
→ ‘괴로웠던’은 형용사 어간 ‘괴롭-’에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⑤ ㉤: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피어나는’은 동사 어간 ‘피어나-’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⑥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현한다.
→ ‘출리겠습니다’는 동사 어간 ‘출리-’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현한다.

10 ‘아내는 유자차를 마시고 있습니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 평서문으로 문장을 끝맺으면서 청자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본용언에 ‘-고 있다’가 결합해 동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생이 빵을 다 먹어 버렸어.
→ ‘-어’는 비격식체인 해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고, ‘-어 버렸어’는 일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완료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①은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문장이다.
- ② 흰 구름이 하늘에 떠가는구려.
→ ‘-구려’는 격식체인 하오체의 감탄형 종결 어미이며, ②의 문장에는 동작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②는 ‘격식체를 사용해 청자를 높일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문장이다.

- ③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 ‘-어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고, ‘-고 있어요’는 동작의 진행을 표현한다. 따라서 ③은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 동작상 중 진행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두 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문장이다.
- ④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 ‘-습니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평서형 종결 어미이고, ‘-어 있습니다’는 일이 끝난 후 결과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완료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④는 ‘평서문으로 종결할 것, 격식체를 사용해 청자를 높일 것’이라는 두 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문장이다.

개념 21 문법 요소 ④: 피동 표현

본문 102~103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 4 부사어, 주어
5 -리- 6 에게, 에 7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8 ㉠

학습 활동 ① 눈에 ② 밝혀졌다 ③ 구들장이 일꾼에게(일꾼에 의해) 뜯겼다 ④ 아기를 ⑤ 적군이 아군을 ⑥ 여부가 물고기를 잡았다 ⑦ 잡히지 ⑧ 잡-+-히-+-지 ⑨ -히- ⑩ 보입니다 ⑪ 보-+-이-+-ㅂ니다 ⑫ -이- ⑬ 추정되고 ⑭ 추정+~되-+-고 ⑮ ~되다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④

01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주어+부사어+피동사’로 이루어지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컵을 깬다. → 컵이 깨졌다.
→ ‘깨졌다’는 ‘깨-+-어지-+-었-+-다’로,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컵을’은 피동문의 주어 ‘컵이’로 바뀌었다.
- ③ 개가 닭을 쫓는다. → 닭이 개에게 쫓긴다.
→ ‘쫓긴다’는 ‘쫓-+-기-+-ㄴ-+-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닭을’은 피동문의 주어 ‘닭이’로, 능동문의 주어 ‘개’는 피동문의 부사어 ‘개에게’로 바뀌었다.
- ④ 그가 소식을 끊었다. → 그에게서 소식이 끊겼다.
→ ‘끊겼다’는 ‘끊-+-기-+-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소식을’은 피동문의 주어 ‘소식’으로, 능동문의 주어 ‘그가’는 피동문의 부사어 ‘그에게서’로 바뀌었다.
- ⑤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 농장에서 소가 사육된다.
→ ‘사육된다’는 명사 ‘사육’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인 ‘소를’은 피동문의 주어 ‘소가’로 바뀌었다.

02 ‘담겨, 밀렸다, 먹혔다, 팔렸다’가 쓰인 피동 표현은 모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문인 반면, ④의 ‘썩지다’는 ‘쓰-+-어지-+-지’로, 능동사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오답 풀이

- ① 흙이 화분에 담겨 있다.
→ ‘담겨’는 ‘담-+-기-+-어’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①은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 ② 정글이 불도저에 밀렸다.
→ ‘밀렸다’는 ‘밀-+-리-+-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②는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 ③ 개구리가 뱀에게 먹혔다.
→ ‘먹혔다’는 ‘먹-+-히-+-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③은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 ⑤ 아파트가 투자자에게 팔렸다.
→ ‘팔렸다’는 ‘팔-+-리-+-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⑤는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다’는 왜 띄어 쓰지 않나요?

A ‘-어지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보조 동사 ‘지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한 것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서로 띄어 씀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붙여 씀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지다’의 경우는 ‘오해를 풀다 → 오해가 풀어지다’, ‘구멍을 뚫다 → 구멍이 뚫어지다’와 같이 문법 범주를 바꾸어 피동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를 띄어 쓰다면 오히려 가독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념 22 문법 요소 ⑤: 사동 표현

본문 104~105쪽

(개념 확인하기) 1 (1) ㉠ (2) ㉡ 2 ○ 3 × 4 ○
5 -시키다 6 간접 사동 7 주동문 8 사동문 9 사동문

학습 활동 ① 도로를 넓힌다 ② 영호에게 밥을 먹게 했다 ③ 차를 정지시켰다 ④ ㉠, ㉡ ⑤ ㉠ ⑥ 간접적 ⑦ 직접적

(교과서 적용하기) 01 ④ 02 ⑤ 03 ⑤

01 ‘-되다’는 일부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02 ⑤의 ‘팔내미가 강아지에게 팔을 물렸다.’에서 ‘물렸다’는 ‘물-+-리-+-었-+-다’로, 능동사의 어근 ‘물-’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⑤는 사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고기를 익혔다.
→ '고기가 익었다.'라는 주동 표현에 사동 접미사 '-히-(익-+-히-+-었-+-다)'가 붙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 ② 형이 동생을 울게 했다.
→ '동생이 울었다.'라는 주동 표현에 '-게 하다'가 붙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 ③ 아이들이 팽이를 돌린다.
→ '팽이가 돈다.'라는 주동 표현에 사동 접미사 '-리-(돌-+-리-+-ㄴ-+-다)'가 붙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 ④ 목동이 소에게 풀을 뜯는다.
→ '소가 풀을 뜯는다.'라는 주동 표현에 사동 접미사 '-기-(뜯-+-기-+-ㄴ-+-다)'가 붙어 실현된 사동 표현이다.

03 주어가 서술의 객체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내는 사동문은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⑤의 '철수가 운동장을 뛰었다.'는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운동장을 뛰게 하셨다.'와 같이 통사적 사동문만 가능하므로 <보기>에 제시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촛불이 밝다.
→ 사동 접미사 '-히-'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 ② 동생이 신발을 신었다.
→ 사동 접미사 '-기-'를 활용하여 '형이 동생에게 신발을 신겼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 ③ 죄인이 무릎을 꿇었다.
→ 사동 접미사 '-리-'를 활용하여 '경찰관이 죄인에게 무릎을 꿇리었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 ④ 아기가 소파에 앉았다.
→ 사동 접미사 '-히-'를 활용하여 '아빠가 아기를 소파에 앉혔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개념 23 문법 요소 ⑥: 부정 표현과 인용 표현 본문 106~107쪽

(개념 확인하기) 1 못, 못하다 2 명령문, 청유문 3 안, 못
4 ○ 5 × 6 ○ 7 (1) ㉠ (2) ㉡ (3) ㉢ 8 간 9 직
10 간 11 직

학습 활동 ① 안 ② 못 ③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④ 인태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어."라고 말했다.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④

01 ①의 앞에는 '안' 부정문이 쓰였으므로 ①에는 의지에 따라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⑥의 앞에는 '못' 부정문이 쓰였으므로 ⑥에는 능력의 부족 또는 상황의 제약에 따라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③에 제시된 '할머니 댁에 갔다가 너무 늦게 와세요.'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의 제약에 따라 그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①이 아니라 ⑥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①: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 숙제를 하기가 싫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③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② ②: 숙제를 하는 대신 잠을 자기로 했거든요.
→ 숙제를 하는 대신 잠을 자기로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③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④ ④: 깜빡하고 책을 학교에 두고 갔거든요.
→ 책을 학교에 두고 온 상황은 숙제를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 즉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⑥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⑤ ⑤: 어제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서 약을 먹고 일찍 잤거든요.
→ 몸이 아파서 숙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외부적 요인, 즉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⑥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다.

문법 짚고 가기 부정 표현

능력 부정	'못', '못하다'를 사용하여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외적 원인에 의한 부정을 나타냄 ㉠ 나는 책을 못 읽었다.
의지 부정	'안(아니)',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하여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냄 ㉡ 나는 책을 안 읽었다.
단순(상태) 부정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나 '이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안(아니)',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하여 단순 부정, 또는 상태 부정을 할 수 있음 ㉢ 비가 안 내린다. 꽃이 예쁘지 않다.

02 직접 인용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사용한다.

오답 풀이

- ①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한다.
→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표시하지 않는다.
- ②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매끄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③ 직접 인용은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이므로 간접 인용보다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과 형식을 유지한 채 인용하고, 간접 인용은 내용만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이다.
→ 직접 인용은 인용할 부분을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큰따옴표를 표시하여 인용하는 표현이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표현이다.

01 ④ 02 ⑥ 03 ⑤ 04 ② 05 ② 06 ⑤ 07 ①
08 ④ 09 ⑤ 10 ①

01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나무도 쓸 만한 건 먼저 베인다.'에서 '베인다'는 능동사 '베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 '죽인다'는 주동사 어근 '죽-'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이다.
- ② 우물에서 숯을 찾는다.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주동문이면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함으로 하는 능동문에 해당한다.
- ③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태운다'는 '타-+-이-+-우-+-다'로,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된 사동사이다. 따라서 ③은 사동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이다.
- 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명령문에 쓰인 '말다' 부정문이다.
- ⑥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벌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 '남기고/남긴다'는 주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 사동문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태우다'에 결합된 사동 접미사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A '태우다'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타-+-이-+-우-+-다'가 되므로 사동 접미사 '-이-'와 '-우-'가 연속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부 동사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태우다'에 결합된 사동 접미사의 개수를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태우다'와 같이 형성된 사동사에는 '재우다, 채우다, 씌우다, 세우다' 등이 있습니다.

02 '알려진'은 '알-+-리-+-어지-+-다'로, '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사 '알리다'에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중 피동 표현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꼈어.
→ '찢겨지는'은 '찢-+-기-+-어지-+-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찢기는', '찢어지는'으로 써야 한다.
- ② 그 일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야.
→ '잊혀지지'는 '잊-+-히-+-어지-+-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잊히지', '잊어지지'로 써야 한다.
- ③ 이 종이는 얼마나 질리질 질러지지 않는다.
→ '질러지지'는 '자르-+-이-+-어지-+-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질리지', '질러지지'로 써야 한다.

- ④ 돈이 좀 모여지면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어떻게?
→ '모여지면'은 '모-+-이-+-어지-+-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모이면', '모아지면'으로 써야 한다.
- ⑤ 바닷길이 열려지면 두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다.
→ '열려지면'은 '열-+-리-+-어지-+-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에 다시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열리면', '열어지면'으로 써야 한다.

03 파생적 피동문은 피동 접미사가 붙어 실현된 피동문을 말하며, 통사적 피동문은 '-아/-어지다'를 붙여 실현된 피동문을 말한다. '그 일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루-다'는 능동사 어간에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문이므로, 통사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출입문이 닫혀 있었다.
→ '닫혀'는 '닫-+-히-+-어'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 ② 그녀의 죽음에 믿기지 않았다.
→ '믿기지'는 '믿-+-기-+-지'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 ③ 연이은 실패로 의지가 꺾였다.
→ '꺾였다'는 '꺾-+-이-+-었-+-다'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 ④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체포되었다'는 명사 '체포'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따라서 피동문에 해당한다.

04 수집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동사는 원칙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지만, 사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보어
→ 보어는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 문장에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되다, 아니다'는 피동사나 사동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어의 유무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일반적인 구별 방법이 아니다.
- ③ 서술어
→ 피동사와 사동사 모두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유무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일반적인 구별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관형어
→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으로, 서술어로 기능하는 피동사와 사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아니다. 따라서 관형어의 유무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일반적인 구별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부사어
→ 수집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잡히다', '업히다'는 피동사와 사동사가 동일한 형태로, 피동사나 사동사로 쓰일 때 모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부사어의 유무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일반적인 구별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5 ‘아빠가 삼촌에게 짐을 지운다.(㉞)’, ‘할머니께서 갓난아기를 씻기셨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문은 대체로 직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지만, 간접 사동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㉞는 아빠가 삼촌에게 직접 짐을 지웠다는 직접 사동과 삼촌이 짐을 지도록 했다는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는 갓난아기가 스스로 씻을 수는 없으므로 주어인 ‘할머니’가 직접 아기를 씻겼다는 직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오답 풀이

- ① ㉡는 주동문, ㉞는 사동문이다.
→ ㉡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주동문이고, ㉞는 주어가 동작을 다른 대상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문이다.
- ③ ㉞, ㉡, ㉡는 접미사를 활용한 사동 표현이지만, ㉡는 그렇지 않다.
→ ㉞의 ‘지운다’는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우-’가, ㉡의 ‘씻기셨다’는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기-’가, ㉡의 ‘운동시켰다’는 명사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파생적 사동)이다. 반면, ㉡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해 실현된 사동사(통사적 사동)이다.
- ④ ㉡와 같이 명사에 ‘-시키다’를 결합하면 ‘이해시키다, 정지시키다’와 같은 사동사를 만들 수 있다.
→ ㉡의 ‘운동시켰다’와 같이 일부 명사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를 결합하면 ‘정지시키다, 이해시키다, 멸망시키다’ 등과 같은 사동사를 만들 수 있다.
- ⑤ ㉡는 ‘어머니가 딸이 설거지를 하는 행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 ㉡는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으로, 이것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파생적 사동과 달리 주어가 객체에게 간접적으로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내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06 [A]와 [B]의 사동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동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A]는 주어(‘물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얼었다’)가 주어(‘영호가’)와 목적어(‘물을’)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얼었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는 주어(‘동호가’)와 목적어(‘책을’)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읽는다’)가 주어(‘삼촌이’)와 목적어(‘책을’) 외에 부사어(‘동호에게’)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읽힌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A], [B] 모두 사동문에 주어가 생성되어야 한다.
→ [A]에서 주동문 ‘물이 얼었다.’는 ‘영호가 물을 얼렸다.’와 같은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B]에서 주동문 ‘동호가 책을 읽는다.’는 ‘삼촌이 동호에게 책을 읽힌다.’와 같은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새로운 주어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 ② [A]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뀌었다.
→ [A]를 보면 주동문의 주어인 ‘물이’가 사동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물’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 [A]에서 주동문의 서술어 ‘얼었다’는 자동사이고, [B]에서 주동문의 서술어 ‘읽는다’는 타동사이다. 서술어가 자동사인 주동문은 그것의 주어(‘물이’)가 사동문의 목적어(‘물을’)로 바뀌지만,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은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 주동문의 목적어(‘책을’)가 그대로 유지된다.
- ④ [B]는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격 조사를 취해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다.
→ [B]를 보면, 주동문의 주어인 ‘동호가’가 사동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사격 조사 ‘에게’를 취해 부사어(‘동호에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⑥ [A], [B]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동문의 형성 과정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 [A]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뀌지만, [B]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뀐다. 이는 [A]의 주동문의 서술어 ‘얼었다’가 자동사인 반면, [B]의 주동문의 서술어 ‘읽는다’는 타동사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07 ‘형이 사실을 숨기다.’는 주동사 어근 ‘숨-’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실현된 사동문으로, 주동문을 만들 경우 ‘사실이 숨다.(x)’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오답 풀이

- ② 동생이 누나에게 안겼다.
→ ‘누나가 동생을 안았다.’와 같은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③ 옳다고 생각되면 행동하라.
→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와 같은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④ 친구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 ‘고기가 맛있게 익는다.’와 같은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⑤ 어머니가 아이를 시골에 가게 했다.
→ ‘아이가 시골에 갔다.’와 같은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능동문과 피동문, 주동문과 사동문의 대응 관계가 파악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능동문과 피동문, 주동문과 사동문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려면 피동문과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들 때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으로, 피동문의 부사어는 능동문의 주어로, 피동사는 능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피동문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되는 것이랍니다. 또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다시 만들 경우 사동문의 부사어는 주동문의 주어로 바꾸고, 사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됩니다. 이때 사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것이므로 주동문을 만들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동문 ‘아버지는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는 주동문 ‘철수는 책을 읽는다.’가 되는 것이지요.

08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지시 표현에서 직접 인용 표현과 차이가 난다. ④는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곳이 아닌 ‘그곳’에 해당하므로, ‘미국에 간 주미는 자기는 그곳이 좋다고 했다.’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친구는 “서점에 가자.”라고 말했다. → 친구가 서점에 가자고 말했다.
→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①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② 동민이는 어제 “오늘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 → 동민이는 어제 떠나고 싶다고 했다.
→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시간 표현에서 직접 인용 표현과 차이가 있다. 동민이가 ‘오늘’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어제’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어제’라고 고쳐야 한다.
- ③ 철호는 선생님께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했다. → 철호는 선생님께 먼저 들어간다고 했다.
→ 직접 인용 표현과 달리, 간접 인용 표현은 상대 높임법이 중화된다. 따라서 철호가 선생님께 높임 표현을 써서 한 말이라도,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먼저 들어간다.’와 같이 높임 표현 없이 바꾸어야 한다.

- ⑤ 현지는 엄마께 “저도 청소를 해야 해요?”라고 물었다. → 현지는 엄마께 자기도 청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 직접 인용 표현에서의 의문문은 간접 인용 표현에서 보통 ‘-냐’로 바뀐다. 따라서 ⑤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09 • ㉠: ‘안’ 부정문은 ‘나는 공부를 안 했다.’, ‘빵을 먹지 않다.’, ‘영호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와 같이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거나 ‘날씨가 안 덥다.’와 같이 단순한 사실(상태)을 부정할 때 쓰이는 반면, ‘못’ 부정문은 ‘나는 공부를 못 했다.’, ‘영호가 버스를 타지 못했다.’와 같이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외부 상황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 ㉡: ‘못’ 부정문은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날씨가 못 덥다./*날씨가 덥지 못하다.”와 같이 긴 부정문은 물론 짧은 부정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부정문의 경우는 서술어가 형용사라도 ‘날씨가 안 덥다./날씨가 덥지 않다.’와 같이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모두 성립한다. 다만 ‘못’ 부정문은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일부 경우에 한해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반드시 긴 부정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다.)
- ㉢: “*빵을 먹지 않자./*빵을 먹지 않아라.”와 “*그를 만나지 못하자./*그를 만나지 못해라.”에서 보듯이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를 안 했다.(했니?/했구나!)’, ‘공부를 못 했다.(했니?/했구나!)’와 같이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은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감탄문에도 나타난다.
- ㉣: “*우리 오늘은 만나지 않자./*우리 오늘은 만나지 못하자.”와 같이 청유문의 부정에서는 ‘않다’, ‘못하다’가 올 수 없다. 또한 “*내일은 늦게 오지 않아라./*내일은 늦게 오지 못해라.”와 같이 명령문의 부정에서 역시 ‘않다’, ‘못하다’가 올 수 없다. 청유문과 명령문의 부정은 ‘우리 오늘은 만나지 말자.’, ‘내일은 늦게 오지 마라.’와 같이 ‘말다’가 사용된다.
- ㉤: ‘영호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에서 ‘영호’를 부정하면 ‘버스를 탄 사람은 영호가 아니다.’의 의미로, ‘버스’를 부정하면 ‘영호가 탄 것은 버스가 아니다.’의 의미로, ‘타다’를 부정하면 ‘영호가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정문은 부정의 대상이 ‘영호’, ‘버스’, ‘타다’ 중에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부정문의 중의성 해결 방법

부정문은 부정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보조사 ‘는, 도, 만’을 붙이는 것이다.

- 예 • 영호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버스를 탄 사람은 영호가 아니다.)
• 영호가 버스는 타지 않았다.(= 영호가 탄 것은 버스가 아니다.)
• 영호가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 영호가 버스를 탄 것은 아니다.)

- 10 ‘들린다’는 능동사의 어근 ‘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들다’는 활용할 때 어간 다음에 모음이 오면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뀐다.

오답 풀이

- ② ⑥: ‘새끼 새가 제힘으로 날아갔다.’라는 주동문을 통사적 사동으로 바꾼 것이다.
→ ‘새끼 새가 제힘으로 날아가게 하였다.’는 주동사 어간에 ‘-게 하다’가 붙어 실현된 통사적 사동이므로, 이를 다시 주동문으로 바꾸면 ‘새끼 새가 제힘으로 날아갔다.’가 된다.
- ③ ⑦: 부정 용언이 사용된 긴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 ‘먹이지 않았다’는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먹이지 않고’의 주어는 ‘어미새’이므로 주어의 의지에 의해 먹이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 ④ ⑧: ‘먹-+-이-+-었-+-다’로 분석되는데,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 ‘먹었다’는 ‘먹-(주동사의 어근)+-이-(사동 접미사)+-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 ⑤ ⑨: ‘쓰-+-이-+-어’로 분석되는데, ‘-이-’는 피동 접미사이다.
→ ‘쓰여’는 ‘쓰-(능동사의 어근)+-이-(피동 접미사)+-어(연결 어미)’로, 피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기출로 실력 완성하기

본문 110~115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①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②	21 ②
22 ③						

- 01 ㄴ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에서 ‘올해’는 서술어 ‘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므로,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성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관형어와 함께 부속 성분으로서 다른 말을 꾸며 주므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라 수의적인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ㄱ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 ㄱ에서 ‘찍었다’는 주어인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 ③ ㄱ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 <보기>에서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ㄱ에서 서술어 ‘찍었다’의 동작 대상인 ‘사진들’이 목적어이다. ㄴ의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만을 필요로 하며 목적어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ㄱ과 ㄴ에는 주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ㄱ에서 ‘찍었다’라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동생’이므로, ‘동생’이 주어에 해당한다. ㄴ에서는 ‘되었다’의 주체가 ‘언니’이므로 ‘언니’가 주어에 해당한다.
- ⑤ ㄱ과 ㄴ에는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습니다.
→ ㄱ에서 주성분은 주어(‘동생’), 목적어(‘사진들’), 서술어(‘찍었다’)로 세 가지이고, ㄴ에는 주어(‘언니’), 보어(‘대학생’), 서술어(‘되었다’)로 세 가지이다.

02 <보기>는 관형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겨우 작품을 완성했다.'의 '겨우'는 바로 뒤에 오는 체언인 '작품'을 꾸며 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인 '완성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는 새 운동화를 신었다.
→ '새'는 조사나 어미의 결합 없이 체언인 '운동화'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 ③ 소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 '시골'은 '시골의 풍경'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체언'의 구성으로 된 경우로, 앞의 체언이 관형어 역할을 한다.
- ④ 이곳은 내가 다니던 학교이다.
→ '다니던'은 '다니-던'라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되어 ('내가 학교에 다녔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김)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 ⑤ 지도자는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 '국민의'는 체언 '국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03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③의 '그는 너무 현 차를 한 대 샀다.'에서 부사어 '너무'는 바로 뒤의 관형어 '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 '주어+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절인 '눈이 부시게'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하고 있다.
- ② 함박눈이 하늘에서 펄펄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펄펄'이 부사어로 쓰였군.
→ 명사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펄펄'이 각각 부사어로 쓰여 서술어 '내리고 있다'를 수식하고 있다.
-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 ㉠의 '엄마와'와 ㉡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인 '닮았다'와 '읽는다'를 각각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의 서술어인 '닮았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의 부사어와 달리 ㉠의 부사어 '엄마와'는 문장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어이다.
- ⑤ ㉢ 모든 것이 새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새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의 '새로'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의 '재가'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 나타나는 문장 성분인 보어이다. 둘의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모두 서술어 '되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04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는 서술어 '먹었다'의 대상이 되는 '빵'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되어 '빵을'이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우유나 마실까?(㉡)'에서는 서술어 '마실까'의 대상이 되는 '우유'에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 '나'가 결합되어 '우유나'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과 ㉡ 모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 군.
→ ㉠의 목적어 '빵을'은 '먹었다'라는 동작이 미친 대상이며, ㉡의 목적어 '모습을'은 '보시고'라는 동작이 미친 대상이다. 따라서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에서 목적어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해 있고, ㉡에서 목적어 '모습을'은 주어 앞에 위치해 있으므로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 있군.
→ ㉠에서는 목적어 '빵을'이 사용되었지만, ㉡에서는 '주어(그 모습)+부사어(참)+서술어(고우셨다)'로 구성되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 군.
→ ㉠과 ㉡에서 조사 '을'과 '를'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데, ㉠에서 '을'은 받침 있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고 ㉡에서 '를'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음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로 '을'이 사용되고, 모음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로 '를'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05 '그는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에서 '여겼다'라는 서술어는 주어('그는')와 목적어('직업'), 그리고 부사어('천직으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므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닌데,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도 있다. 여기서 '천직으로'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계절이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 '되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계절')와 보어('가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오빠는 아빠와 정말 많이 닮았다.
→ '닮았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오빠')와 부사어('아빠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여기서 부사어 '아빠와'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③ 장미꽃이 우리 집 뜰에도 피었다.
→ '피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장미꽃') 하나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아버지께서 헌 집을 정성껏 고치셨다.
→ '고치셨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아버지께서')와 목적어('집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6 ㄱ의 '누나는 마음이 넓다.'에서 안긴문장은 '주어('마음이')+서술어('넓다')'이고, 안은문장은 '주어('누나는')+서술절('마음이 넓다')'이므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누나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마음이'이다. 따라서 ㄱ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 ㄴ의 '그 배는 섬으로 갔다.'는 '관형어(그)+주어(배는)+부사어(섬으로)+서술어(갔다)'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③ ㄷ에서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중복되므로 생략되었다.
- ㄷ의 '나는 형이 준 책을 읽었다.'에서 안긴문장은 '형이 준'으로, '형이 책을 주었다.'에서 목적어 '책'이 안은문장인 '나는 책을 읽었다.'의 목적어와 중복되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ㄹ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ㄷ에서 안긴문장은 '형이 준'이라는 관형절로서 '책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ㄹ의 '우리는 그가 학생임을 알았다.'에서 안긴문장은 '그가 학생임'이라는 명사절로서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ㄹ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ㄹ의 '바람도 잠잠하고, 하늘도 푸르다.'는 '바람도 잠잠하다.'와 '하늘도 푸르다.'라는 두 개의 홀문장들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7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라는 겹문장을 보면, '날씨가 춥다.'라는 홀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관형절로 안겨 뒤에 오는 명사 '동생'을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라는 홀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관형절로 안겨 뒤에 오는 명사 '동생'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의 조건을 만족한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라는 홀문장이 '-이'와 결합하여 부사절로 안겨 '먹었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의 조건을 만족한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날씨가 춥다.'라는 홀문장이 '-고'와 결합하여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으므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의 조건을 만족한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형은 물을 마셨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라는 홀문장이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의 조건을 만족한다.

08 '희선은 맛있는 빵을 먹었다.(ㄱ)'의 '먹었다'라는 서술어는 그 동작의 주체인 '희선은'이라는 주어와 그 동작의 대상인 '빵'이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며,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ㄴ)'의 '피었다'라는 서술어는 '피었다'의 주체인 '장미꽃이'라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ㄱ은 '희선은'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ㄱ에서 '희선은'은 '먹었다'의 주체로서 주어이므로 문장이 성립되는데 필수 성분이다. 따라서 생략하면 안 된다.
- ② ㄴ은 '빨간'과 '장미꽃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ㄴ에서 '빨간'은 '장미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므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장미꽃이'는 주어이므로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③ ㄱ의 '먹었다'와 ㄴ의 '피었다'는 모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먹었다'는 목적어('빵')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피었다'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 ④ ㄱ의 '맛있는'과 ㄴ의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 '맛있는'은 명사 '빵'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활짝'은 용언 '피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둘 다 뒤의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어이다.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므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09 '이 산은 나무가 많다.(ㄴ)'는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나무가'는 전체 문장에서 '많다'와 함께 서술절로 안겨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서술절 자체에서는 주어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ㄷ)'는 서술절을 안은 겹문장이 아니라 홀문장으로, '대학생이'는 서술어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이다.

오답 풀이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토끼는 앞발이 짧다.(ㄱ)'의 경우 주어 '앞발이'의 서술어는 '짧다'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 '토끼는'의 서술어는 '앞발이 짧다.'라는 서술절이다. '이 산은 나무가 많다.(ㄴ)'의 경우 주어 '나무가'의 서술어는 '많다'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 '산은'의 서술어는 '나무가 많다.'라는 서술절이다.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ㄷ)'의 경우 주어 '오빠는'의 서술어는 '되었다'이고 '대학생이'는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이다. 따라서 ㄱ~ㄷ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ㄱ의 '앞발이 짧다.'는 서술절로서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토끼는'은 이 전체 서술어에 대한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ㄴ의 '나무가 많다.'는 서술절로서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 '산은'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ㄱ과 ㄴ의 '앞발이 짧다.'와 '나무가 많다.'는 각각 전체 주어 '토끼는'과 '산은'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로서 전체 문장 속에 들어 있다.

10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꽃이 활짝 피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관형절이 나타나며, '봄이 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이 나타난다. 따라서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을 만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
- '봄이 오다.'와 '꽃이 활짝 핀다.'라는 두 개의 홀문장이 연결 어미 '-면'에 의해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 '꽃이 활짝 피다.'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관형절로서 명사인 '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사절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 '봄이 오다.'와 '꽃이 활짝 피다.'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결합한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다.'라는 이어진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명사절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형절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한다.
- '봄이 오다.'와 '꽃이 활짝 피다.'가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결합한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다.'라는 이어진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명사절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형절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에서 '비가 오기'는 '비가 오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에서 '집에 가기'는 '집에 가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에서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는 '그는 1년 후에 돌아가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어린아이들은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에서 '어린아이들은 병원에 가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채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과 ㉢에 명사절로 안긴문장은 목적어로 쓰이고, ㉡과 ㉣에 명사절로 안긴문장은 부사어로 쓰인다.

12 ㉡의 안은문장은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이고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별을'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이며, 안긴문장에서는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군.
- ㉡의 서술어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위기를'과 부사어 '기회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② ㉠의 '바다'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의 안은문장은 '바다가 파랗다.'이고, 안긴문장은 '눈이 부시다.'이다. 따라서 '바다'와 '눈이'는 각각 '파랗다'와 '부시다'라는 서술어에 대한 주어이다.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의 안긴문장은 '기회가 좋다.'이고, ㉣의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다. 따라서 '좋은'과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 군.
- ㉠의 '눈이 부시게'는 '눈이 부시다.'라는 문장에 어미 '-게'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로 '파랗다'를 꾸미고 있고, ㉣의 '반짝이는'은 '별이 반짝이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절로 '별을'을 꾸미고 있다. 둘 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13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에는 '나는 공원에서 늘 쉬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결합하여 만든 '내가 (공원에서) 늘 쉬던'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문장 성분인 부사어 '공원에서'가 안긴문장에 생략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 - 부사절(안긴문장의 종류), 없음(생략된 문장 성분)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에는 '자식이 건강하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를 결합하여 만든 '자식이 건강하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따라서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 - 명사절(안긴문장의 종류), 없음(생략된 문장 성분)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에는 '연락이 없다.'라는 문장에 어미 '-이'를 결합하여 만든 '연락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따라서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③ ㉢ - 명사절(안긴문장의 종류), 주어(생략된 문장 성분)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에는 '자신의(동생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음'을 결합하여 만든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따라서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 - 관형절(안긴문장의 종류), 부사어(생략된 문장 성분)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에는 '과제가 아주 어렵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은'을 결합하여 만든 '(과제가) 아주 어려운'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따라서 안긴문장에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14 <보기>에서는 의문문과 청유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⑤의 '어디 보자.'는 '-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형태적으로는 청유문이지만 화자가 특정한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깝다. 이어지는 말인 '내가 다 챙겼나?'나, B의 '거기서 혼자 뭐 해요.'를 통해서도 '어디 보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기다리는 행위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④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법 짚고 가기 간접 발화

발화에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는데, 직접 발화는 문장의 형태와 그 의미(기능)가 동일한 발화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간접 발화는 문장의 형태와 다른 의미를 지니는 발화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예 • 시간을 알고자 할 때: 지금 몇 시예요? → 직접 발화(문장 형태 = 발화 의도)
-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말할 때: 지금이 몇 시니? → 간접 발화(문장 형태 ≠ 발화 의도)

15 ㉠을 보면,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의 '왔겠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쓰여 미래 사건이 아닌 과거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지금'과 '오겠지'에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쓰여 미래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의 선어말 어미 '-겠-'은 모두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그가 집에 갔다.'에서 '갔다'에 쓰인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 '갔다'에 쓰인 '-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정해진 사실인 양 확신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㉔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에서 ‘떠날’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ㄴ’은 ‘올 것이다’와 함께 쓰여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는 내가 떠난 과거의 시간에서 비가 온 것으로 ‘떠날’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ㄴ’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④ ㉔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에서 ‘간다’에 붙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를 나타내는 ‘지금’과 함께 쓰여 현재의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서 ‘진학한다고’에 쓰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은 ‘내년에’와 함께 쓰여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 ⑤ ㉔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 ㉔은 형용사가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에서 ‘작았다’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에서 형용사 ‘작다’는 ‘오늘’과 함께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이나 ‘-는-’과 결합하지 않고 기본형(‘작다’)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선어말 어미 ‘-았-/-었-’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아직도 목이 부었어.’는 목구멍이 이전에 부어서 지금까지 계속 부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비가 와서 내일 야외회는 다 갔다.’에서 ‘다 갔다’는 내일 야외회를 가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때 ‘-았-’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는 것이다.

16 <보기 2>의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가셨다.’에서 조사 ‘께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고, ‘가셨다’는 ‘가-+ -시-+ -았-+ -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③이 적절한 분석이다.

17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 ‘드리다’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 서술의 주체인 ‘선생’을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과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댁’과 ‘계시다’를 통해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고,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께서’와 ‘-시-’ 모두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④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가 화자보다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상위자이므로 주체에 대해 높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해요체의 종결 어미 ‘-요’를 통해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윤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 서술의 주체인 ‘선생’을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과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해체의 종결 어미 ‘-어’를 통해 청자인 ‘윤우’를 대하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18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으로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 뿐이었으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주어 ‘누나가’ 외에 각각 ‘동생’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하므로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개씩 늘어난다.

오답 풀이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고.
-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데.
- 겹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말한다. ㉠과 ㉡의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동생이(주어) 밥을(목적어) 먹는다(서술어).’, ‘누나가(주어) 동생에게(부사어) 밥을(목적어) 먹인다(서술어).’, ‘실내 온도(주어) 낮다(서술어).’, ‘누나가(주어) 실내 온도를(목적어) 낮춘다(서술어).’이다. 따라서 ㉠과 ㉡의 경우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므로 겹문장이 아니라 홑문장이다.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에서 A(주동문)의 서술어 ‘찬다’는 ‘공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의 해당 사례가 없으므로, ‘공을 찬다.’의 서술어 ‘찬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A(주동문)의 서술어 ‘먹는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먹인다’라는 사동사가 있다.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 ㉡에서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에서 A의 서술어 ‘찬다’는 동사이다. 그런데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낮추다’라는 사동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으며 ‘-게 하다’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19 ㉠의 주동문의 주어인 ‘철수가’는 사동문에서 ‘철수를’이라는 목적으로 바뀌었고, ㉡의 주동문의 주어인 ‘동생이’는 사동문에서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 ① ㉠의 주동문은 ㉡과 달리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 ㉠의 주동문의 서술어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먹이다’의 형태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의 주동문의 서술어 ‘가다’는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고 ‘-게 하다’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기-’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면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겨 하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주동문의 주어 '철수가', '동생이'는 각각 사동문에서 '철수를', '동생에게'라는 목적어와 부사어로 문장 성분이 바뀌고 새로운 주어인 '내가'와 '누나가'가 생겼다.
- ⑤ ㉠, ㉡과 달리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이다.
- ㉠,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있으나,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어 보면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비문이 된다.

20 '경민이가 아기의 볼을 만졌다.'에서 '만지다'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할 수 없어 짧은 피동 표현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이다. 반면, '아기의 볼이 경민이에 의해 만져졌다.'와 같은 '-어지다'를 사용하여 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물고기가 낚싯줄을 끊었다.
- 능동사 '끊었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낚싯줄이 물고기'에 의해 끊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 ③ 민수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 능동사 '불렀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동생의 이름이 민수에 의해 불렸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 ④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었다.
- 능동사 '묻었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도토리가 다람쥐'에 의해 땅에 묻혔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 ⑤ 요리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 능동사 '담았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음식이 요리사에 의해 접시에 담겼다.'와 같이 짧은 피동을 만들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피동 접미사의 제약

피동 접미사를 결합하여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용언의 어간이 'ㅣ'로 끝나는 경우 피동 접미사를 결합할 수 없어 파생적 피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지다', '던지다', '지키다' 등은 어간이 'ㅣ'로 끝나므로 피동 접미사가 붙을 수 없다. '공부하다', '사랑하다'와 같이 '-하다'를 붙여 파생된 용언에도 피동 접미사를 결합할 수 없다. 그리고 '깨닫다, 느끼다, 배우다, 알다, 모르다'와 같이 심리를 나타내면서 경험과 관련된 동사나 '가다, 오다'와 같이 이동과 관련된 동사, '주다, 드리다'와 같은 수여 동사, '얻다, 잃다, 돕다'와 같은 수혜 동사, '뵙다, 만나다, 싸우다'와 같이 서로 짝을 이루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에도 피동 접미사를 결합할 수 없어 파생적 피동을 할 수 없다.

21 ㉠에는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주체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들어가되,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모두 가능하다. ㉡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이 오되 짧은 부정문이 와야 한다. ㉢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이 오되 긴 부정문이 와야 한다. 따라서 '동생이 잔다.'를 부정하는 부정문에 ㉠에는 '동생이 못 잔다.', ㉡에는 '동생이 안 잔다.', ㉢에는 '동생이 자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가장 적절하다.

22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못 한다.(ㄴ)'에서 '못'은 능력이나 외부 상황으로 인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다리를 다쳐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부사는 '안'이다.

오답 풀이

- ① ㄱ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나팔꽃이 안 예쁘다.(ㄱ)'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나팔꽃이 못 예쁘다.'가 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므로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② ㄱ에서 '안'은 '예쁘다'라는 상태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안'은 주체의 의지나 상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 ㄱ에서는 '예쁘다'라는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 ④ ㄴ에서 '못 한다'는 '하지 못한다'로 바꾸어도 어법상 문제가 없다.
- ㄴ을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하지 못한다.'로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므로 어법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 ⑤ ㄷ에서 '아니다'는 '고래'가 '어류'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ㄷ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ㄷ)'의 '아니다'는 부정 형용사로, '고래'가 '어류'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문법 짚고 가기 형용사의 부정 표현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동사와 같은 주체의 의지나 능력에 의한 부정을 할 수 없고, 상태에 대한 부정을 한다. 가령,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꽃이 안 예쁘다. / 꽃이 예쁘지 않다.'는 꽃이 예쁜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아니다'도 형용사로서 어떤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그는 군인이 아니다.'는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개념 24 한글 맞춤법

본문 118~121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 4 소리, 어법 5 단어
6 표준어 7 어법, 형태 8 나무, 꽃밭 9 × 10 ○ 11 된
소리 12 ㄴ, 된소리, 적용한다 13 예의, 백분율 14 컷밭,
갯날 15 명사, 두 개

학습 활동 ① 나무 ② 동생 ③ 꽃 ④ 먹다 ⑤ 나 물 좀
줘. ⑥ 나물 좀 줘. ⑦ 등북 ⑧ 등뿔 ⑨ 쌍용 ⑩ 쌍룡
⑪ 먹고 ⑫ 같이 ⑬ 소 한 마리 ⑭ 아랫방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④

01 국어의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은 규범이다.
② 표준어 규정
→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정리해 놓은 규정이다.
④ 외래어 표기법
→ 한국어에 들어온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이다.
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이다.

02 ⑤ ‘쓰러지다[쓰러지다]’는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를 소리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땅
→ ‘땅[땅]’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 겨울
→ ‘겨울[겨울]’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 같이
→ ‘같이[가치]’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으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 옷나무
→ ‘옷나무[온나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으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문법 짚고 가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칙	소리대로 적되 →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
	어법에 맞도록 함
조건	→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03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단어는 문법상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로,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는 단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문단
→ 문단은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을 의미하며, 단락이라고도 한다.
③ 음운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④ 음절
→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의미한다.
⑤ 형태소
→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04 한글 맞춤법 제13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쏟쏟한’은 ‘쏟쏟한’으로 적어야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그해 여름은 몹시 지루하고 길었다.
→ 한글 맞춤법의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몹시’는 [몹씨]로 소리 나지만 ‘몹시’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③ 원만한 인간관계는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 한글 맞춤법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예절’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④ 산소를 수소에 적당한 비율로 결합하면 물이 만들어진다.
→ 한글 맞춤법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물’은 ‘열, 울’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비율’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⑤ 절인 배추를 양념에 살짝 버무린 겉절이가 먹음직스러웠다.
→ 한글 맞춤법의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껍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규정과 ‘ㄴ, ㄹ, ㄹ,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한다는 세부 규정에 따라 ‘살짝’으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05 ‘전셋집[전세집/전셋집]’은 ‘전세(傳費) + 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인 ‘세’가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인 ‘ㅈ’이 된소리 ‘ㅈ’으로 소리 난다.

오답 풀이

- ① 잇몸
→ ‘잇몸[인몸]’은 ‘이 + 몸’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 ‘이’가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② 부싯돌
→ ‘부싯돌[부싯돌/부싯돌]’은 ‘부시 + 돌’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 ‘시’가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ㄷ’으로 난다.
③ 예삿일
→ ‘예삿일[예:산날]’은 ‘예사(例事) + 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 ‘사’가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난다.
⑤ 뒷마루
→ ‘뒷마루[툰:마루/툰:마루]’는 ‘퇴(退) + 마루’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 ‘퇴’가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06 한글 맞춤법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의 ‘잘 아는 척 한다.’에서 ‘아는’은 본용언이고, ‘척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④는 ‘잘 아는 척한다.’와 ‘잘 아는척한다.’로 띄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금 서 돈
→ 한글 맞춤법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금 서 돈’으로 적는다.
- ② 어디까지나
→ 한글 맞춤법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어디까지나’로 적는다.
- ③ 가수 대 배우
→ 한글 맞춤법의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가수 대 배우’로 적는다.
- ⑤ 충무공 이순신 장군
→ 한글 맞춤법의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 적는다.

헛갈리는 문법 Q&A

Q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는 맞는 표기인가요?

A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고,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습니다. 따라서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22~123쪽

- 01 ② 02 ⑨ 03 ④ 04 ⑤ 05 ①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③

01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다.
→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놓은 규정이다.
- ③ 한글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한다.
→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놓은 규정으로, 한글을 쓰고 읽을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 ④ 우리말의 실제 소리에 따라 어떻게 표기할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 한글 맞춤법의 대전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특성에 맞게 국어의 형태소를 실제 소리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 ⑤ 글자를 쓸 때 나타낼 수 있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한글을 적을 때 개인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언어생활에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놓은 규정으로, 한글을 쓸 때 나타낼 수 있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에서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⑨의 ‘들어나다’는 ‘들다’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들-’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드러나다’로 쓰며, 이는 ㉠의 예로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1항은 글자 표기의 원칙을, 제2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글자 표기의 원칙을, 제2항은 문장에서 각 단어를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 ② 제1항과 제2항에는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과 제2항의 문장에서 띄어쓰기를 한다는 것은 문장을 읽을 때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 ③ 제1항은 표준어가 한글 맞춤법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외래어나 외국어, 방언이나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④ 제1항은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제1항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특성에 맞게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제1항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인 한글의 특성에 맞게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⑥ 제2항은 띄어쓰기의 기준이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 제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문장의 띄어쓰기 기준이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 ⑦ 제2항은 독립적으로 홀로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 단어는 문법상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 문장의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제시한 것은 독립적으로 홀로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⑧ ㉠의 예로는 ‘바람, 나무, 쓰러지다’ 등을 들 수 있다.
→ ‘바람[바람]’, ‘나무[나무]’, ‘쓰러지다[쓰러지다]’는 모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에 해당한다.

03 한글 맞춤법의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④의 ‘백분률’은 ‘백분율’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급류(急流) / ⑤ 기마행렬(騎馬行列)
→ 한글 맞춤법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을 참고하면,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은 ‘류’와 ‘렬’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급류’, ‘기마행렬’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② 양심(良心) / ③ 역사(歷史)
→ 한글 맞춤법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심’이 아닌 ‘양심’, ‘력사’가 아닌 ‘역사’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04 받침 ‘ㄱ, ㄴ’ 뒤에 오는 자음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의 ‘야단법석’은 ‘야단법석’으로 써야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시계가 똑딱똑딱 잘도 간다.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똑딱똑딱’으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② 이곳이 지상 최대의 낙원(樂園)이다.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뢰, 누, 느’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낙원’이 아닌 ‘낙원’이라고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③ 그는 절대 그럴 리(里)가 없다고 말했다.
→ 한자어 가운데 ‘리(里)’, ‘년(年)’과 같은 의존 명사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가 아닌 ‘리’라고 쓰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④ 마을 잔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모였다.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남여’가 아닌, ‘남녀’로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문법 짚고 가기

두음 법칙의 예외와 적용

- ‘냥(兩)’, ‘년(年)(몇 년)’과 같은 의존 명사는 ‘나’, ‘녀’ 음을 인정함
- ‘리(里)’, ‘리(理)’와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음
예 몇 리(里)나?, 그럴 리(理)가 없다.
-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음
예 신림(申唖)
- 접두사처럼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음
예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음
예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음
예 역이용(逆利用),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음
예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05 ‘어깨’는 두 모음 ‘ㅏ’와 ‘ㅓ’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우리 학교 교복을 보면 여름옷에 비해 겨울옷이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
→ ‘훨씬’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동생은 나를 보자 움짖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띠었다.
→ ‘움짖’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우리 팀은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며 올 시즌 우승을 잔뜩 베풀고 있었다.
→ ‘잔뜩’은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어머니는 여행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몽땅 잃어버리고는 가슴을 태웠다.
→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06 ②에서 ‘마개’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막- + -에)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제19항]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 읽고, 읽는, 읽지, 읽으니
→ 소리 나는 대로 ‘일꼬, 잉는, 익찌, 일그니’가 아닌, ‘읽고, 읽는, 읽지, 읽으니’로 쓴 것은 ‘읽-’이라는 어간과 각 어미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③ ㉡: 꾸준히, 오뚝이, 곰곰이
→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은 경우이며, ‘오뚝이’와 ‘곰곰이’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 씹, 쥐, 뵈다, 뵈다
→ ‘쏘- + -아 → 씹’는 모음 ‘ㅓ’로 끝난 어간에 ‘-아’가 어울려 ‘ㅏ’로 줄어든 것이다. ‘주- + -어 → 쥐’는 모음 ‘ㅜ’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려 ‘ㅛ’로 줄어든 것이다. ‘보- + -았- + -다 → 뵈다’는 모음 ‘ㅓ’로 끝난 어간에 ‘-았-’이 어울려 ‘ㅘ’로 줄어든 것이다. ‘두- + -었- + -다 → 뵈다’는 모음 ‘ㅜ’로 끝난 어간에 ‘-었-’이 어울려 ‘ㅚ’로 줄어든 것이다.
- ⑤ ㉣: 돼서, 뵈요
→ ‘되- + -어서 → 돼서’와 ‘뵈- + -어 + 요 → 뵈요’는 ‘ㅓ’ 뒤에 ‘-어’가 어울려 ‘ㅖ’로 줄어든 것이다.

07 제시된 글에서 두 글자로 된 한자어, 즉 한자어끼리 결합한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의 여섯 개 한자어의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적고, 나머지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이 사용된다.
→ 사이시옷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②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단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 ‘고유어 + 고유어’, ‘고유어 + 한자어’,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③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일 때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도 사이시옷 현상에 해당하며, 이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④ 앞말의 끝소리나 뒷말의 첫소리 중 하나라도 된소리가 나야 받치어 쓸 수 있다.
→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는 경우 역시 사이시옷 현상이며, 앞말이 모음일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말의 끝소리나 뒷말의 첫소리 중 된소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08 ‘고래 + 기름’은 [고래기름]으로,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된소리가 나거나 ‘ㄴ’ 소리 또는 ‘ㄴ,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비 + 물
→ [비물]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② 해 + 별

→ [해별]과 같이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 ‘해’이면서 뒷말의 첫소리인 ‘별’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전세 + 집

→ [전세집]과 같이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 ‘세’이면서 뒷말의 첫소리인 ‘집’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④ 양치 + 물

→ [양치물]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09 ④의 ‘앞 + -아리’는 ‘-이’ 이외의 모음인 ‘-아’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한글 맞춤법 규정 제20항의 [붙임]에 따라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파리’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살살이 / ② 날날이 / ③ 곳곳이

→ ‘살살이(살 + 살 + -이)’, ‘날날이(날 + 날 + -이)’, ‘곳곳이(곳 + 곳 + -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로,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꼬트머리 / ⑥ 지푸라기

→ ‘꼬트머리(끝 + -으머리)’와 ‘지푸라기(짚 + -으라기)’는 ‘-이’ 이외의 모음인 ‘-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10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③에서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한글 맞춤법의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만큼’과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진 게 없으면 몸이나마 건강해야지.

→ ‘게’는 ‘것이’가 줄어든 형태로, ‘것’은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에 따라 ‘가진 게’라고 띄어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또 ‘이나마’는 조사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몸이나마’로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② 연필 열두 자루를 모으면 연필 한 다스가 된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열두 자루’, ‘한 다스’로 띄어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④ 친구를 오후 두시 삼십분에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두시 삼십분’으로 쓰는 것도 맞는 표기이다. 원칙은 ‘두 시 삼십 분’으로 띄어 쓰는 것이다.

⑤ 그곳에는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마리의 닭이 있다.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마리’로 띄어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문법 짚고 가기

‘만큼’의 품사 구별

-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만큼’ 앞에 ‘-(으)ㄴ’, ‘-는’, ‘-(으)ㄹ’, ‘-던’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올

예 노력한 만큼, 주는 만큼, 드릴 만큼, 했던 만큼

- ‘만큼’이 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는데, 이때는 앞말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해야 하며,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뜻하는 것이어야 함 예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개념 25 표준어 규정

본문 124~127쪽

(개념 확인하기)

- 1 × 2 ○ 3 발음, 어휘 4 역사성
5 윗, 거센소리 6 준말, 귀찮다, 무 7 수강아지, 수평 8 표준어, 전통성, 합리성 9 [ㄷ], [ㄱ] 10 [ㅣ] 11 × 12 ○
13 여행, 구지, 궁물, 국뽕, 여덟

학습 활동

- ① 교양 ② 시대적 ③ 윗도리 ④ 시골내기
⑤ 강남콩 ⑥ 예절, 의견 ⑦ 다쳐, 협의, 희망, 경례 ⑧ [실쏘] ⑨ [꼬자] ⑩ [날썰다] ⑪ [물랄리] ⑫ [갑] ⑬ [뻔머리] ⑭ [골씨] ⑮ [마뎡따/마싯따]

(교과서 적용하기)

- 01 ② 02 ③ 03 멧장이 → 멧쟁이
04 ② 05 ⑤ 06 [가베] → [갑췌], [베갸니시] → [베갸니시], [얹찌] → [알찌]

01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의 지역적 기준으로 ‘서울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중심지이기 때문이지, 서울말이 다른 지역의 언어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햇갈리는 문법 Q&A

Q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표준어의 지역적 기준으로 ‘서울말’로 규정했습니다. ‘서울말’을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표준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뜻을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말을 표준어의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말을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언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말이라고 해서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멧게’나 ‘빈대떡’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방언이 표준어가 되기도 합니다.

02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표준어 규정 제5항에 따라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을 의미하는 단어는 ‘삭월세’가 아니라 ‘사글세’가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는 겨울밤에는 빈자떡을 부치셨다.

→ ‘녹두를 물에 불려 껌질을 빻긴 후 맷돌에 갈아 나물,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를 넣고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부쳐 만드는 전’을 의미하는 단어는 ‘빈대떡’이 표준어이다. 방언이던 ‘빈대떡’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빈자떡’이 쓰이지 않게 되어 ‘빈대떡’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② 그는 윗옷으로 코트 하나만 걸치고 나갔다.

→ ‘맨 겉에 입는 옷’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으므로, ‘옷-’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윗옷’이 표준어이다.

④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온가지 정성을 다 기울였다.

→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으므로, ‘온갖’이 표준어이다.

⑤ 병아리 장수가 아이들에게 팔고 있는 병아리는 모두 솥놈이었다.

→ 수컷을 이르는 접사는 ‘수-’로 통일하므로, ‘수놈’이 표준어이다.

문법 짚고 가기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말

표준어 규정 제5항에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어원이 밝혀져 있더라도 언중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가 널리 쓰이면 그 말을 표준어로 삼고, 어원에 충실한 형태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은 표준어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 '강낭콩'은 중국의 '강남(江南)' 지방에서 들어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강남'의 형태가 변해 '강낭'이 된, 언중이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변한 형태대로 발음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강낭콩'으로 쓰게 한 것임
- '월세(月賁)'와 뜻이 같은 말로서 과거에는 '삭월세'와 '사글세'가 모두 쓰였음. 그러나 '삭월세'를 한자어 '朔月賁'로 보는 것은 '사글세'의 음을 단순히 한자로 흉내 낸 것으로 보아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임

03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땃장이'는 '땃쟁이'로 써야 한다. '귀밑머리'는 방언이었는데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귓머리'가 쓰이지 않게 되고 '귀밑머리'가 표준어가 된 경우이다. '희끗희끗하다'는 '어떤 것이 자꾸 빠르게 잠깐잠깐 보인다.'라는 뜻으로 표준어이다.

04 ②의 '씩어'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따라 [씨어]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묻혀[무쳐]

→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는 [처]로 발음하므로, [무쳐]가 올바른 발음이다.

③ 의남매[와:남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 아니라면 [ㄷ]로 발음해야 하므로 [와:남매]는 올바른 발음이다.

④ 계시다[계:시다]

→ '예, 레' 이외의 '계'는 [계]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계:시다] 외에 [계:시다]도 올바른 발음이다.

⑤ 우리의[우리에]

→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우리의] 외에 [우리에]도 올바른 발음이다.

문법 짚고 가기

음의 길이에 관한 규정

-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눈[눈:] - 첫눈[천눈], 밤[밤:] - 쌍동밤[쌍동밤], 벌리다[벌:리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함.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음

예) 보아 → 봐[봐:], 기어 → 게[게:], 되어 → 돼[돼:], 두어 → 뒤[뒤:], 하여 → 해[해:]

05 ⑤의 '닭는'은 'ㄹ', '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달ن]으로 발음해야 하나, 유음인 받침 'ㄹ' 뒤에 오는 'ㄴ'이 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동화되는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달ㄹن]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고전에는 옛사람의 넋과[넉과] 혼이 담겨 있다.

→ '넋'의 받침인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된다. 또한 대표음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넋과'는 [넉과]로 발음해야 한다.

② 울소[울소]. 당신 말대로 이번에는 결판을 냅시다.

→ '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하므로, [울소]로 발음해야 한다.

③ 그 보리밭 위[보리바취]에는 메밀이 자라고 있었다.

→ 받침 뒤에 모음 'ㄱ'이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보리밭'에서 받침 'ㅌ'의 대표음은 [ㄷ]이므로, 이를 뒤 음절인 '위'의 첫소리로 옮겨 [보리바뒤]로 발음해야 한다.

④ 아이들은 냇가[넉가]에서 송사리를 물고 물장구를 쳤다.

→ 'ㄴ'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내:가/넉가]로 발음해야 한다.

06 '값에'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며, 이때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갑세]로 발음해야 한다. '베갯잇이'는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ㄴ이]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베갸니시]로 발음해야 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연음에 따라 [베갸니시]로 발음되는 것이, 다시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베갸니시]가 된 것이다. 또한 '얹지'는 겹받침 'ㅈ, ㄹ, ㅉ'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는 규정과, 어간 받침 'ㅈ, ㅉ'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얹:찌]로 발음해야 한다. 이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보기>의 '괜차는', '가튼데', '안니'는 어떤 규정에 따라 발음되는 건가요?

A '괜찮은'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괜찬은]으로 된 다음 'ㄴ'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괜차는]으로 발음합니다. '가튼데'는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긴다는 규정에 따라 [가튼데]으로 발음합니다. '안니'는 'ㄴ'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안니]으로 발음합니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28~129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①	05 ④	06 ①	07 ④
08 ①	09 ⑤	10 ⑤	11 ⑤			

01 표준어 규정에서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모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여러 사람들이 두루 쓰는 지역 방언도 표준어가 될 수 있다.
→ 방언이 표준어가 된 예로 표준어 규정 제23항에서 '명계, 물방개, 애순'을 들고 있다. 또한 표준어 규정 제24항에서 '귀밑머리, 까뭇개다, 막상, 빈대떡, 생인손, 억겁다, 코주부'를 예로 들고 있다.
- ③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어를 제정한 목적이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에서 나타난 여러 형태나 발음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표준어 사정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는 것이다.
→ 표준어 사정 원칙의 총칙 제1항의 내용으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표준어는 사전적으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를 의미한다.
→ 표준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가 있다.

문법 짚고 가기 복수 표준어

- 대답하는 말로 쓰이는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과거 '예'만을 표준어로 삼았던 것에서 '네'와 '예'의 복수 형태를 표준어로 삼음
- '쇠-/소-'에서 '쇠-'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함. "시장에 가서 쇠를 팔았다."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소를 팔았다."라고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쇠-'는 단순히 '소'를 대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소의'라는 뜻의 옛말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임. 그러므로 '소의'라는 뜻의 '쇠-'는 '쇠뼈'와 같은 곳에서 쓰이고 이때 '소뼈'와 같은 복수 표준어가 인정됨
- '고이다, 꼬이다, 쏘이다, 조이다, 쪼이다' 등에 있는 두 개의 모음 '고'와 '꼬'는 단모음 '고'로 축약됨. 그런데 '꼬이다, 꺾이다, 씹이다, 죄이다, 쪼이다'와 같은 말은 자주 쓰이기는 하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음

02 '주책', '상추', '깍쟁이', '나무라다'는 각각 '주착', '상치', '깍정이', '나무래다'에서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경우로, 그 변화를 인정하여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②에서 표준어는 '지루하다'로, 한자어 어원의 형태인 '지리(支離)하다'에서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변한 형태인 '지루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03 '배암'이라는 본말 대신 '뱀'이라는 준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 제14항에 따라 '뱀'을 표준어로 삼는다.

오답 풀이

- ② 생쥐
→ '새앙쥐'라는 본말 대신 준말이 널리 쓰여 준말을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 ③ 껌새
→ '껌'이라는 준말 대신 본말이 널리 쓰여 본말을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 ④ 장사치
→ '장사아치'라는 본말 대신 준말이 널리 쓰여 준말을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 ⑤ 마구잡이
→ '막잡이'라는 준말 대신 본말이 널리 쓰여 본말을 표준어로 삼은 사례이다.

04 수컷을 이르는 접사는 '수-'로 통일하여 '수평, 수놈'과 같이 쓰나, '돼지'의 경우는 '수-' 뒤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수돼지'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② 아지랭이가 피어올랐다. (아지랭이 → 아지랑이)
→ '아지랭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아지랑이'로 고쳐야 한다.
- ③ 그들은 옷사람들께 인사를 다녔다. (옷사람 → 옷사람)
→ '옷-'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므로, '옷사람'은 '윗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 ④ 아이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안절부절했다. (안절부절했다 → 안절부절 못했다)
→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안절부절했다'가 아닌 '안절부절못했다'가 표준어이다.
- ⑤ 나는 그의 거만한 행동이 역스러워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스러워 → 역겨워)
→ 방언이었던 '역겹다'가 표준어였던 '역스럽다'보다 널리 쓰여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고 '역스럽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역스러워'는 '역겨워'로 고쳐야 한다.
- ⑥ 목수는 집을 짓고 미쟁이는 벽을 바르고 청소부는 청소를 한다. (미쟁이 → 미장이)
→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미장이'로 써야 한다.

05 '삼촌'에서 '삼'의 'ㅌ'와 '촌'의 'ㅇ'은 모두 양성 모음이다. 그리고 '깡충깡충'에서 '깡'의 'ㅌ'는 양성 모음, '충'의 'ㄱ'은 음성 모음이다. 따라서 '깡충깡충'만이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의 '쌍둥이'와 같이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동이', '흰동이'였겠어.
→ '쌍둥이'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에 의해 '쌍둥이'였던 것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형태인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동이', '흰동이'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②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면 '삼촌'으로 써야겠구나.
→ '다만' 조항에서는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면서, 그 예로 '삼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처럼 '깡충깡충' 대신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보기 1>의 규정에 따른 것이구나.
→ '깡충깡충'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것인데, <보기 1>의 규정에 따라 양성 모음 'ㅇ'과 음성 모음 'ㄱ'로 바뀌어 굳어진 '깡충깡충'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 ⑤ 대다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변화되어 굳어진다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도 달라질 수 있겠어.
→ 대다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양성 모음에서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경우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것에서, 표준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뱀다[뱀:파], 뱀소[뱀:쏘], 뱀지[뱀:찌]와 같이 '뱀-'은 자음 앞에서 [뱀]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②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일교[일꼬], 일기개[일끼개]'와 같이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③ '넋-'은 '넋적하다', '넋등글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한다.
→ '넋-'은 '넋적하[넙찌카다], 넋등글다[넙똥글다], 넋죽하다[넙꾸카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한다.
- ④ 'ㅎ(ㅅ, ㅈ)'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ㅍ]으로 발음한다.
→ '달소[다ㅍ소], 많소[만ㅍ소]와 같이 'ㅎ(ㅅ, ㅈ)'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ㅍ]으로 발음한다.
- ⑤ 겹받침 'ㄹ,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 '덜[데ㄱ], 흙과[흑과], 섶[삼], 젊대[점따], 읍고[읍꼬], 읍대[읍따]와 같이 겹받침 'ㄹ,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 ⑥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우리말의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며,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올 경우 이 중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07 ‘발에’는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테]로 발음한다. 그러나 ‘발 아래’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바다래]로 발음한다. 즉, ‘아래’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바타래]가 아니라 [바다래]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자립성이 있지만, '아래'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 '에'는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이고, '아래'는 자립성이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 ② '발에'는 서로 붙여 쓰고, '발 아래'는 서로 띄어 쓰기 때문이다.
→ '걸돌[거돌]'과 같은 경우는 띄어 쓰지 않아도 [거돌]이 아닌, [거돌]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 ③ '에'의 'ㅇ'은 음가가 없지만, '아래'의 'ㅇ'은 음가가 있기 때문이다.
→ '에'와 '아'의 'ㅇ'은 모두 음가가 없다.
- ④ '발에'에서는 연음이 되지 않지만, '발 아래'에서는 끝소리가 [ㄷ]으로 바뀌 뒤 연음되기 때문이다.
- '발에[바테]'는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음되어 발음된다.

08 [보기]의 규정은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를 설명한 것이다. ‘국물’은 받침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므로 비음 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국법[국뱀]
→ '국법[국뱀]'은 'ㄱ' 뒤에 연결된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경음화)에 해당한다.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ㄲ, ㄸ, ㅃ, ㅆ,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③ 일시[일씨]
→ '일시[一時][일씨]'는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신라[실라]

→ ‘신리[실리]’는 ‘ㄴ’이 뒤에 오는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⑤ 벼훅이[벼훅치]

→ ‘버훅이[버훅치]’는 ‘ㅈ’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ㅈ’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구개음화는 종성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와 결합할 때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09 ‘ㅈ, ㅊ, ㅋ, ㆁ, ㄱ, ㆅ, ㆆ, ㆇ, ㆈ, ㆉ’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각각 [저, 찌, 처]로 발음한다. 따라서 ①은 [찌], ②는 [다처], ③은 [이쳐 → 이치], ④는 [가져]로, 단모음으로 발음되지만, ⑤의 ‘쓰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10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랏말’은 [노랜말]로 발음해야 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노랜말]로 발음되는 것이, 다시 비음화가 적용되어 [노랜말]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냇물[넌:물]

→ ‘냇물’은 ‘밭침 ㄱ, ㅋ, ㆁ, ㅈ, ㅊ, ㅌ, ㄷ’,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라는 규정에 따라 [냇물]로 발음되는 것이, 다시 ‘밭침 ㄱ(ㄱ, ㅋ, ㆁ, ㅈ, ㅊ), ㄷ(ㅈ, ㅉ, ㅊ, ㅌ, ㄷ, ㅎ), ㅂ(ㅈ, ㅉ, ㅊ, ㅌ, ㄷ, ㅎ)’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 한다.(비음화)라는 규정에 따라 [냇물]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 30항의 2 ‘사이자모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다.

② 깃발[기발] / ③ 나룻배[나룻배] / ④ 뱃사공[배사공]

→ ‘깃발’, ‘나룻배’, ‘뱀사공’은 ‘발침 ㄱ, ㅋ, ㆁ, ㅈ, ㅊ, ㆁ,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각각 [깃발], [나룻배], [뱀사공]으로 발음되는 것이, 다시 ‘발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ㅈ, ㅊ, ㆁ, ㅍ), ㅂ(ㅂ, ㅍ, ㅌ, 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ㅈ,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되기, 경음화)라는 규정에 따라 [깃발], [나룻배], [뱀사공]으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30항의 ‘ㄱ, ㄷ, ㅂ,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이들 자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발/깃발], [나루배/나룻배], [배사공/뱀사공]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11 ‘강의의’에서 두 번째 음절의 ‘의’는 [-i]나 [i]로 발음할 수 있고, 세 번째 음절의 ‘의’는 조사이므로 [-i]나 [e]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의’는 [강:의의/강:이의/강:의에/강:이에]로 발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의’는 [의의/의이]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이의/이이]로 발음할 수는 없어.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나는 ‘의’는 무조건 [-]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의의]나 [이이]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발음이다.
- ② ‘닐리리’에서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해야겠어.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발음해야 하므로,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해야 한다.

- ③ '협'에서 '의'는 [-i]나 [i]로 발음할 수 있으니, '협의'는 [허비/허비] 둘 다 올바른 발음이다.
→ '협의'에서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i]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허비/허비] 둘 다 올바른 발음이다.
- ④ '의논'의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의 첫음절이니까, '의논'은 [의논]으로 발음해야 해.
→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나는 '의'는 무조건 [-i]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논'의 '의'는 [-i]로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의논'은 [의논]으로 발음해야 한다.

햇갈리는 문법 Q&A

Q '의'를 발음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의'가 많이 들어간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A '민주주의의 의의'에는 '의'가 네 번이나 들어갑니다. 각각의 '의'에 대한 발음을 살펴볼까요? '민주주의'의 '의'는 단어의 네 번째 음절에 있으므로 [-i]나 [i]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 민주주이]로 발음합니다. '민주주의의'에서 조사인 '의'는 [-i]나 [i]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 민주주의에 / 민주주이의 / 민주주이에]로 발음합니다. '의의'에서 첫 번째 '의'는 이중 모음이므로 [-i]로 발음하고, 두 번째 '의'는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있으므로 [-i]나 [i]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의의'는 [의의 / 의이]로 발음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의의 / 민주주의의 의이 / 민주주의에 의의 / 민주주의에 의이 / 민주주의의 의의 / 민주주의의 의이 / 민주주이에 의의 / 민주주이에 의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 ④ 외래어의 하나의 음운은 한 개의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i]는 우리말 'ㅟ'로 통일하여 적는다.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영어 자음 'f'를 'fashion'에서는 '패션'과 같이 'ㅟ'으로 적고 'file'에서는 '파일'과 같이 다른 자음으로 적게 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02 'internet'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결합하면 [인터넷시]와 같이 받침소리가 'ㅅ'으로 난다. 그러므로 받침 'ㄷ' 대신 'ㅅ'을 써서 '인터넷'으로 써야 한다.

햇갈리는 문법 Q&A

Q 'internet'을 '인터넷'으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A 'internet'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씁니다.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ㅅ' 받침은 실제로 'ㄷ'으로 소리 나지만 표기는 '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여 발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인터넷을], 인터넷으로[인터넷으로]와 같이 'ㅅ'으로 소리가 나며, '인터넷을[인터넷을], 인터넷으로[인터넷으로]와 같이 'ㄷ'으로 소리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3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된소리를 쓰지 않고 '생텍쥐페리'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개념 26 외래어 표기법

본문 130~131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밴드 4 카페 5 커피숍
6 댄스 7 북 8 1 9 카메라 10 슈퍼마켓 11 뷔페
12 프라이드치킨

학습 활동 ① 커피 ② 파이팅 ③ ㅟ ④ 제1항, 제4항
⑤ 제3항 ⑥ 케첩

(교과서 적용하기) 01 ⑤ 02 ① 03 ④

01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 자모에 없는 글자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받침으로는 7개의 자음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이미 굳어져 널리 쓰이는 외래어는 규정과 달라도 인정한다.
→ 외래어 규정에 따르면, 'camera'와 'radio'는 각각 '카메라'와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는데, 이미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카메라'와 '라디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파열음은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개념 2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본문 132~133쪽

(개념 확인하기) 1 × 2 ○ 3 표준 발음법 4 부호
5 b, p 6 구개음화 7 된소리되기 8 Dongnimmun

학습 활동 ① 로마자 ② Jamwon ③ Gwanghmun ④ 울
ㅅ ⑤ nota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① 03 ②

0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어문 규범이므로,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표기의 기본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장 표기의 기본 원칙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두 가지가 있다.
- ③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바탕으로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④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한 표기 원칙이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말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한 표기 원칙이다.
- ⑤ 우리말의 실제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표기의 기본 원칙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말의 실제 발음에 따라 로마자를 표기한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다.

02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므로 'Silla'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 ② 종로: Jongno
→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no'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③ 속리산: Songnisan
→ '속리산'은 [송니산]으로 발음되므로, 'Songnisan'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④ 덕수궁: Deoksugung
→ '덕수궁'은 [덕쑤궁]으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Deoksugung'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⑤ 광화문: Gwanghwamun
→ '광화문'은 [광화문]으로 소리 나므로, 'Gwanghwamun'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03 '해운대'를 'Hae-undae'처럼 표기하는 이유는 'Haeundae'로 표기하면 '해운대'나 '하운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자음 동화를 표기하려고
→ 자음 동화를 표기하는 것은 '백매[백마]'를 'Baengma'로 표기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 ③ 거센소리를 표기하지 않으려고
→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에 반영한다. 즉 '줄고[조코]'를 'joko'로 표기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 ④ 행정 구역의 단위를 표시하려고
→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그러나 '해운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된소리되기를 표기하지 않으려고
→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압구정'을 'Apgujeong'으로 표기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34~135쪽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① 09 ④ 10 ⑥ 11 ④

01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④와 같은 된소리 자모는 사용할 수 없다.

02 '즈, 츠' 다음의 'ㅈ, ㅊ, ㅌ, ㅍ'는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ㅈ, ㅊ, ㅌ, ㅍ'로 적으므로 'juice'는 '주스'가 아니라 '주스'로 표기한다. 또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면 [æ]는 'ㅐ'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caramell[kæərəmel]'은 '카라멜'이 아니라 '캐러멜'로 표기한다. 그리고 짧은 모음 다음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고,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ㅇ'를 붙여 적으므로 'hot dog'는 '핫도그'로 표기한다. 따라서 ㉠, ㉡, ㉢은 모두 맞는 표기다. 그러나 ㉣은 '슈퍼마켓', ㉤은 '초콜릿', ㉥은 '전차레인저'로 표기해야 옳바르다.

헛갈리는 문법 Q&A

Q 비닐(vinyl)이 외래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외래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닐(vinyl)'은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외래어에 해당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을 뜻하는 '마진(margin)', 긴 널빤지의 한가운데를 괴어, 그 양쪽 끝에 사람이 타고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 기구인 '시소(seesaw)'가 있습니다. '뽕'은 포르투갈어 'pão'에서 온 것이고, '고무'는 프랑스어 'gomme'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구두'는 일본어 'kutsu[靴]'에서, '가방'은 네덜란드어 'kabas'가 일본어 'kaban[鞆]'을 거쳐 온 것입니다.

03 'technic'은 '테크닉'으로 적어야 옳바른 표기로, 이것은 외래어의 음절 끝소리는 7개의 자음만으로 적는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manteau'는 '망토'가 아니라 '망토'로 표기한다.
→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망토'로 표기한다.
- ② 'barbecue'는 원래 발음을 고려해서 '바비큐'라고 표기한다.
→ 'barbecue'는 원래 발음인 [baːbɪkjʊː]를 고려해서 '바비큐'라고 표기한다.
- ③ 'frypan'은 '프라이팬'으로 적고, 'pantomime'은 '팬터마임'으로 표기한다.
→ [f]로 시작하는 'frypan'은 '프라이팬'으로 적고, [p]로 시작하는 'pantomime'은 '팬터마임'으로 표기한다. 이를 통해 외래어 표기법에서 어두에 오는 [f]와 [p]는 'ㅍ'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racket'을 '라켓'으로 표기하는 것은 외래어의 음절 끝소리는 7개의 자음만으로 적는다는 규칙과 관련이 있다.
→ 'racket'을 '라켓'이 아닌 '라켓'으로 표기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04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 'ㄱ, ㄷ, ㅂ, ㅈ, ㅊ'를 쓰지 않으므로, 'Paris'는 '파리'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jazz: 재즈
→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 'ㅈ'은 쓰지 않으므로, 'jazz'는 '재즈'로 표기해야 한다.
- ② game: 게임
→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 'ㄱ'은 쓰지 않으므로, 'game'은 '게임'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 file: 화일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f]는 우리말 'ㅍ'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따라서 'file'은 '파일'로 표기해야 한다.

④ circle: 써클

→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 'ㅍ'은 쓰지 않으므로, 'circle'은 '서클'로 표기해야 한다.

⑥ Mozart: 모차르트

→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 'ㅍ'은 쓰지 않으므로, 'Mozart'는 '모차르트'로 표기해야 한다.

05 'model[mádl]'을 '모델'이라고 표기하고, 'camera[káeməɾə]'를 '카메라'로 표기하고, 'radio[raidiu]'를 '라디오'로 표기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라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으므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우리말에 없는 [f, v, ʃ, tʃ, ɔ, ɹ]과 같은 발음을 적기 위한 별도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서 표기하지 않는다.

②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자음으로 끝나는 외래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였을 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이외의 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기 때문에 [f]를 'ㅍ'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버스', '가스' 등으로 표기한다.

06 'rap'은 된소리로 쓰는 것이 이미 굳어진 단어이거나, 베트남어나 타이어의 경우와 같이 된소리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는 표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랩'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타이에 있는 섬인 'Phuket'은 '푸켓'으로 표기해.

→ 파열음이 우리말처럼 '평음-경음-격음'으로 나누어지는 베트남어와 타이어의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따라서 타이에 있는 섬인 'Phuket'은 '푸켓'으로 표기한다.

② 베트남 사람 'Ho Chi Minh[胡志明]'은 '호찌민'으로 표기해.

→ 파열음이 우리말처럼 '평음-경음-격음'으로 나누어지는 베트남어와 타이어의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 'Ho Chi Minh[胡志明]'은 '호찌민'으로 표기한다.

③ '뽕'과 '껌'은 외래어이지만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해.

→ '뽕', '껌', '뽕라', '뽕치산', '뽕뽕'과 같은 외래어는 이미 된소리로 굳어졌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한다.

⑤ '커피숍(coffee shop)'의 파열음 [p]는 'ㅂ'으로 적지만, '점프(jump)'의 파열음 [p]는 'ㅍ'로, '피아노(piano)'의 파열음 [p]는 'ㅍ'로 적기도 해.

→ 영어 [p]는 위치에 따라 '커피숍(coffee shop)', '점프(jump)', '피아노(piano)' 등으로 다르게 표기한다.

07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음운 변동 현상을 반영하지만 된소리 되기 등과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은 예외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조항들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 제시된 두 개의 조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제1항은 외국인이 우리말의 실제 발음을 따라 읽기 쉽도록 적는다는 의미이다.

→ 제1항은 국어의 실제 발음인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외국인이 우리말의 실제 발음을 따라 읽기 쉽도록 우리말의 실제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로마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다는 의미이다.

→ 제2항은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로마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제2항은 우리말 '어'를 표기하기 위해 'ㅇ'처럼 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이전에는 우리말 'ㅏ'와 'ㅑ'를 표현하기 위해 'ㅏ'와 'ㅑ'를 사용했다. 따라서 제2항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 이전처럼 '반달표(ㅏ)'와 같은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8 '옥천'의 'ㄱ'은 'ㅋ'이라는 자음 앞에 있으므로 'k'로 적는다. 따라서 '옥천'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Okcheon'이 된다.

오답 풀이

② 합덕: Hapdeog

→ '합덕'의 'ㄱ'은 어말에 있으므로 'Hapdeok'이라고 적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③ 호법: Hopeob

→ '호법'의 'ㅂ'은 어말에 있으므로 'Hobeop'이라고 적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④ 월곶: Wolkot

→ '월곶(월곶)'의 'ㄱ'은 모음 앞에 있으므로 'Wolgat'이라고 적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⑤ 벚꽃: beodkkot

→ '벚꽃[벚꽃]'의 첫 번째 'ㄷ'은 자음 앞에 있으므로 'l'로, 두 번째 'ㄷ'은 어말에 있으므로 'l'로 적어 'beotkkot'이라고 적는 것이 맞는 표기이다. 다만 여기서의 된소리 'ㄷ'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므로, 'kk'와 같이 된소리 표기를 해 준다.

09 'ㄹ'의 로마자 표기법은 모음 앞, 자음 앞, 어말에서 적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모음 뒤에서 적는 규정은 없다. 또한 제시된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설악(Seorak)'은 모음 뒤에 나 타난 'ㄹ'을 'l'로 적고 있는 반면, '칠곡(Chilgok)'은 모음 뒤에 'ㄹ'이 나타나지만 'ㄹ'이 아닌 'l'로 적고 있다. 따라서 '모음 뒤에서'라는 환경은 'ㄹ'을 'l'이나 'l'로 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 '임실'을 'lmsil'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어말에서는 'ㄹ'을 'l'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모음 앞에서 'r'로 적는다.

→ '구리'를 'Guri'로, '설악'을 'Seorak'으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모음 앞에서 'ㄹ'을 'r'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자음 앞에서 'l'로 적는다.

→ '칠곡'을 'Chilgok'으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자음 앞에서 'ㄹ'을 'l'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ㄹ'이 두 개 겹치는 'ㄹㄹ'은 'll'로 적는다.

→ '울릉'을 'Ulleung'으로, '대관령[대궐령]'을 'Daegwallyeong'으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ㄹ'이 두 개 겹치는 'ㄹㄹ'은 'll'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신문로'를 [신문노]로 발음하는 것은 '문'의 'ㄴ'과 '로'의 'ㄹ'이 만나서 [ㄴ]이 [ㄴ]으로 소리 나므로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르는 경우 'ㅎ'을 밝혀 적는다.

→ '묵호'를 'Mukho'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르는 경우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더라도 'ㅎ'을 밝혀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 'ㄷ'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는다.

→ '놀다[노타]'를 'nota'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ㄷ'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소리 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 사람 이름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 '민용하'를 'Min Yongha'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사람 이름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 '낙동강'의 발음은 [낙동강]으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낙동강[낙동강]'을 'Nakdonggang'으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 구개음화를 반영하여 적는다.

→ '굴하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치다]로 발음된다. '굴하다[구치다]'를 'guchida'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구개음화를 반영하여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⑦ ㉦: 'ㄴ'이 덧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는다.

→ '학여울[항녀울]'을 'Hangryeoul'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ㄴ'이 덧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제시된 규정에서 붙임표(-) 앞뒤에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삼죽면'은 [삼중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Samjuk - my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순창읍: Sunchang

→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순창읍'은 '읍'을 생략하고 'Sunchang'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인왕리: Inwang-ri

→ '리'는 'ri'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인왕리'는 'Inwang-ri'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③ 당산동: Dangsan-dong

→ '동'은 'dong'으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당산동'은 'Dangsan-dong'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⑤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도'는 'do'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충청북도'는 'Chungcheongbuk-do'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회사의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회사 영문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은 현재 'Samsung'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Samseong'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현대'는 현재 'Hyundai'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Hyeondae'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러한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기출로 실력 완성하기

본문 136~141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7 ①
08 ④	0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①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①		

01 '퍼서', '뿔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먹어'와 '먹은'은 ㉠과 같이 소리대로 적으면 '머거'나 '머근'이 된다. 따라서 '먹어'와 '먹은'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킨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굳이'와 '같이'를 음운 현상을 반영하여 적으면 '구지, 가치'가 된다. 구개음화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적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에 해당된다.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미덥다'와 '우습다'는 '믿-'과 '웃-'이라는 어간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이다.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같은 한자인 '老'를 소리에 따라 '노'와 '로'로 다르게 적었으므로 ㉠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2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만'과 '은'은 보조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수만은'은 형태를 밝히어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 용언의 어간 '먹-'에 어미 '-을'이 결합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먹을'은 어간 '먹-'에 어미 '-을'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다.

② ㉢: 체언 '것'에 조사 '은'이 붙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것은'은 체언 '것'에 조사 '은'이 붙은 것으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다.

④ ㉤: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었군.

→ '돌아오다가'는 두 개의 용언 '돌다'와 '오다'가 결합한 형태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를 밝히어 적었다.

⑤ ㉥: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았군.

→ '쓰러질'은 두 개의 용언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쓸다'의 의미에서 멀어졌으므로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았다.

03 '높이'는 용언의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이 아닌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 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 '먹이'는 용언의 어간 '먹-'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③ ㉢: 나는 그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 '익히'는 용언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④ ㉔: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았다.
→ '고름'은 용언 '끓다'의 어간 '끓-'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지만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경우이므로 ㉔의 예에 해당한다.
- ⑤ ㉕: 그들은 새로 만든 도로의 너비를 측정했다.
→ '너비'는 용언의 어간 '넓-'에 '-이'가 붙어 명사로 바뀐 것이지만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경우이므로 ㉕의 예에 해당한다.

문법 짚고 가기 '고름'의 어원

'고름'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골호다'나 '골후다'의 명사형일 가능성이 높으나, '골호다'나 '골후다'란 동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르다'는 뜻을 가진 '고르다'의 사동적 의미를 가지는 '고르게 하는 것' 정도로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형태의 연관을 찾기 어렵다. '고름'은 16세기에 간행된 『훈몽자회』에 그 첫 예가 '골흙'으로 나타난다. 16세기에 처음 나타난 '골흙'은 19세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한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유성을 사이에 존재하는 'ㅎ'이 탈락한 '고름'이 나타난다. 이 형태는, 18세기에 들어 첫 번째 음절의 모음과 두 번째 음절이 서로 이화 작용을 일으켜 형성된 '고름'과 함께 20세기까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 04 '높이'의 어근 '높-'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23항을 적용해 '노피'를 '높이'로 정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므로, ㉔은 제19항을 적용하여 '노피'를 '높이'로 정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㉑은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돌아가다'로 정정해야겠군.
→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로, 앞말인 '돌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돌아가다'를 '돌아가다'로 정정하겠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② ㉒은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드러났다'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군.
→ '드러나다'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 본뜻에서 떨어진 합성 동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드러났다'로 표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 ③ ㉓은 제19항을 적용해 '얼음'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군.
→ '얼음'은 어간 '얼-'에 '-음'이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9항을 적용해 '얼음'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 ⑤ ㉕은 제23항을 적용해 '흙쪽이'로 정정해야겠군.
→ '흙쪽이'는 어근 '흙쪽-'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고, 어근 '흙쪽-'에 '-하다'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23항을 적용해 '흙쪽이'를 '흙쪽이'로 정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 05 [씩씩]에서 [ㅅ]은 'ㅅ'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㉔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으뜸]으로 소리 나는 말은 ㉔에 따라 '으뜸'으로 표기해야겠군.
→ [으뜸]에서 [ㅌ]은 두 모음 'ㅡ'와 'ㅡ' 사이에 나는 된소리이므로 ㉔에 따라 '으뜸'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거꾸로]로 소리 나는 말은 ㉔에 따라 '거꾸로'로 표기해야겠군.
→ [거꾸로]에서 [ㄱ]은 두 모음 'ㅣ'와 'ㅣ' 사이에 나는 된소리이므로 ㉔에 따라 '거꾸로'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살짝]으로 소리 나는 말은 ㉔에 따라 '살짝'으로 표기해야겠군.
→ [살짝]에서 [ㅈ]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㉔에 따라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은 ㉔에 따라 '낙지'로 표기해야겠군.
→ [낙찌]에서 [ㅈ]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㉔에 따라 '낙지'로 표기해야 한다.

- 06 '무덤'과 '지붕'은 각각 '묻- + -엄', '집 + -옹'으로 분석되는 파생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묻엄, *집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뜰', '쌀알'은 각각 '뒤 + 뜰', '쌀 + 알'의 합성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마중은 '맞- + -옹'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 '길이'는 '길- + -이'의 파생어(명사 또는 부사)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 07 ㉑의 [아니요]는 '아니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용언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아니오'가 되는데,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㉔의 규정을 ㉑에 적용하여 '아니오'로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② ㉒ - ㉓
→ ㉒은 ㉔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㉔ - ㉕
→ ㉔의 [가지요]는 용언 '가다'의 어간 '가-'와 종결 어미 '-지'가 결합한 '가지'에 조사 '요'가 붙어 [가지요]로 발음한 것이다. 따라서 ㉔의 규정에 따라 ㉔은 '가지요'로 표기해야 한다.
- ④ ㉔ - ㉔ / ㉕ ㉔ - ㉔
→ ㉔의 [설탕이요]는 체언 '설탕'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설탕이다'에 연결 어미 '-요'가 붙어 발음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㉔의 원칙에 따라 '설탕이요'로 적어야 한다.

- 08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먹을'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풀이

- ① 아는데로 모두 말하여라.
→ '대로'는 관형어 '아는' 뒤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②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 '대로'는 관형어 '약해질' 뒤에서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③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대로 되었다.
→ '대로'는 '생각'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⑤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섰다.
→ '만큼'은 '말'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09 '윗니'는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므로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윗니'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사람의 '배'는 ㉔의 규정에 따라 '윗배'라고 적어야 해.
→ 사람의 '배'는 '아래, 위'의 대립이 있으며,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므로, ㉔의 규정에 따라 '윗배'로 적어야 한다.

- ② '위턱'은 ㉔의 '위충'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해.
→ '턱'의 'ㄷ'은 거센소리이므로, ㉔의 규정에 따라 '위-'를 써야 한다. 이는 '위충'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충'의 'ㅈ'도 거센소리이다.
④ ㉔과 ㉕는 위아래의 대립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나.
→ ㉔는 위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㉕는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⑤ ㉔, ㉕, ㉖는 모두 단어를 만들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 '윗-', '위-', '웃-'은 모두 접두사이다. 접두사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한다.

10 '충의'와 같이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충의'는 [충의]나 [충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또한 관형격 조사 '의'는 [ㄷ]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충의의'를 [충의의], [충이의], [충의에],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개'와 '게'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 'ㄱ'과 'ㄷ'이 별개의 단모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와 '게'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금괴'를 [금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꺠]와 같아진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금괴'를 [금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③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의 두 번째 항목에 '예, 레' 이외의 'ㄷ'은 [ㄷ]로 발음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④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 'ㄱ'과 'ㅇ'이 별개의 단모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ㄱ'을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 '값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14항에 의거하여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갑시]로 발음해야 하나,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갑씨]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 ① '넙지'는 제10항에 의거하여 [넙지]로 발음해야겠군.
→ 제10항에서 '넙지'의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넙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옴겨'는 제11항에 의거하여 [옴겨]로 발음해야겠군.
→ 제11항에서 '옴겨'의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ㅈ]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옴겨]로 발음해야 한다.
③ '읽고'는 제11항에 의거하여 [일꼬]로 발음해야겠군.
→ 제11항에서 '읽고'의 어간 말음 'ㄱ'은 'ㅇ'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⑤ '홀터'는 제14항에 의거하여 [홀터]로 발음해야겠군.
→ 제14항에서 '홀터'와 같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홀터]로 발음해야 한다.

12 '답 + 하고'는 겹받침 'ㄷ'이 자음 'ㅎ' 앞에 있는 경우이므로 ㉖가 적용되어 '답'은 [답]으로 발음한다. 이후에 [ㅇ]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㉗가 적용되어 [ㄱ]로 발음된다. 이를 종합하면 '답하고'는 [다카고]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여덟 + 이 / ㉔ / [여더리]
→ '여덟 + 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겹받침 중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여더리]가 아니라 [여덟비]가 옳바른 발음이다.
② 뭇 + 을 / ㉔ / [목솔]
→ '뭇 + 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겹받침 중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런데 이 경우 'ㅅ'은 [ㅅ]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목솔]이 옳바른 발음이다.
③ 흙 + 만 / ㉔, ㉕ / [흑만]
→ '흙 + 만'은 겹받침 'ㄷ'이 자음 'ㄹ'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흑]으로 발음한다. 이후에 [ㅇ]은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는 ㉕에 따라 [흑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값 + 까지 / ㉔, ㉕ / [갑까지]
→ '값 + 까지'는 겹받침 'ㅈ'이 자음 앞에서 [ㅈ]으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라 [갑]으로 발음한다. 이후에 [ㅈ] 뒤에 'ㄷ'이 결합되는데 <보기>에는 이와 관련된 음운 조건이 없으므로 ㉖만 적용하여 [갑까지]로 발음한다.

13 ㉔ '없단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받침 'ㅈ'이 [ㅈ]으로 발음되고,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엿판다]로 발음된다. 이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한 것이므로 제14항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제12항 규정에 따라 [만턴]으로 발음해야겠군.
→ '값단'은 겹받침 'ㅈ' 뒤에 'ㄷ'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12항 규정에 따라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ㅈ]으로 발음한 [만턴]이 옳바른 발음이다.
② ㉔는 제14항 규정에 따라 [절머]로 발음해야겠군.
→ '절머'는 겹받침 'ㅈ'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ㅓ'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4항에 따라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절머]로 발음해야 한다.
④ ㉔는 제9항 규정에 따라 [꼴]으로 발음해야겠군.
→ '꽃'은 받침 'ㅈ' 뒤에 자음 '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9항 규정에 따라 받침 'ㅈ'을 대표음 'ㄷ'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꼴]으로 발음한다.
⑤ ㉔는 제9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울면]으로 발음해야겠군.
→ '웃던'은 받침 'ㅈ' 뒤에 자음 'ㄷ'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9항에 따라 받침 'ㅈ'을 대표음 'ㄷ'으로 발음해야 하고, 다시 제23항에 따라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을 된소리로 발음하여 [울면]으로 발음해야 한다.

14 '심리'는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ㄹ]으로 발음한다는 제19항에 따라 [심니]로 발음하고, '두통약'은 합성어로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 'ㅇ'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인 경우이므로 제29항에 따라 'ㄴ' 음을 첨가하여 [두통낙]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② 제19항: 점령[점녕], 제29항: 상록수[상녹수]
→ '점령[점녕]', '상록수[상녹수]'는 제19항을 따른 것이다.
③ 제19항: 공엿[공녕], 제29항: 한여름[한너름]
→ '공엿[공녕]', '한여름[한너름]'은 제29항을 따른 것이다.
④ 제19항: 국물[궁물], 제29항: 눈요기[눈뇨기]
→ '국물[궁물]'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비음화, '눈요기[눈뇨기]'는 제29항을 따른 것이다.

㉠ 제19항: 종로[종노], 제29항: 물난리[물랄리]

→ '종로[종노]'는 제19항을 따른 것이고, '물난리[물랄리]'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음화의 사례이다.

15 '꽃이랑'은 '꽃 + 이랑'의 합성어이다. 또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다. 따라서 'ㄴ' 소리가 첨가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꼴니랑]이 되었다가 다시 비음화가 적용되어 [꼴니랑]으로 발음한다. '꽃오목'은 '꽃 + 오목'의 구조로, 이때 '오목'은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부사)이다. 따라서 '꽃'의 받침 'ㅈ'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꼬도목]이 표준 발음이다.

16 '갈등'은 <보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덜개'는 [덜개]인가요, [덜개]인가요?

→ '덜개'는 받침 'ㅍ[ㅂ]' 뒤에 'ㄱ'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덜개]로 발음한다.

③ '낱설다'는 [낱설다]인가요, [낱설다]인가요?

→ '낱설다'는 받침 'ㅈ[ㄷ]' 뒤에 'ㅅ'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낱설다]로 발음한다.

④ '머금다'는 [머금다]가 아니라 [머금따]가 맞나요?

→ '머금다'는 어간의 받침 'ㄹ'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결합되므로 제24항에 따라 [머금따]로 발음한다.

⑤ '남기다'는 [남끼다]가 아니라 왜 [남기다]인가요?

→ '남기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24항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따라 [남기다]로 발음한다.

17 ㉠은 외래어 표기에는 된소리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로 적어야 한다. ㉡은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racket'의 받침은 'ㅌ'이 아닌, 'ㅌ'으로 표기해야 한다. ㉢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f]를 표기하기 위해 새로운 기호를 만들 필요가 없다.

18 ㉠ '앞집'은 [압집]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되고, '장릉'은 [장:농]으로 'ㅈ'이 예사소리 [ㅈ]으로 발음되지만, 로마자 표기는 모두 'ㅈ'을 'j'로 적고 있다. 따라서 '앞집'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ㅈ → ㅉ)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의 '가락'을 'garak'으로 표기한 것에서 모음 앞의 'ㄱ'과 어말의 'ㄱ'을 각각 'g'와 'k'로 다르게 적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ㅂ'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적고 있는데,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앞'은 [압]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받침을 'p'로 적는 것이다.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에서 '장릉[장:농]'의 장음을 표시하는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락'의 'ㄹ'은 'l'로, ㉤에서 '릉'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릉'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장릉'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 [장: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jangnong'으로 적는 것이다. 자음 동화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9 ㉠의 '같이[가치]'에서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같이[가치]'를 'gati'가 아니라 'gachi'로 적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의 '잡다[잡따]'에서는 된소리되기(ㅈ → ㅉ)가 일어나며, 이는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난다.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는 '잡다[잡따]'를 'japda'가 아니라 'japda'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달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의 '놓지[노치]'에서는 거센소리되기(ㄷ → ㅌ)가 일어나며, '달아[다라]'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용언의 활용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놓지[노치]'를 'noji'가 아니라 'no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의 '맨입[맨닙]'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이는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난다.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맨입[맨닙]'을 'maenip'이 아니라 'maennip'으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밭물[밭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의 '백미[뱅미]'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밭물[밭물]'에서도 일어난다.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백미[뱅미]'를 'baekmi'가 아니라 'baengm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념 28 고대 국어

본문 144~145쪽

(개념 확인하기) 1 구결 2 이두 3 향찰 4 × 5 ○
6 × 7 ○ 8 뜻

학습 활동 ① 음 ② 뜻 ③ 뜻 ④ 뜻 ⑤ 뜻 ⑥ 뜻 ⑦ 음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⑤ 03 ⑤

01 고대 국어 시기에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다.
→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와서 우리말을 표기하였는데, 이를 차자 표기라고 한다.
- ③ 향찰이라는 차자 표기를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였다.
→ 향찰은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차자 표기이다.
- ④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등도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 이두와 구결, 향찰 표기에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등 문법 요소도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 ⑤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는 표기 방식도 존재하였다.
→ 이두는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를 덧붙인 표기 방식이다.

02 '밤 들이'를 적기 위해 '夜入'의 뜻을, '伊'의 음을 빌려 와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 ① '伊'와 '可'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부분에 해당한다.
→ '伊'와 '可'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에 해당한다.
- ② '夜入'과 '遊行'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부분에 해당한다.
→ '夜入(밤 들-)', '遊行(노니-)'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가'를 표현하기 위해 '可'의 음을 빌려 와 표기하였다.
→ '가'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으로 '可(움을 가)'의 음을 빌려 와 적은 것이다.
- ④ '노니다'를 적기 위해 '遊行如'의 뜻을 빌려 와 표기하였다.
→ '노니다'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으로 '遊行如'의 뜻을 빌려 와 표기하였다.

03 향가 「서동요」의 1행에서 두 번째로 쓰인 '主'는 '님 주'자로, 여기에서는 '님'이라는 뜻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善
→ '善'은 '착할 선'자로, '선'이라는 음만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② 化
→ '化'는 '될 화'자로, '화'라는 음만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③ 公
→ '公'은 '공평할 공'자로, '공'이라는 음만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④ 主
→ '主'는 '주인 주', '님 주'자로, '주'라는 음만 빌려 표기한 것이다.

개념 29 중세 국어

본문 146~149쪽

(개념 확인하기) 1 발음 기관, 상형 2 가획 3 이체자
4 사람, 합성 5 × 6 ○ 7 훈민정음 8 중성부용초성
9 ㄱ, ㄴ, ㄹ, ㅁ, ㅂ, ㅅ, ㅇ 10 ㅁ, ㅂ, ㅅ, ㅇ 11 여두 자음군 12 선
어말 어미 13 이어적기 14 ○ 15 × 16 × 17 ×
18 관형격 19 주체 20 -습-/-좁-/-습-

학습 활동 ① ㄱ ② ㅁ ③ ㅅ ④ ㅂ, ㅅ, ㅈ, ㅊ, ㅋ, ㆁ, ㆁ ⑤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⑥ 말쑥·미 ⑦ ㅁ ⑧ 아버지 ⑨ 스승님

(교과서 적용하기)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④

01 훈민정음의 자음자 중에서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오답 풀이

- 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기본자 중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ㄹ'은 입의 모양, 'ㅁ'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③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게 나는 글자이다.
→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로,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지닌다.
- ④ 기본자는 5자, 가획자는 9자, 이체자는 3자로 총 17자이다.
→ 기본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5자, 가획자는 'ㅋ, ㆁ, ㆁ, ㅂ, ㅅ, ㅈ, ㅊ, ㅋ, ㆁ, ㆁ'의 9자, 이체자는 'ㅇ, ㄹ, ㅁ'의 3자로 총 17자이다.
- ⑤ 이체자 'ㄹ'은 기본자 'ㄴ'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다.
→ 'ㄹ'은 반향소리로, 'ㄴ'에 획을 더한 모양과 비슷하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어 이체자라고 한다.

02 재출자는 초출자와 기본자 'ㅂ'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기본자 'ㅂ, ㅅ, ㅈ, ㅊ, ㅋ'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기본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ㅇ',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ㅁ',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ㄴ'이다.
- ② 'ㅂ, ㅅ, ㅈ, ㅊ, ㅋ'는 'ㅂ'를 'ㅅ'와 'ㅈ'에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ㅂ, ㅅ, ㅈ, ㅊ, ㅋ'는 초출자로, 기본자 'ㅂ'를 다른 기본자 'ㅅ'와 'ㅈ'에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③ 초출자의 제자 원리는 기본자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의 원리이다.
→ 초출자 'ㅂ, ㅅ, ㅈ, ㅊ, ㅋ'는 기본자 'ㅂ, ㅅ, ㅈ, ㅊ, ㅋ'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이러한 방식으로 글자를 만드는 것을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 ④ 'ㅂ, ㅅ, ㅈ, ㅊ, ㅋ'는 초출자에 'ㅂ'를 다시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ㅂ, ㅅ, ㅈ, ㅊ, ㅋ'는 재출자로, 초출자 'ㅂ, ㅅ, ㅈ, ㅊ, ㅋ'에 기본자 'ㅂ'를 다시 결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03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를 합쳐서 하나의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한다.

오답 풀이

- ①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써서 표기하였다.

-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쓰도록 하였는데, 이를 '중성부용초성'이라고 한다.
- ② 글자 왼쪽의 점을 통해 평성, 거성, 상성을 표시하였다.
-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성조, 즉 평성, 거성, 상성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 ④ 초성의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써서 글자를 만들었다.
- 같은 글자를 합해 나란히 쓴 것을 각자 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합해 나란히 쓴 것을 합용 병서라고 한다.
- ⑤ 입술소리 아래에 'ㅇ'을 이어 써서 입술가벼운소리를 만들었다.
- 입술소리(순음) 'ㄹ, ㄴ, ㅍ, ㅂ'에 'ㅇ'을 이어 써서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 'ㄹㅇ, ㄴㅇ, ㅍㅇ, ㅂㅇ'을 나타낸다.

04 '노미(놈+이)'는 현대 국어로 '놈이'라는 뜻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를 하고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적기를 한다.

오답 풀이

- ② '이런전초로어린빅성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이런전초로어린빅성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대 국어처럼 띄어 쓰다면 '이런 전초로 어린 빅성이'가 된다.
- ③ '뿌메'와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났다.
- 어두 자음군은 음절 첫머리에 오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의 무리를 의미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기 형태이다. '뿌메'의 '뿌'에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난다.
- ④ '': 사룸:마·다'와 같이 방점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 '': 사룸:마·다'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 옆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 ⑤ '수비니겨'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ㅇ'이 사용되었다.
- '수비니겨'의 'ㅇ'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ㅇ(순경음 비음)'이 사용되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현대 국어에서 초성에 쓰이는 'ㄱ, ㄷ, ㅂ, ㅅ, ㅈ'은 어두 자음군이 아닌가요?

A 어두 자음군은 단어 첫머리에 오는 자음들의 연속체로서 '쑈, 썩, 뼉, 뽕, 뽕, 뽕, 뽕'과 같이 서로 다른 둘 또는 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 자음군은 둘 또는 세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하나의 자음, 즉 하나의 음소이므로 어두 자음군은 아닙니다.

05 '이리로소이다'는 선용의 말로, 청자인 '왕'을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말이다. 여기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 '-이-'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개념 30 근대 국어

본문 150~151쪽

(개념 확인하기) 1 방점 2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3 -, ㅏ 4 × 5 × 6 ○ 7 ○ 8 객체 9 이중, 단
10 원순 모음화 11 두음 법칙

학습 활동 ① 'ㄷ'이 사라짐 ② 거듭적기가 나타남, 방점이 사라짐

(교과서 적용하기) 01 ③ 02 ②

01 이어적기는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것이고, 끊어적기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보기>는 끊어적기로 표기된 문장이므로 이어적기로 표기하였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 쓰인 방점이 사라졌다.
- 중세 국어에서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표기했던 방점이 근대 국어로 오면서 성조가 사라져 방점 표기도 하지 않았다.
- ② 중세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시도하였다.
- 중세 국어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고, 근대 국어 시기에 띄어쓰기를 시도하였다.
- ④ '보리'로 보아 주격 조사 '가'가 출현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로 '이/ㅣ'를 사용하였는데, '보리'로 볼 때 근대 국어로 오면서 '가'가 출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오디'가 '오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가 나타났다.
- '오디'가 '오지'로 변화된 것은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문법 짚고 가기 표기 방식

이어적기 (연철)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그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것 ㉠ 부루매
끊어적기 (분철)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더라도 앞말의 종성을 앞말에 그대로 두고 뒷말의 초성에는 'ㅇ'을 적는 것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임 ㉡ 부룸매
거듭적기 (중철)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앞말의 종성을 앞말뿐만 아니라 뒷말의 초성에도 적는 것 ㉢ 부룸매

02 ㉠은 모음 조화에 의해 '나를'로 적어야 하는데 'ㅇ'의 소실로 인해 '나를'로 적지 않고 '나를'로 적은 것으로, 이는 모음 조화 현상이 근대 국어의 시기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은 끊어적기로, ㉡은 거듭적기로 표기하여 표기법의 혼란을 보여 주고 있다.
- '불근(이어적기)'으로 적지 않고 '불은'으로 적은 것은 끊어적기로 표기한 것이고, '물밧출'은 '물밧술'로 끊어 적지 않고 '물밧술'로 거듭적기를 한 것이다. '물밧술'은 7중성법이 적용되어 '물밧술'이 되고 여기서 다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물밧출'로 변화한 것이다.
- ③ ㉢과 ㉡은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더괴'가 '저괴'로, '물밧술'이 '물밧출'로 변화한 단어들이다.
- '더괴'에서 '저괴'로, '물밧술'에서 '물밧출'로의 변화는 'ㄷ → ㅈ', 'ㅌ →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④ ㉡에서 종성을 'ㅅ'으로 적고 있는 것을 통해 7중성법으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중세 국어에서는 8중성법을 적용하여 'ㄷ'과 'ㅅ'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는데, 근대 국어에서는 'ㄷ'을 'ㅅ'으로 통일한 7중성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근대 국어에서는 'ㄷ'으로 발음을 하더라도 'ㅅ'으로 적어야 하므로 '물밧출'은 7중성법이 적용되어 종성에 'ㅅ'을 쓰고 있는 것이다.
- ⑤ ㉢과 ㉡은 자음 글자의 소실로 인해 근대 국어에서 변화된 단어들이다.
- 근대 국어에서는 'ㄷ'의 소실로 인해 '저섬'이 '저섬'으로 변화하였고, 'ㅇ'의 소실로 인해 '나를'로 적지 않고 '나를'로 적은 것으로, 이는 모음 조화 현상이 근대 국어의 시기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은 'ㅇ'으로 변화되어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사라졌으므로 '징반'이 '징반'으로 변화하였다.

문법 짚고 가기

표기상의 7종성과 발음상의 7종성

근대 국어 시기에는 종성 표기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글자를 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ㅅ'인데 발음상으로는 이미 16세기를 거치면서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했다. 따라서 표기상의 7종성에 속하는 자음 목록과 발음상의 7종성에 속하는 자음 목록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선지로 실력 확인하기

본문 152~15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⑥

01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한 방식이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고유의 표기 수단이 없었다.
→ 고대 국어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 전이어서 우리말을 기록할 만한 고유의 표기 수단이 없던 시기였다.
- ② 고대 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다.
→ 고대에 대한 자료나 기록이 부족한 편으로, 그중에서도 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는 더욱 부족한 편이다.
- ③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한 차자 표기에 고대 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고대 국어 시기에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를 사용하였는데, 고유 명사 표기나 향찰, 구결, 이두 등에 고대 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④ 한자를 국어 어순에 맞게 변형하여 조사나 어미를 첨가하여 표기한 이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고대 국어에는 이두를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 표기를 첨가한 표기 방식을 말한다.
- ⑥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고대 국어 시기에는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를 했는데, 이는 처음에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 명사를 적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02 '買忽(매홀)'을 '수성(水城)'에 대입하면, 고대 국어에서 '물[水]'을 나타내던 말은 '매'와 비슷하게 발음했고 '성(城)'을 나타내던 말은 '홀'과 비슷하게 발음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과 ㉡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 ㉠은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고유 명사인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적는 향찰이라고 한다.

- ② ㉠에서 '買忽'은 한자의 음을 빌려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 고구려의 고유 지명인 '매홀'을 '買忽(매홀)'의 한자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③ ㉡에서 '水城'은 한자의 뜻을 빌려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 고구려의 고유 지명인 '매홀'은 '물 고을'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 뜻에 주목해 '水(물 수)城(도읍 성)'이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 ⑤ ㉢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을 표기한 것이다.
→ ㉢은 향찰로 표기한 향가인 「서동요」의 일부이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을 표기한 방식이다.
- ⑥ ㉣에서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은 '矣, 邪, 乙, 遣'이다.
→ 향찰에서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에서 '矣(어조사 의)'는 한자의 음을 빌려 조사 '예', '卯(토끼 묘)'와 '乙(새 을)'의 음을 합쳐 '물(몰래)', '遣(보낼 견)'은 음의 일부를 빌려 어미 '고'를 표기한 것이다.
- ⑦ ㉤에서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은 '夜, 抱, 去, 如'이다.
→ 향찰에서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에서 '夜(밤 야)', '抱(안을 포)', '去(갈 거)'는 한자의 뜻을 빌린 것이고 '如(같다 여)'도 한자의 뜻의 일부를 빌려 '-다'를 표기한 것이다.

03 '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말ㅅㅅㅅ'과 같이 이어적기가 주로 쓰였다.
→ 중세 국어에서는 '말ㅅㅅㅅ'과 같이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이어적기가 주로 쓰였다.
- ② '홀ㅅ배'와 같이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이'가 주로 쓰였는데 결합하는 말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음 뒤에서는 '이', 'ㅣ'나 반모음 'ㅣ' 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가 쓰였으며, 'ㅣ'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쓰이지 않았다.
- ③ '서르'와 같이 모음 조화 현상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 '서르'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 ⑤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하였다.
→ '중'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초성+중성+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따랐다.

문법 짚고 가기

동국정운식 표기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으로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의 3성 체계를 갖추어서 표기하였으며, 한자음에 받침이 없는 글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ㅇ'이나 'ㅁ'을 썼다.

04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우주의 기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같은 글자를 두 번 쓰는 것을 각자 병서라고 하고 다른 글자를 합하여 쓰는 것을 합용 병서라고 한다(㉡). 한글 28자 중에서 오늘날 쓰이지 않는 문자는 'ㅇ, ㆁ, ㆏, ㆑'이다(㉢).

오답 풀이

- ㉠ 자음은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다.
→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만든 것은 모음이고, 자음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다.
- ㉡ 모음의 기본자는 'ㅏ, ㅑ, ㅣ'이고, 초출자는 'ㅓ, ㅕ, ㅗ, ㅛ'이다.
→ 모음의 기본자는 'ㅏ, ㅑ, ㅣ'이고, 초출자는 'ㅓ, ㅕ, ㅗ, ㅛ'이다.

05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즈믄’이다. ‘즈믄’은 한자어 ‘千(천)’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한자어 ‘千(천)’과 경쟁하다가 소멸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수라
→ ‘수라’는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을 뜻하며,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원나라의 영향으로 들어온 몽골 차용어이다.
- ② 암뿔
→ ‘암뿔(암+뿔)’은 ‘닭의 암컷’을 뜻하는 현대어 ‘암탉’으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어져 내려오는 단어이다.
- ③ 조밭
→ ‘조밭(조+밭)’은 ‘조의 열매를 찢은 쌀’을 뜻하는 현대어 ‘좁쌀’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어져 내려오는 단어이다.
- ⑤ 보라매 / ⑥ 송골매
→ ‘보라매’는 ‘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뜻하고, ‘송골매’는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사냥용으로 사육되기도 하는 매의 한 종류를 뜻한다. 두 단어 모두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원나라의 영향으로 들어온 몽골 차용어이다.

06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ㅃ, ㅍ’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으로 ‘스·물’이 근대 국어에서 ‘스물’로 바뀌게 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ㅈ루·미니·라’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 ‘ㅈ’의 ‘ㅈ’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부·메’를 통해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부·메’는 ‘부-+-음+에’로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다.
- ③ ‘수·비’와 ‘변안한·키’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
→ ‘병, ㅎ’은 소실되어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들이다.
- ④ ‘히·예’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성조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 ‘히·예’의 첫 음절은 방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인 양성이고, 둘째 음절은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인 거성이다.
- ⑥ ‘어엿·비’는 ‘가엿게’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오늘날 ‘어여쁘게’로 의미가 바뀌었다.
→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가엿게’라는 뜻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어여쁘게’로 의미가 바뀐 것으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단어이다.

07 근대 국어의 시기에 거듭적기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제시된 자료에서는 거듭적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쓰는거슨’에서 이어적기가 나타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방점이 쓰이지 않았다.
→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방점이 쓰이지 않았다.
- ② 주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다.
→ ‘우리신문이’와 ‘상하귀천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 ③ 한문 어순을 직역한 문투가 나타난다.
→ ‘아니쓰고’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지 않고’로 표기하는 것으로, ‘不用’을 직역한 문투에 해당한다.
- ④ 완전하지는 않지만 띄어쓰기가 나타난다.
→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던 중세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신문이’, ‘아니쓰고’, ‘쓰는거슨’, ‘다보게’에서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 비해 띄어쓰기가 완전하지는 않다.
- ⑥ ‘ㄷ, ㅎ, ㅎ’은 소실되었고, ‘·’는 부분적으로 표기에 남아 있다.
→ ‘ㄷ, ㅎ, ㅎ’은 표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은 ‘쓰는거슨’에 나타난다.

08 ‘니믈>님믈>님을’은 각각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로 표기한 것인데 근대 국어에서는 이 세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대로 표기 방식의 소멸과 생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님믈>임믈’과 같이 어두의 ‘ㄴ’이 사라졌다.
→ 중세 국어에서 ‘님믈’이 근대 국어로 오면서 단어의 첫머리에 ‘ㄴ’이 오는 것을 꺼려 ‘임믈’으로 바뀌었다.
- ② ‘부터’부처와 같이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다.
→ 중세 국어에서 ‘부터’로 쓰던 것이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처’로 바뀌었다.
- ③ ‘되>산’, ‘구름>강’과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었다.
→ 근대 국어 시기에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었으며,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번역 한자어가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 어휘 체계의 변화가 큰 시기였다.
- ⑤ ‘어리다(어리석다)나이가 어리다’와 같이 어휘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인 ‘어리다’가 근대 국어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바뀌는 등 의미의 이동이 일어나는 어휘들이 많이 생겼다.

문법 참고 하기

단어의 의미 변화

의미의 확대	단어가 의미하는 영역이 원래보다 넓어짐 예 영감(당상관에 해당하는 벼슬을 지낸 사람 → 남자 노인)
의미의 축소	단어가 의미하는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짐 예 얼굴(사람의 형체 → 낮)
의미의 이동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변화함 예 식석하다(씩씩하다(엄하다 → 굳세고 위엄스럽다))

09 (가)는 중세 국어, (나)는 근대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놀래노다’를 통해 ‘·’가 ‘고’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으물’과 ‘돌룰’을 볼 때, ‘·’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고지’와 ‘모으물’을 통해 이어적기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고지’와 ‘모으물’에서는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쓴 이어적기를 하고 있다. 근대 국어는 이어적기와 거듭적기, 끊어적기 표기가 모두 나타나던 시기였다.
- ② ‘烽火(봉화)’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烽火(봉화)’에서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모으물’과 ‘니어시니’를 통해 ‘ㄷ’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중세 국어에서 ‘모으물’과 ‘니어시니’로 표기하던 것을 근대 국어에서 ‘모으물’과 ‘니어시니’로 표기한 것에서 ‘ㄷ’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늪물’과 ‘돌룰’을 통해 거듭적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거듭적기는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표기 방법으로 근대 국어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중세 국어에서 ‘늪물’과 ‘돌룰’로 이어적기를 하였는데 근대 국어에서 ‘늪물’과 ‘돌룰’로 ‘르’를 거듭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늪물’과 ‘슬호니’를 통해 모음 조화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늪물’은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고, ‘슬호니’는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01 ③ 02 ③ 03 ①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③ 09 ① 10 ④ 11 ⑤ 12 ⑤ 13 ④

01 '학생 3'은 한글의 자음자에서 <예사소리> - <거센소리> - <된소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사소리> - <거센소리>의 관계를 <A> - <A에 획 추가>로 설명한 것은 '나'의 '가획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사소리> - <된소리>를 <A> - <AA>로 설명한 것은 '다'의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병서(並書)의 원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ㄱ-ㅋ-ㆁ'에서 거센소리 'ㅋ'은 예사소리 'ㄱ'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이고, 된소리 'ㆁ'은 'ㄱ'을 나란히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오답 풀이

- ① 학생 1 - 가, 나
→ '학생 1'은 'ㄱ'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의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은 발음 기관을, 중성의 기본자 'ㅇ, ㅡ, ㅣ'는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나'의 '가획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학생 2 - 다, 라
→ '학생 2'는 'ㅇ, ㅡ, 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휴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라'의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해당한다. 모음자라 불리는 중성자는 기본자 'ㅇ, ㅡ, ㅣ'를 바탕으로 'ㅗ'와 'ㅜ'를 합성하여 'ㅛ, ㅠ'를 만들고, 'ㅣ'와 'ㅇ'을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ㅇ'을 하나씩 더해 'ㅜ, ㅠ, ㅓ, ㅕ'를 만들어 모두 11자의 중성자(모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다'의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학생 4 - 나, 라
→ '학생 4'는 'ㅁ'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ㅂ, ㅍ'은 모두 'ㅁ'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것은 'ㅁ, ㅂ, ㅍ'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의 '가획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라'의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학생 5 - 가, 라
→ '학생 5'는 중성자, 즉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이와 관련된 제자 원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02 ㉔에서 15세기 국어는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㉓에서 '어엿·비'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고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㉔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㉔에서 15세기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 'ㅅ'과 'ㅂ'이 존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수·비'에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자음인 'ㅂ'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㉔을 보니, 'ㅄ·들'의 'ㅄ'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㉔에서 초성에 오는 'ㅄ'은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하였으므로, 'ㅄ·들'의 'ㅄ'은 'ㅂ'과 'ㄷ'의 두 개의 자음 모두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을 보니, '히·예'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㉔에서 15세기 국어에서는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히·예'의 '히'에는 방점 '·'가, '예'에는 방점 '·'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을 보니, '부·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 연철 표기는 이어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적기를 의미하는데, '부·메'에서는 이어적기(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03 ㉓ '노피'는 '높-'과 '-이'가 결합할 때 '높-'의 끝소리인 'ㅍ'이 '-이'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㉔ '높히'는 '높이'에서 '표'를 'ㅂ'과 'ㅎ'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재음소화 표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듭적기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㉔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고 있군.
→ ㉔ '므레'는 체언 '물'에 조사 '에'가 결합된 것으로, '물'의 끝소리인 'ㄹ'을 '에'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이어적기에 해당한다.
- ③ ㉔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끊어 적고 있군.
→ ㉔ '사룸이니'는 체언 '사룸'과 조사 '이니'가 결합할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끊어적기에 해당한다.
- ④ ㉔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고 있군.
→ ㉔ '도적글'은 체언 '도적'과 조사 '글'이 결합된 것으로, '도적'의 끝소리인 'ㄱ'을 조사 '글'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는 거듭적기를 하고 있다.
- ⑤ ㉔과 ㉔은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표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군.
→ ㉔ '붉은'은 어간 '붉-'과 어미 '-은'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를 한 것이고, ㉔ '드러'는 어간 '들-'과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들-'의 끝소리 'ㄹ'을 '-어'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04 <보기>에서 '-오-'는 어말 어미 앞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면 '-다-'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 '룬담ㅎ다라'에서 '-다-'는 '-더-'가 '-오-'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이므로, '-다-'를 '-더-'와 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의 '-우-'는 어간 '꾸-'에 있는 음성 모음 때문에 나타난 형태이군.
→ <보기>에서 '-오-'는 음성 모음 뒤에서 '-우-'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㉔ '꾸우니'에서 '꾸-'의 음성 모음 뒤에서 '-오-'가 '-우-'로 나타난 것이다.
- ② ㉔의 '-노-'는 '-누-'와 '-오-'가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이군.
→ <보기>에서 '-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결합하면 '-노-'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㉔ '뭉궤노니'에서 '-노-'는 '-오-'가 '-누-'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다.
- ④ ㉔과 ㉔에는 모두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군.
→ '-오-'가 ㉔ '뭉궤노니'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결합하여 '-노-'로 나타났고, ㉔ '룬담ㅎ다라'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여 '-다-'로 나타났다.
- ⑤ ㉔, ㉔, ㉔ 모두에는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한 어미가 사용되었군.
→ <보기>에서 '-오-'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고 하였다. ㉔, ㉔, ㉔ 모두 '-오-'가 쓰여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05 '거부비 터리 곧고'에서 '의'는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유정 명사인 '거북' 뒤에 있으므로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앞 단어 '거북'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로 실현되었다. '바미 비취니'에서 '인'은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있으므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앞 단어 '밤'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이'로 실현되었다.

오답 풀이

- ① ㉠: 거퇴 서서(겔에 서서), ㉡: 거부비 터리 곤고(거복의 털과 같고)
→ ㉠은 관형격 조사이어야 하는데 '거퇴 서서'의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은 부사격 조사이어야 하는데 '거부비 터리 곤고'의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 ② ㉠: 거부비 터리 곤고(거복의 털과 같고), ㉡: 거퇴 서서(겔에 서서)
→ ㉠에서 '거복'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이'가 아닌 '의'로 실현되어 '거부비'가 되어야 한다. '거퇴 서서'에서 '의'는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이므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겔'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로 적절하게 실현되어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 바미 비취니(밤에 비치니), ㉡: 사루미 브들(사람의 뜻음)
→ ㉠은 관형격 조사이어야 하는데 '바미 비취니'의 '의'는 부사격 조사이며 '밤'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의'가 아닌 '이'로 실현되어 '바미'가 되어야 한다. ㉡은 부사격 조사이어야 하는데 '사루미 브들'의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 ⑤ ㉠: 사루미 브들(사람의 뜻음), ㉡: 거퇴 서서(겔에 서서)
→ '사루미 브들'의 '의'는 관형격 조사로서 '사루'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이'로 실현되어 ㉠의 예로 적절하지만, ㉡의 '거퇴 서서'는 '겔'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로 실현되어 '거퇴'가 되어야 한다.

06 '보얌'은 끝소리가 자음 'ㅁ'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보얌'과 '이'가 결합하여 '보얌이'가 된다. '불휘'는 끝소리가 반모음 'ㅣ'이므로 주격 조사로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불휘'이다. '대장부'는 'ㅣ'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 'ㅜ'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ㅣ'가 쓰인다. 따라서 '대장부'가 된다.

07 ㉠의 '나리'는 '날+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는 ㉠의 경우에 해당한다. ㉡의 '아드리'는 '아돌+이'로 이 역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므로 ㉠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의 '太子(태자)'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주격 조사가 생략된 ㉡의 경우에 해당한다. '太子(태자)'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는 음운 조건이 아니므로, 만일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면 ㉡처럼 '太子ㅣ'로 나타났어야 한다. ㉡의 '두리'는 '두리+㉠'로 모음 '이' 다음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에 비해 ㉡의 현대어 풀이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 '孔子ㅣ'는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인, '孔子(공자)'의 'ㅌ' 다음에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경우이다.

08 현대 국어 '겔음'을 중세 국어에서는 '거르믈'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어근(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표기한 것이다. 즉, 현대 국어는 '겔음'이라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중세 국어는 '거르믈'이라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으므로 공통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현대 국어 '부처의'와 중세 국어 '부텃'을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의'가, 중세 국어에서는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텃 말'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ㅅ-ㅈ-'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에서는 'ㅅ-ㅅ-'가 쓰였고, 중세 국어에서는 'ㅅ-ㅅ-'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현대 국어 '바가'와 중세 국어 '배'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배'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9 ㉠ '中(중)國(국)에'는 현대어 풀이로 '중국과'이므로, 중세 국어에서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탐구 대상: ㉡의 'ㄹㅅ', 비교 대상: '아니하므로'의 'ㄹㅅ', 탐구한 내용: 'ㄹㅅ'은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 ㉡ '아니하ㅅ'에서 'ㄹㅅ'은 현대어 풀이로 '아니하므로'의 'ㄹㅅ'이다.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므로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 ③ 탐구 대상: ㉡의 'ㄹㅅ', 비교 대상: '어리석은'의 'ㄹㅅ', 탐구한 내용: 'ㄹㅅ'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 ㉡ '어리'에서 'ㄹㅅ'은 현대어 풀이로 '어리석은'의 'ㄹㅅ'이다.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므로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 ④ 탐구 대상: ㉡의 'ㅣ', 비교 대상: '바가'의 '가', 탐구한 내용: 'ㅣ'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 ㉡ '배'에서 'ㅣ'는 현대어 풀이에서 '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므로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 ⑤ 탐구 대상: ㉡의 '을', 비교 대상: '뜻을'의 '을', 탐구한 내용: '을'은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 ㉡ '브들'에서 '을'은 현대어 풀이에서 '을'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므로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10 ㉡에서 주체인 '아들'을 높이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들'을 존대하였다는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의 [A]에서 주체 높임은 실현되었으나 그 주체가 생략되었다.
→ ㉠의 [A]에서 '니르샤디'의 선어말 어미 'ㅅ-ㅅ-'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나, 그 주체는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의 [A]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의 [A]에서 '물준고'의 선어말 어미 'ㅅ-ㅅ-'를 사용하여 객체인 '세존'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③ ㉠의 [B]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의 [B]에서 '오시니잇고'의 선어말 어미 'ㅅ-ㅅ-'를 통해 객체인 '세존'을 높이는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⑤ ㉡에서는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 ㉡에서 '되습고'의 선어말 어미 'ㅅ-ㅅ-'를 통해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다.

헛갈리는 문법 Q&A

Q ㉠의 문장에서 주체와 객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A '世尊(세존)은 安否(안부)를 묻고 니르시되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르시되', 즉 말하는 주체는 A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오신 주체는 '세존'입니다. 그리고 '여쭙고'의 객체는 '세존'입니다.

11 ㉠의 '보습고'에 쓰인 선어말 어미는 '-습 -'인데, 이는 듣는 이인 '세존(世尊)'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객체인 '여래(如來)'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습고'의 현대어 풀이가 '뵈고'인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 '니르노뇨'와 ㉡의 '잇노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는 의문사 '므슴'을 포함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노뇨'가 쓰였고, ㉠은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으로 '-노녀'가 쓰였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쓰였다.
- ② ㉠의 '마룰'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의 '마룰'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의 '벼를'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되어 있다. '을'과 '을'은 앞의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중세 국어에서는 부르는 대상을 존칭하고자 할 때에 '世尊하, 大王하, 남금하' 등과 같이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호격 조사 '하'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에서 '世尊하'를 '세존이시여'로 풀이하였듯이 '(이)여'와 '-시-'가 결합한 형태인 '(이)시여'가 존칭의 호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의 '보더시니'가 현대어로는 '보시더니'로 풀이됨을 볼 때 선어말 어미 '-시-'와 '-더-'의 결합 순서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짚고 가기

중세 국어의 의문문

판정 의문문	상대에게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가, -녀, -려, -다가, -다' 등의 의문형 어미가 쓰임 예 이 쓰리 너희 종가
설명 의문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고, -노, -료' 등의 의문형 어미가 쓰임 예 大王하 언더 나를 모르시노니잇고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의문문의 유형과 상관없이 '-다'를 사용하였는데, 시제에 따라 '-다(과거), -던다(과거), -는다(현재), -는다/-다(미래)'를 씀 예 네 겹집 그려 가던다

12 15세기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는 어미 '-아'가 붙는다고 하였다. 'ㄱ독ㅎ야'도 선행하는 용언이 'ㅎ-'이므로 어미 '-아'와 결합하면 '-야'가 '-야'로 바뀐다. 현대 국어에서 '가득하여'도 선행하는 용언이 '하-'이므로 어미 '-아'와 결합하지만 음성 모음인 '-여'로 바뀌어 나타난다. 즉, 15세기 국어의 'ㄱ독ㅎ야'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으나, 현대 국어의 '가득하여'

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으므로,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5세기 국어: 알-, 아라/현대 국어: 알-, 알아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알-'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어미 '-아'가 선택되어 각각 '아라', '알아'로 활용된다. '아라'는 '알아'를 연철 표기한 것이다.
- ② 15세기 국어: 먹-, 머거/현대 국어: 먹-, 먹어
→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용언 어간 '먹-'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어미 '-어'가 선택되어 각각 '머거', '먹어'로 활용된다. '머거'는 '먹어'를 연철 표기한 것이다.
- ③ 15세기 국어: 끼오-, 끼와/현대 국어: 깨우-, 깨워
→ 15세기 국어에서는 '끼오-'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어미 '-아'가 선택되어 '끼와'로 활용되고, 현대 국어에서는 '깨우-'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어미 '-어'가 선택되어 '깨워'로 활용된다. 따라서 모두 모음 조화를 지킨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15세기 국어: 쓰-, 써/현대 국어: 쓰-, 써
→ 15세기 국어에서 용언 어간 '쓰-'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어미 '-어'가 선택되어 '써'로 활용되고, 현대 국어에서도 '쓰-'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어미 '-어'가 선택되어 '써'로 활용된다.

13 이 글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던 15세기에도 조사 '와/과'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17세기에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과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술'과 '후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겨술'의 'ㄱ'와 'ㄴ'은 음성 모음이고, '후루'의 'ㄷ'은 양성 모음이다. 이를 통해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오술'은 체언 '웃'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오술'은 양성 모음 'ㅏ'가 있으므로 양성 모음 'ㅏ'가 있는 '을'이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음성 모음 'ㅓ'가 있으므로 음성 모음 'ㅓ'가 있는 '을'이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후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후더라'는 양성 모음을 지닌 용언 어간 '후-' 뒤에 어미 '-더-'가 결합된 것으로, 용언 어간에 어미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둘째 음절의 'ㅓ'가 'ㅓ'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노뿔'과 (나)의 '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노물'은 15세기에서는 '노뿔'로 표기하였고 17세기에서는 '노물'로 표기하였다. 이 두 표기를 비교해 보면 첫째 음절에서는 'ㅓ'로 표기되지만 둘째 음절에서는 'ㅓ'가 'ㅓ'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memo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